



인제문화원

정자리의 사람들

인제군 정자리 사람들의 삶



인제군 정자리 사람들의 삶

# 정자리 사람들

이학주



인제문화원

## 이학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에서 출생했다. 현재 춘천시 후평동에서 살고 있다. 대학은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다녔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예술적 특성연구>(2000.2)를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광주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고,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글쓰기와 말하기를 강의하고 있다. KBS춘천라디오에서 2010년 4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강원로드>를 방송하고 있다.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이다.



| 인제군 정자리 사람들의 삶 |

# 정자리 사람들





## 정자리 사람들

초판인쇄 2016년 12월 20일

초판발행 2016년 12월 31일

펴낸이 남덕우

저 자 이학주

기획인 백창현

펴낸곳 인재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100

전화(033)461-6678/ 팩스(033)461-0220

편집·인쇄 도서출판 산책

※ 이 책은 인제군청의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목 차

contents

## 발간사

## 서 문

제1장	정자리 개관 .....	13
제2장	땅이름 .....	21
제3장	역사 구술 .....	57
제4장	세시풍속 .....	69
제5장	의식주 .....	81
제6장	구비문학 .....	103
제7장	생산민속 .....	133
제8장	일생의례 .....	149
제9장	민속놀이 .....	187
제10장	민간요법 .....	193
제11장	민속신앙 .....	211
제12장	내가 아는 정자리 .....	245





발간사

## 인제배려(麟蹄配慮)



인제는 참 사람살기가 좋은 고장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곳이야 누군들 다 알지만, 무엇보다 서로 챙겨주는 마음씨가 남다른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배려(配慮)이지요. 나보다는 가족을 챙기고, 이웃을 도와주고,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는 마음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용어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제배려(麟蹄配慮)”

어떻습니까? 이 용어가 그동안 인제라는 공동체를 이끌어온 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제를 가꾸어갈 원동력이면서 성장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하는 힘은 강합니다. 그것도 당리당락에 따른 이기적인 정책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인정(人情)으로 뭉쳐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마음씨여야만 합니다. 노약자를 보면 내 부모처럼 가슴 아파하고, 병약자를 보면 내 형제처럼 도와주려 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동료처럼 같이 아파하고 힘이 돼 주는 마음씨가 인정입니다.

배려하는 마음, 곧 인정이 있으면 경제적인 풍요가 없어도 늘 배부릅니다. 곤경에 빠져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즐거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제인은 이미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웃을 비방하거나 모욕주지 않고, 늘 칭찬하고 아껴주었습니다. 참 살기 좋은 고장으로 지금껏 지내온 것이지요. 앞으로 수천년이 지나도 인제인의 이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인제인은 모두 형제이고 착한 이웃입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든 “인제 배려”를 인사말로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 긴 시간에 걸쳐서 남면 정자리 사람들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지명, 세시풍속, 민속신앙, 민간요법 등 정자리 사람들이 살아 온 내력을 찾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은 정자리 사람들이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역사입니다. 아울러 모든 인제인의 역사이지요. 몇 십 년이 지난 어느 날에 본다면, 정말 인제를 빛나게 할 까마득한 옛 기록이 될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오늘의 문명은 이런 우리의 삶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니깐요.

앞으로 인제의 곳곳을 이렇게 엮어 책으로 낸다면 우리 인제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작업이 곧 “인제배려”를 실천하는 진면목이겠지요.

이 자료를 모으기 위해 정자리를 찾아 현지조사를 하고, 관련 문헌을 뒤져 정리하느라, 불철주야 애를 쓴 이학주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인제문화원장 남 덕 우



서문

## 모두 한 가족 정자리 사람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있을까? 저는 이 책 『정자리 사람들』을 내면서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을까? 이 물음이 더 어울리겠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정자리 사람들을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아 사랑으로 푹푹 뭉친 사람들입니다.

정자리 사람들은 이편저편을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 내편이니까요.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늘 좋은 선후배이고 이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찾기 어려운 진정 옛 풍속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정자리 사람들에게는 촛불과 장미,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애국과 종북, 친일매국과 빨갱이라는 대결구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런 국가의 현 상태는 모두 개인의 이익에 눈이 먼 일부 못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이런 대결구도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정자리 사람들처럼 살면 됩니다. 서로 위해 주면서 말이지요.

참 열심히 사는 정자리 사람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고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칭찬만 있습니다. 한 여름 땀벌에서 체보자를 찾으려면 언제나 고추밭, 상추밭으로 가야 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익숙히 몸에 밴 모습이지요.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도원(桃園)이 따로 있겠습니까. 정자리 사람들이 사는 곳이 무릉도원입니다.



이 책은 정자리 사람들의 민속지입니다. 처음에는 남면 전체를 하려고 했으나 문화원 백창현 사무국장의 조언에 따라 정자리로 결정하게 되었지요.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범위가 넓으면 아무래도 깊이 있게 자료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책의 내용은 지명, 민속신앙, 세시풍속, 민간요법, 생산민속, 민속놀이, 설화 민요 등을 모두 아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력이 투입되는 작업이라, 아무래도 영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자리 사람들이 챙겨 주시고, 나중에 다시 보완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업비용을 책정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남덕우 인제문화원장님, 그리고 기획에서부터 제작과정에 일일이 신경을 써주신 백창현 사무국장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은 모두 정자리 주민의 제보로 만들었습니다. 농사터에서, 마을 제사 현장에서, 마을회관에서 제가 찾을 때마다 반가운 표정으로 맞아 주시고 제보를 아끼지 않고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모두 이분들의 것입니다. 모든 정자리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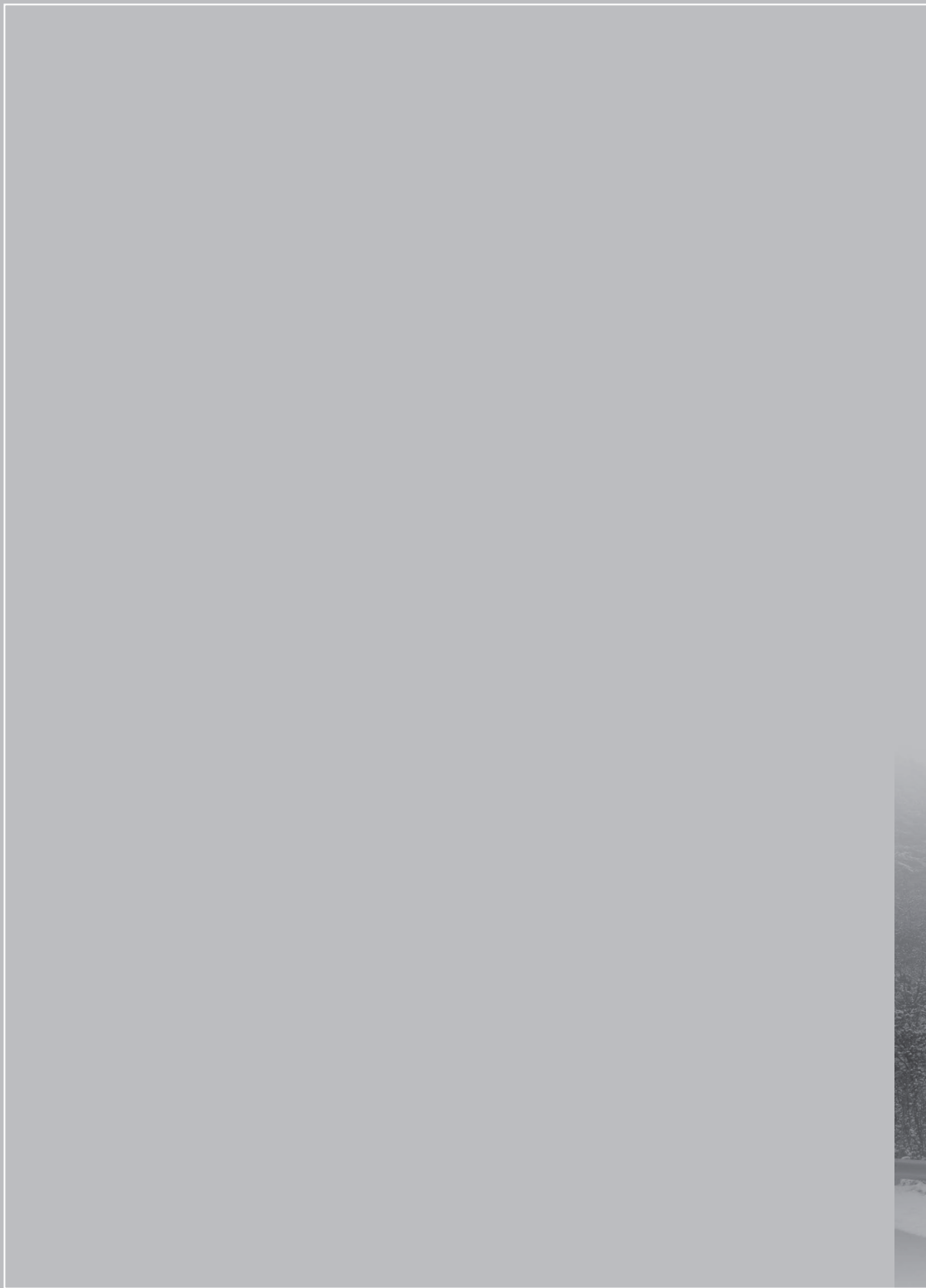
2016년 12월

춘천 무편서실(無偏書室)에서  
문래산인(文來山人) 이학주 쓰다





정자리 사람들





# 제1장 정자리 개관







## 제 1 장

# 정자리 개관

### 정자리(亭子里)

『인제군사』(1996)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본래 남면 지역으로 정자가 있었으므로 정자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골, 셋말, 아랫말, 기령골을 병합하여 정자리라 하였다. 면 소재지에서 10km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주 소득원은 고랭지(高冷地) 채소이다.



2002년 새농촌건설우수마을 선정 기념으로 세운 마을 표석

1757~1765년에 출간된 『여지도서』에는 정자막리(亭子幕里)라 하여 “관아에서 남쪽으로 50리이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17호이다. 남자는 35명이며, 여자는 24명이다.”라고 하였다.

1830년에 출간된 『관동지』에는 정자막리(亭子幕里)라 하고 “관문에서 남쪽으로 450리 거리에 있다. 편호 11, 남자 24명, 여자 28명이다.”라고 했다.

1910년에 출간된 『조선지리지』에는 동리명으로 정자막(亭子幕)이라 하고, 한글로는 정자막이라 한다는 지명만 나온다.

1940년에 출간된 『강원도지』에는 정자리(亭子里)라 했다.

정자리라는 지명이 생긴 것은 이 마을 중앙에 옛날 재를 넘어 다닐 때 쉬었다 가라고 정자를 지어놓았는데, 그때 정자가 있었다고 붙여진 명칭이다. 주막처럼 사람이 쉬었다 가는 곳이었다. 산적들이 많아서 혼자 가게 되면 당하여 물건도 빼앗기고 목숨도 위협하므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기위한 곳이었다.

정자리는 배형국의 모양을 가진 고장이다. 그래서 땅을 뚫어 물을 먹으면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배 바닥을 뚫어 배가 가라앉는다고 한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남북이 38선으로 갈라지면서 정자리는 38선 경계에 있었다. 그 때문에 이곳 정자리 셋말에는 경찰서가 들어와 있었다. 지서가 있다 보니 경찰도 많이 와서 근무를 했다. 인민군과 중공군이 이쪽으로 밀려와서 국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미군도 들어와서 전투를 치렀다. 이때 동네 젊은이들은 결사대와 청방을 조직해서 함께 싸우기도 했다. 결사대는 군인들보다도 전과를 많이 올렸다고 마을사람들은 말한다. 그분들이 진정 영웅이라 한다. 비록 군번도 없고 나라에서 무



정자리의 정자



산마늘 재배(사진 심영춘)



마을정화 작업(사진 심영춘)

엇을 해 준 것은 없지만, 목숨을 걸고 최전방에서 적과 싸웠다고 했다.

화전정리 하기 전에는 백여 호가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화전정리를 하면서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곳에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상을 받고 모두 도회지로 떠났다. 지금은 동네 땅이 대부분 외지인에게 팔렸고, 동네사람들 중 몇몇은 그 땅을 도지를 얻어 농사를 짓는다.

정자리는 1개리 4개 반인데 각 반마다 지당이 있어서 마을제사를 지낸다. 서낭당은 셋말과 아랫말에만 있고 나머지 각 반마다 지내는 것은 지당이라고 한다. 그러니 산지당이라 할 수 있다. 매봉재 있는 곳이 1반이고, 기령골이 2반이고, 셋말이 3반이고, 아랫말이 4반이다. 4반은 지당도 있고 거리제를 지내는 서낭당도 있다.

마을사람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다. 채소를 주로 심는데, 배추와 무를 비롯해서 상추와 고추와 호박과 피망을 많이 심는다. 몇몇 농가는 산나물을 재배하여 봄에만 일을 하고 세 계절은 휴식을 취하는 농가도 있다. 산나물은 주로 곰취와 산마늘을 심는다. 그리고 오미자와 사과를 심는 농가도 많은 편이다. 매일 아침 농가의 수확물을 거두어 신고 가락동시장으로 가서 경매를 통해 출하를 한다. 농가마다 수입이 상당히 높아서 다른 마을에서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에는 논이 많았는데, 밭 수확이 더 좋아서 논을 밭으로 바꾸었다. 논농사를 짓는 농가는 몇 안 된다.





정자리 산나물 체험행사(사진 심영춘)



가로수 심기(사진 심영춘)

비료가 보급되기 전에는 산에서 풀을 베어 거름으로 썼다. 그 중에 주춧풀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에 가서 칙닝쿨 등을 베어 조사료로 사용했다. 여름이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풀을 베어 쌓아두고 겨울에 외양간에 넣어 거름을 만들었다. 이때 풀메기는소리를 하였는데,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소리를 메겼다.

도로가 나기 전에는 시장을 보러 가려면 재를 두 개나 넘어야 했다. 정자리에서 소치리로 넘어가는 정자고개를 넘고 또 소치리에서 신남으로 넘어가는 노가지재를 넘어 다녔다. 아기업고 곡식 보따리를 이고 다니려면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아침에 어두워서 가면 저녁에 어두워야 정자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시장가서는 어디 싼 물건이 있냐하고 이곳저곳 기우뚱 거리다보면 금방 시간이 흘렀다.

정자리, 소치리, 부평리가 하나의 골짜기로 이뤄져 있는데 이 골짜기를 함께 부르는 이름은 없다. 각 마을마다 이름을 따로 부르고 있다.

마을에 길이 뚫리기 전에는 인심도 지금보다 좋았다. 음식을 해 놓고는 서로 먹으러 오라고 해서 함께 했고, 조그만 것이라도 서로 나눠먹고 쓰곤 하였다. 뉘를 하든 단합도 잘 되었다. 그런데 도로가 뚫리면서 자동차가 뽕뽕 달리자 곧바로 시내까지 갈 수 있게 되자 많이 달라졌다. 문명이 바뀌면서 마을의 생활환경도 달라졌다고 했다. 그래도 외지인이 가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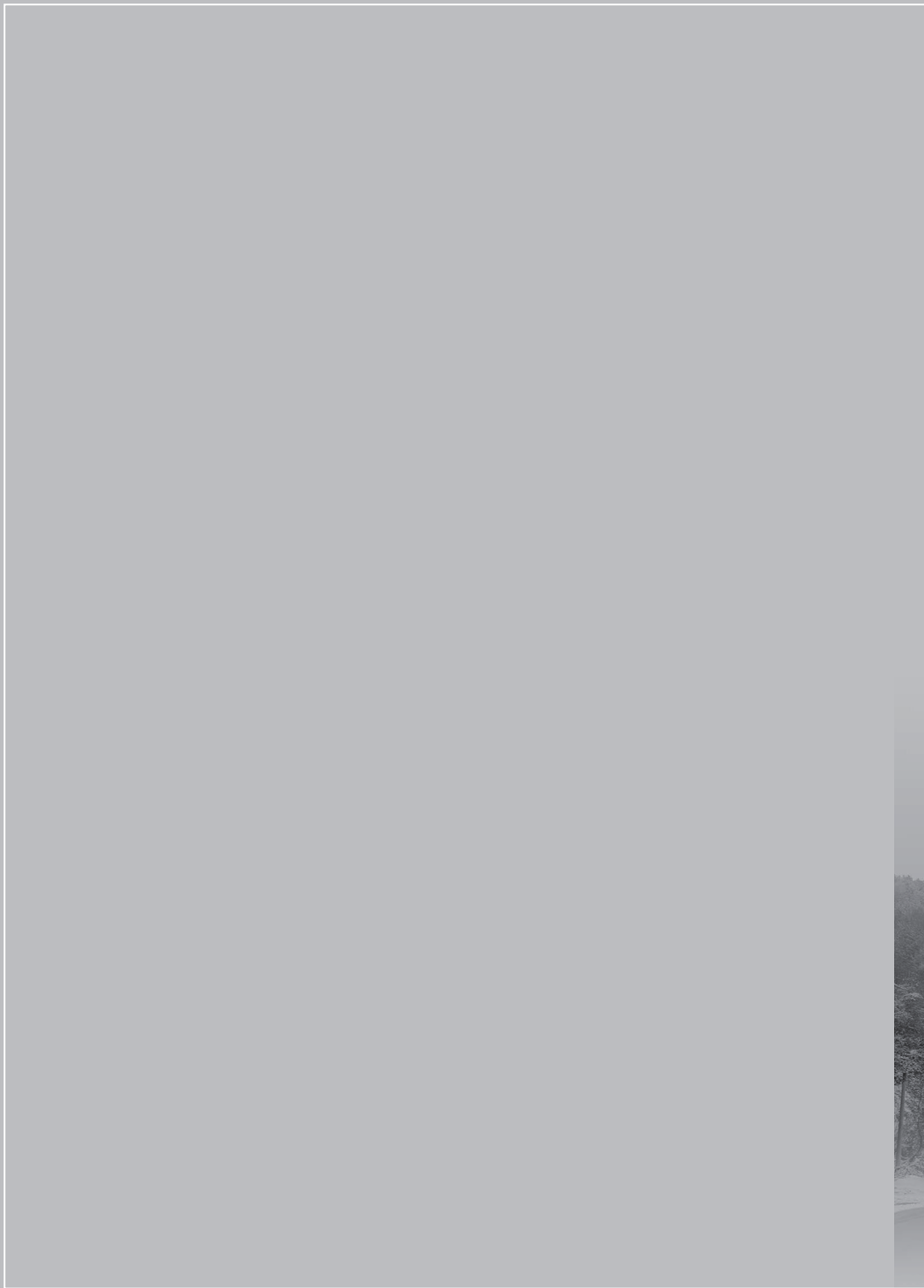


정자초등학교 15회 졸업기념(사진 심영춘)

세상에서 가장 인심이 좋은 마을 중의 하나였다.

특히 군부대 부지로 편입이 되면서 마을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면서 마을풍경이 더욱 많이 달라졌다. 워낙 마을에서 반대를 많이 하니 국방부에서는 정자리를 부대부지에서 빼주겠다고 했는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살려는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었다. 조용하던 마을에 괜히 풍파만 일으킨 것이다. 원래는 김부리와 갑둔리만 군부대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정자리까지 군부대 부지로 편입을 시켰다. 그 때문에 군부대 부지로 편입된 지역에서 벌써 몇 집이 이사를 갔다.

정자리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마을의 행사며 축하 등이 이뤄졌다. 특히 마을에서 축하를 해 줄 일이 있으면, 학교 운동장에 술문을 세웠다. 마을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경사를 함께 했다. 그러나 이제는 폐교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16년에는 남아있던 건물마저 모두 헐었다.





---

제2장  
땅이름





## 제2장

# 땅이름

### 가래골

기령골로 올라가는 중간에 위치해 있는 골짜기이다.

### 거릿말[셋말]

셋말의 이칭인데, 정자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거리가 네 갈래로 주어졌다고 해서 거릿말이라고도 한다. 지난 2016년 6월까지 어떤 목사가 길 가운데 교회를 짓고 비켜주지 않아서 도로가 돌아 나갔다. 이 때 문에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았다. 이제는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가서 도로를 곧게 펼 수 있었다.



셋거리

### 금봉(禁峰, 錦峰)

금봉은 셋말 맞은편에 있는 높은 산이다. 옛날에는 이 금봉에 나라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곳에 나무 같은 것을 길러서 여기서 물로 해가지고 서울까지 뗏목으로 날랐다. 그래서 금봉이 되었다고 전설이 전한다. 나무 베는 것을 금(禁)한다고 했다. 또 비단(錦)처럼 아름다운 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이 산에는 정자리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많이 갔다.

### 금봉교

아랫말의 양지도롱골에서 음달도롱골로 건너가는 다리에 그렇게 써져 있다. 그곳 주민에게 물으니 금봉교의 뜻을 잘 알지 못했다. 금봉산에서 따온 명칭인 듯하다.

### 금산골(錦山谷)

거릿말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이 좋고 비단처럼 아름답게 생긴 산이라 하여서 금산(錦山)골이라 한다.

금산골에는 맑은 샘이 있어서 기도처로 유명하다. 그 때문에 지금 서낭제를 지내는 박정숙 무당



금봉산

도 처음에는 이곳 금산골에서 기도를 했다. 산도 좋을뿐더러 샘이 좋기 때문이었다. 이 샘은 워낙 차서 5분 이상 발을 담그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현재 셋골 서낭당에서는 금산골의 샘을 배관을 통해 받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마을사람들이 금산골에 있는 샘물에서 물을 가져다 먹는다. 가을비만 좀 많이 오면 겨울에도 물이 줄지 않는다. 거릿말에서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받아먹기도 한다.

이옥녀(여, 84) 제보자에 의하면 예전에는 금산골 약수나 석장골 약수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던 사람은 예전에 이곳에서 나서 살던 사람이었다. 이름이 ○연자라고 했다. 그런데 그 딸이 여기 다니면서 또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요즘은 금산골 약수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했다.

## 기령

떡구네미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 기령골[길영동(吉寧洞), 기룡골]

길영동(吉寧洞)이라고도 한다. 길영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자리 2반이다. 셋말에서 좌측으로 한참을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길이 좁게 올라가다가 길영동에 이르면 둥그렇게 넓은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대부분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한다.



기령동 전경

가구 수는 몇 채가 있으나 대부분이 일명 ‘낮농사’를 한다. 낮에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고 저녁이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낮농사라고 그곳 사람들은 표현을 했다. 낮농사를 짓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에 불편해서 신남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다. 신남에 아파트를 사놓고 생활하고, 겨울이면 그곳에서 살고 여름이면 기령골에 와서 농사를 짓는다. 원래 농사꾼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것은 하지 않는다.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을 모아서 파는 농산물수거차가 들어와서 신고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경매를 하여 각자 판매대금을 나누어 준다. 서리가 오기 전까지는 농사가 계속된다.

이 동네는 1970년대 화전정리를 하기 전에는 곳곳에 많은 집들이 들어서 있었다. 많을 때는 23호 이상으로 꽤나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1960년대에는 정자리에 150호정도의 가구가 살았다. 기령골에는 1960년대 초반에는 23호가 살았다. 중반에는 18호가 살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 화전정리를 하면서 다 빠져나갔다. 화전정리 후에 14집이 살았다. 지금은 대부분 낮농사 짓는 집이고, 진짜 사는 집은 한 집 뿐이다. 농사철 끝나면 모두 나가고 동네가 텅빈다.

기령골에서는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나무로 스키를 만들어 타기도 하고, 어른들은 토끼사냥을 많이 하였다.

나무스키는 물푸레나무로 통상 만들었다.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나무를 잘라 스키처럼 나무를 다듬는다. 그리고 앞부분을 불에 달구거나 여물을 끓일 때 넣고 오랫동안 불린 후 나무 틈새에 넣고 휘어서 타원형으로 만든다. 발을 올려놓는 부분은 구멍을 뚫어 노끈으로 맨다. 긴 작대기 하나를 들고 방향을 틀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로 타고 내려온다. 기령골에서는 주로 기령고개(머그네미고개)에 올라가서 마을을 지나 마을입구까지 이르는 곳에서 스키를 탔다. 스키는 겨울에 아이들이 노는 가장 역동적인 놀이였다.

토끼사냥은 주로 동네어른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했다. 산에서 토끼를 몰아 잡아서 술을 먹으면서 하루를 놀았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농촌





기령동 채소밭

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그러면 끼리끼리 모여서 토끼사냥을 하였다. 다들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작대기를 하나씩 들고 토끼가 숨어있을 만한 곳을 찾아 소리를 지르면서 작대기를 풀숲에 내리치면 숨어있던 토끼가 나와 도망을 간다. 그러면 소리를 치면서 힘껏 몰아서 토끼를 잡는다.

기령골에서는 대보름 달맞이도 거의 안 했다. 동네에서 모여 윷놀이 정도는 함께 했다. 정자리에서 대보름 달맞이는 흔치 않았다. 그 전에는 안 하고, 최근 약 10여 년 전부터 정자리 셋말에서 하고 있다.

### 기령골뽕족봉무덤

기령골 가운데에 뽕족 선 작은 산이 있다. 이 산 이름은 특별히 없는데, 산이 중간에 뽕족 섰다고 해서 뽕족봉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산 위에는 커다란 무덤이 있다. 무덤 앞에는 비석과 상석과 문인석이 있으나 오래돼서 글자가 지워져 정확히 읽을 수 없다.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역적이 돼서 집안이 모두 몰살을 당했다고 한다.



무덤의 비석



문인석 뒷모습

지금도 찾아오는 후손이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산소는 모두 3개가 있다.

비석은 높이가 약 60cm정도 되고, 문인석은 크기가 약 1m남짓이고, 두 개인데 앞은 사람 얼굴 모양을 새겼고, 뒤는 밋밋한 모양이다. 이 역시 오래 돼서 낡고 많이 닳았다. 크기가 작은 것은 운반상의 문제 때문일 것이라 말한다. 인제지역의 망부석과 문인석은 우연찮게도 현지에 가보면 대부분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요즘 세우는 것은 큰데, 옛 무덤에는 30cm에서 60cm정도의 크기가 많은 편이다.

봉분은 아직도 그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나, 나무와 잡풀이 우거져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무덤 앞에는 2016년 10월 경 누군가 수목장을 했다.

### 기령골지당

정자리 2반이다. 기령골로 곧장 올라가면 조립식으로 지은 꽤나 큰 집과 대단위 비닐하우스를 볼 수 있다. 바로 그 비닐하우스 좌측으로 들어가면 약간 비탈진 밭이 있다. 2016년 7월에는 감자를 심어 놓았다. 이 밭 좌측의 가장 자리로 걸어가면 산 아래에 이르게 되는데, 약 30여m 밭 가

장다리로 들어가면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계곡이 있다. 계곡에는 물길이 적으나마 그치지 않고 흐르고 있으며, 위에는 숲이 우거져 있다. 바로 그 계곡 옆에 보면 평평하게 닦아놓은 곳에서 지당을 만날 수 있다.

지당 왼쪽에 계곡물이 흐르고 계곡에는 큰 바위가 둥그렇게 놓여 있다. 지당은 통나무를 베어서 귀틀집으로 만들고 그 위에 슬레이트를 올려 지붕을 하였다. 당집의 크기는 사방 1m정도이며, 귀틀은 3면이고 앞은 트였다. 바닥은 보도블럭을 깔아놓았다. 지당 안에는 한지는 없고 실타래가 걸려 있었다. 바닥에는 양초와 우유병이 놓여 있었다. ⇒ 민속신앙 참조

### 기령산

기령골 위에 있는 산이다. 해발 934m의 높이이다.

### 길영고개[기령, 머그네미고개, 먹구네미고개]

기령고개. 기린면 서리로 넘어가는 긴 고개이다.

### 길영동

기령골의 이칭이다.

### 깨골[깨꼐]

매봉재와 양짓말 사이이다.

### 다락골

작은 통골 끝부분에 있는 골짜기이다.

### 단지골고개

숫가마골에서 오른쪽으로 난 고개이다. 이 고개를 넘으면 단지골이 나온다. 정자리에서 상남면 김부리의 단지골로 가는 고개이다. 매봉재에서

김부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대통골

큰 통골을 일컫는다.

### 더령재

아랫말에서 상남면 김부리로 가는 재이다.

### 덕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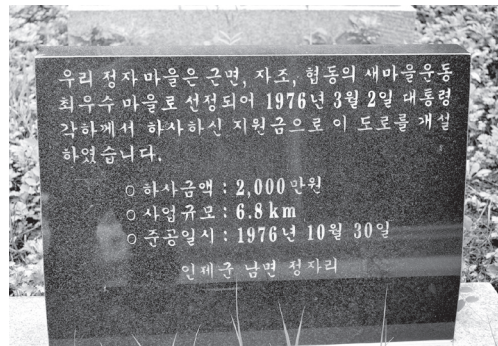
거릿말에서 정자리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왼쪽에 밭이 있다. 그곳 언덕을 일컫는 말이다. 이곳에는 현재 장뇌삼을 많이 심어 놨다. 범골 앞쪽이 된다. 매봉재 밑쪽이다.

### 뒤틀터봉

뒤틀터골[도토편]로 올라가면 있는 산이다. 해발 1037m이다. 김부리의 상단지골과 가까우며, 상남면 대바위산(해발 1091m)이 가까운 곳에 있다.

### 도로표고사업장

정자리 정자각이 있는 곳에는 작은 공원이 있다. 이곳을 도로표고사업장이라 한다. 이곳은 1976년 대통령 하사금으로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하였다. 이곳에는 두 개의 작은 표석이 있는데,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내



도로개설 표고비



용의 글이 새겨져 있다.

“우리 정자마을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어 1976년 3월 2일 대통령 각하께서 하사하신 지원금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하사금액: 2,000만원 ○사업규모: 6.8km ○준공일시: 1976년 10월 30일 인제군 남면 정자리”

“대통령 각하께서 지원하신 하사금으로 이 표고사업장을 시설하였습니다. ○지원금액: 200만원 ○사업규모: 200㎡ 1976년 5월 17일 인제군 남면 정자리”

### 도토골[덧티골]

산돼지와 토끼가 많아서 도토골이라 불렀다고 하나 지도상에는 도화동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또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덧티골이라고도 한다. 매봉재와 셋말 사이로 올라간다. 도토골을 지나 고개를 넘어가면 김부리



도토골 버스 정류장

의 상단지골이 나온다. 옛날 호랑이가 많이 나타나서 덧을 놔서 잡으려고 했다. 그래 호랑이 덧을 놔서 덧을 논 골인데 나중에 도토골로 바뀌었다.

예전에 이골에 한 개 반이 살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그 위가 군부대 부지로 편입되었다. 장근성 씨가 가장 나중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범골로 이사를 왔다. 이곳으로 넘어가면 김부리가 나온다.

## 도화동(桃花洞)

도토골. 정자막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동대골

통골로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마당바위

기령골 중앙 밭 가운데 있는 커다란 바위이다. 바위가 마당처럼 넓어서 마당바위라 한다. 길이는 15m, 넓이는 10m 정도의 크기이다. 예전에 정자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소풍을 와서 바위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며 놀기도 하였다. 그 당시 학생 120명이 마당바위에 올라갔다.



마당바위

## 마을회관, 노인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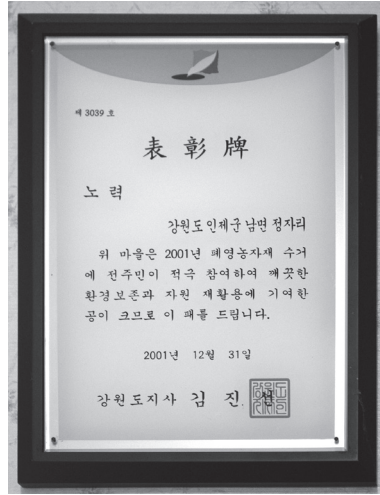
노인정을 겸하고 있다. 셋말 개울 건너에 있다. 마을회관 입구에는 예전에 정자리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할 때 실천마을의 3가지 항목을 적어놓은 팻말이 있다. 그곳에는 “정신-의식과 발상의 전



마을회관

환→ 신지식인·자생력 함양, 소득  
최대부가 가치창출→소득배가·생  
활안정, 환경·농촌다운 환경조성→  
질 높은 주거·마을환경”이라고 적  
어 놓았다.

농번기 때는 농사일이 바빠서 사  
람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농한기가  
되면 동네 노인들이 이곳에 모여 소  
일을 하면서 지낸다. 부녀회가 있  
어서 먹을 것도 준비를 한다. 그리  
면 돼지를 잡아서 나눠 먹는다. 마  
을사람들이 군부대 때문에 많이 떠



폐자재수거 표창패

나도 재미있게 살고 있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나이 많  
은 노인들이 많지 않다. 옛날에는 팔십 산 노인들은 많지 않아도 사람이  
많았다.

마을회관에서는 정월대보름이 되면 달집태우기를 한다.

건물 안에는 <노인강령>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사회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 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얼을 후손  
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 1)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한다.
- 2) 우리는 경로효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 3)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그리고 벽에는 백담사 무산(霧山) 조오현 스님이 2007년 정지용 문학  
상을 받은 기념 걸패를 걸어놓았다. 걸패에는 <아득한 성자>라는 시가  
있다.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떼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떼

### 말등바위

애맥골 뱀바위 앞에 있는 커다란 바위이다. 그 모양이 말 등 모양으로 생겼다. 지관들이 이 모양을 보고 주변에 명당이 있을 수 있었는데, 말등 바위가 중간에 갈라져서 명당이 없다고 하였다.

### 매고개

매봉재의 이칭이다.

### 매봉산

정자리 가장 안쪽에 있는 산이다. 매처럼 산이 생겼는지, 아니면 매가 많이 날아들었는지는 몰라도 옛날부터 매봉산이라고 했다. 월대리, 서리, 김부리, 정자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이 산 너머는 기린면과 상남면이다. 매봉산 중턱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매봉재라 하고, 또 매봉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매봉재라고 한다. 임도가 닦여 있어서 쉽게 넘을 수 있다.





매봉산



매봉재 입도

이 산에는 산삼이 많아서 산삼을 캐기 위해 심마니들이 항상 산을 뒤지고 다녔다. 다른 곳의 사람들도 와서 산삼을 많이 캐갔다. 숲가마골에도 산삼이 많이 난다. 제보자 이옥녀 씨의 남편도 심메마니를 했다. 삼을 캐러 갈 때 셋골 서낭당에 와서 치성을 드리고 갔다. 그래서 매봉산이라고 하면 산삼 캐는 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매봉재

매고개. 양지말 뒤 매봉산에 있는 재로 정자리에서 상남면 하남리로 가는 길목이다.

### 매봉재천

매봉재에서 내려오는 작은 개울이다. 물이 흘러 정자천으로 흘러든다.

### 먹구네미고개

머그너미재. 길영고개의 이칭이다. 먹고 넘는 고



기령동에서 바라 본 먹구네미고개

개가 변한 것이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기린면 서리가 나온다. 너무 고개가 높아서 중간에 가다가 뭔가 먹고야 넘을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문골

통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큰서리 위에 있다.

### 물안골

통골에 있는 골짜기로 질골 위에 있다.

### 물어귀[물어구]

소치에서 정자리로 들어오는 입구이다. 물이 감아 돌아드는 곳이다.

### 뱀바위

애맥골에 있는 바위이다. 발 가운데 둥그러니 놓여 있다. 앞에는 말등바위가 있고 말등바위 바로 앞에 있는 네모난 바위를 뱀바위라 한다. 뱀바위는 날만 흐리면 어김없이 구렁이가 꼭 몇 마



말등바위(뒤)와 뱀바위(앞)

리씩 나와서 바위에 기어 다닌다. 지금은 땅꾼이 와서 뱀을 다 잡아가서 뱀을 볼 수가 없다. 마치 말등바위 앞에 차려진 제상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 범골

봉골이라 하기도 한다. 아주 오래 전 이곳에 살던 한 여인을 범이 물어

갔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다. 여인이 개울 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호랑이가 내려와서 물어갔다. 거릿말 위쪽이며 석장골 아래에 위치해 있다. 큰 범골과 작은 범골이 있다. 큰 범골 능선에는 범바위가 있는데, 범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 범바위

큰 범골 능선에 있는 바위이다.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범(호랑이)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이다.

### 봉두라지

기령골에 있는 작은 봉우리를 일컫는다. 마을 중간에 세 개가 있다. 각각의 이름은 알 수 없고 그냥 생긴 모양을 따라 봉긋 솟은 언덕이라 해서 봉두라지라 한다.

### 삼개면봉

응봉산과 매봉재 사이에 있다. 기린면, 남면, 상남면이 접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셋말[거릿말]

간촌. 거릿말이라고도 한다. 아랫말과 웃말인 매봉재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정자리 3반에 해당한다. 정자리의 중심 마을이 된다.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위치해 있다.

### 셋말서낭당

정자리는 4개 반인데 반마다 서낭당이 있다. 3반은 정자리의 중심 마을이라 할 수 있는데, 마을 중간 길 옆에 서낭당이 위치하고 있다. 길가에는 태극기와 무당의 신기(神旗)가 세워져 있고, 그 아래에 ‘정자리 서낭당’이



셋말서낭당

라 쓴 나뭇조각으로 된 서낭당 팻말이 세워져 있다. 팻말은 다 뜯겨져 나가 초라하지만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다. 팻말 옆을 보면 울창하게 나무숲이 있다. 이 팻말이 있는 곳은 서낭제를 지낼 때 수문장이 머무는 곳이라 한다. 수문은 서낭당을 지키는 신이 머무는 곳이다. 서낭당으로 들어오는 입구로 수문장을 위해서 제물을 따로 놓아둔다. 이곳은 옛날 서낭당이 있던 곳이다. 도로가 나면서 지금 있는 곳으로 서낭을 옮겼다.

이곳 서낭당은 마을 축제의 장이었으며,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기도 했다. ⇒민속신앙 참조

### 석장골

셋말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어떤 유명한 풍수가 산자리를 볼 때 돌로 만들어진 천연적인 꼭이 있으나 아직 임자가 나타나지 못하여 그곳을 알려줄 수 없지만 이 골짜기에 분명히 있다면서 증거로 이곳을 파면 범 모양의 돌이 나온다고 파 보라고 했다. 그곳을 팠더니 정말 범 모양의



돌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장차 이곳은 석곽 속에 장사를 지내는 일이 생길 것이라 믿고 석장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 돌무덤이 있어서 석장골이라 했다고도 한다. 1970년대 이곳에 돌배 나무가 있어서 단오가 되면 그네를 매고 탔다.

석장골로 올라가면 모두 농사를 짓는 밭이다. 가장 안쪽은 산이고, 약수터 있는 곳까지 밭이 있다.

### 석장골약수터

석장골 끝에 있는 약수가 흘러내리는 곳이다. 바위틈으로 들어가면 맑은 샘이 있다. 이곳은 정자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석장골에 사는 이옥녀(여, 84) 제보자의 시누이도 이곳에서 기도를 했다. 기도는 자식을 기원하는 것도 있고 매년 신수를 기원하기 위해서도 한다. 자식들의 시험 합격 및 무병장수를 기원하기도 한다. 좀 크게 할 때는 돼지머리를 사다가 놓고 약수 앞에서 정성을 드린다.

### 소통골

작은 통골을 이른다.

### 수리바위

기령골 수리봉에 있는 바위이다. 수리봉 8부 능선쯤에 널찍한 바위가 있다. 이곳에는 수리가 모여 있다가 바위에서 날아 하늘로 뜬다.

### 수리봉

기령골에 있는 높은 봉우리이다. 이 봉우리에 수리가 날아들어서 불러진 이름이다. 겨울이면 수리봉에서 독수리가 뜬다.

수리봉을 중심으로 기령골 등어리가 38선이다. 남북이 대치하던 곳여서 6.25한국전쟁 때 전투가 많았다. 인민군, 중공군 모두 이곳으로 넘

---

어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1970년대에 이곳에 나무를 하러 가면 해골이 이곳저곳에 가득했다.

### 숫가마골1

매봉재 아래에 있는 넓은 농토가 있는 곳이다. 옛날 숫을 굽던 숫가마가 있었다.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고 해서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지어 모두 지고 내려왔다.

### 숫가마골2

기령골에 있는 숫가마골이다. 기령골로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정자리에는 매봉재에도 숫가마골이 있고, 기령골에도 숫가마골이 있다.

### 숫가마골지당[웃말지당]

숫가마골지당은 정자리 1반 지당이다. 매봉재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데, 농토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산으로 약 10~15분정도 걸어가면 지당을 만날 수 있다. 당집은 돌로 쌓아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한 형태이다. 당집 안에는 실을 걸어 놓았다.

제사일자는 매년 2월과 8월 첫 정일이다. 예전에는 좋은 날짜를 따로 정해서 지냈으나 이제는 날을 보는 사람도 없고 해서 첫 정일(丁日)로 하기로 했다. 시간은 보통 아침 8시경이 된다.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언제 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조금씩 다르다. 2월에는 날씨가 추워서 조금 늦게 하고, 8월에는 다들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일찍 제사를 지낸다. ⇒ 민속신앙 참조

### 쉼터

정자리 셋말 길가 서낭당 아래에 있는 공터이다. 족구장 정도 크기로

바닥이 평평하게 잘 닦여져 있다. 등나무가 심어진 그늘과 나무 의자가 길게 놓여 있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다. 옆에는 정자천이 흐르고 있으며, 주변에는 각종 나무가 심어져 있다. 마가목, 산사춘, 산수유, 등나무 등이 있다. 가을에는 빨갛게 각종 열매가 매달려서 또 다른 풍광을 나타내고 있다.

### 아랫말[하촌(下村)]

하촌(下村)이라고도 한다. 정자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4반에 해당하며, 소치리와 맞닿아 있다.

### 아랫말지당

정자리 4반의 아랫말에 있는 지당이다. 4반은 지당이 산제당과 거리제당 두 군데 있다. 중심 제당은 양지도롱골에 있는 산제당이다. 이 골은 마을의 제당이 있는 관계로 지당골이라고도 부른다. 당집은 나무를 에워서 둘러쳐져있고, 지붕은 슬레이트로 이었다. 당집 안에는 실과 한지가 걸려 있다. 지금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함석으로 사방을 뒤덮었다. 산제당은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민속신앙 참조

### 아바우

매봉재 너머 있다.

### 양지말

정자리 동북쪽 양지에 있는 마을이다. 매봉재에 있다. 덕둔지 아래쪽, 숲가마골 맞은편이 된다.

### 양지도롱골[지당골]

아랫말 양지쪽에 있는 산비탈을 일컫는다. 이곳에 정자리 4반의 산지

당이 있다. 서낭당인 거리당은 개울가인 현재 정자를 지어 놓은 길 건너편 아래에 위치해 있다. 양지도롱골은 햇볕이 잘 들어서 따뜻한 분위기를 띤다.

### 애맥골(愛麥谷)

이곳은 다른 곡식도 잘 되지만 특히 밀을 많이 심었고 보리가 잘 되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정자초등학교가 있는 옆으로 난 골짜기이다.

### 열녀비(진주 유 씨)

숫가마골에 있다. 농토가 있는 곳으로 오르다보면 왼쪽에 흰색 화강암으로 된 비석을 만나게 된다. 비만 있고, 비각은 없다. 원래 이 열녀비는 마을 가운데 있었는데, 길이 나면서 지금 위치로 옮겼다. 주변은 사방으로 둥글게 땅을 손질하고 그 가운데 비를 세웠다.

열녀비의 비문이 글씨가 흐려 정확히 읽을 수 없는 글자도 있다. 뒷면에 보면 열녀비를 세운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大正十四年乙丑九月十五日立碑(대정십사년을축구월십오일입비)”라 하여 1914년 9월 15일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연호를 쓰고 있다. 앞면에는 가운데 “永川李公任安妻春州柳氏烈女碑(영천이공임안처춘주유씨열녀비)”라고 하여 이임안의 아내 춘주 유 씨의 열녀비임을 알 수 있다. 좌측에는 “三年不梳貫日貞烈讚誠立碑 壬寅星滙(삼년불소관일정열찬성입비 임인성섬)”라 하여 삼년 동안 머리빗질을 하지 않고 날을 보내며 정숙한 열의를 보여 이를 기리고자 비를 세운다고 했으며, 우측에는 “千里載屍扶天大義經學○○(천리재시부천대의경학○○○)”이라 하여 떠나면 천리 길을 시신을 옮겼으니 경전에서 얘기한 대의를 지켰음은 하늘이 도운 일이라 했다. 뒷글자가 보이지 않아 그 뜻을 모두 읽을 수 없지만, 대략 남편이 죽으니 시신 옆에서 삼년상을 치르고, 여자의 품으로 남편의 시신을 천리나 떨어진 고향으로 옮겨 온 것으로 알 수 있다.



이금화 제보자는 이에 얽힌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옛날에 이 씨네라고. 아직도 이곳에 살아요. 저쪽 강릉 쪽에서 살았는지 속초 쪽에서 살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이곳 정자리에서 사시고, 며느리가 남편이 죽으니까는 이제 시댁으로 왔는데. 시어머니가 서방 잡아먹고 왔다고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그러니 그 며느리가 남편의 시체를 무덤에서 파 가지고 버드나무 칼을 만들어 가지고 살을 다 깎아서 그 무덤에 그대로 묻고, 뼈를 싸가지고 밤새 걸어서 왔더라고요. 그래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여기 열녀문이 있어요.

그의 후손인 이종진(남, 63) 씨를 숯가마골 열녀비가 있는 바로 아래 방에서 고추를 따고 있을 때 만났다. 이종진 씨는 열녀비의 주인공이 정확히 누구지는 잘 알지 못했다. 5대조 할머니로 알고 있었고, 그러나 열녀비의 유래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열녀비(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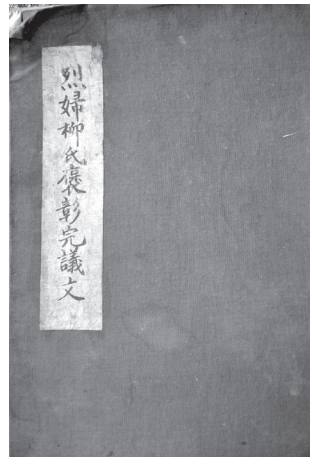


열녀비(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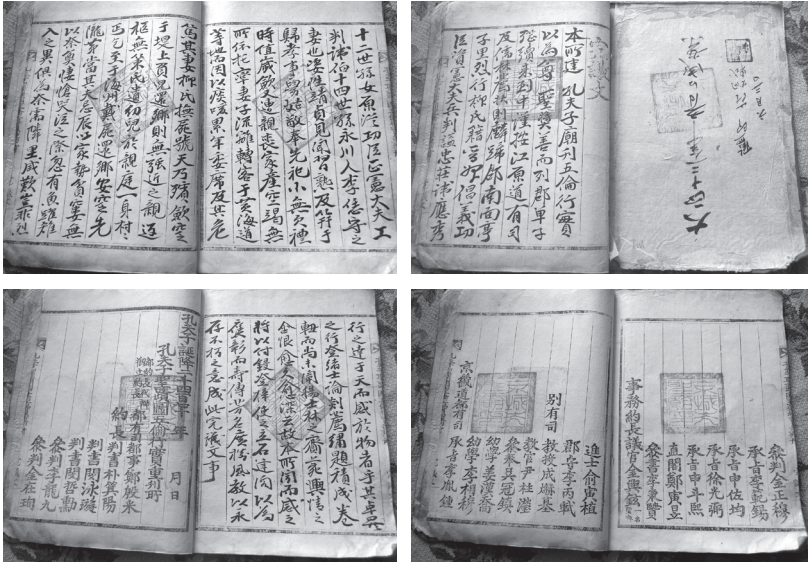
옛날 함흥인가, 저 어디에서 거 할아버지와 할머니하고 그곳으로 가셨는데요. 거기로 갔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 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기다가 모시고서. 함흥 거기다가 모시고서. 할머니가 혼자 여기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래 집으로 돌아오니가 집에서. 시집에서 내 쫓은 거예요. 신랑을 어디 가서 잡아 쳐 먹고 혼자 돌아왔냐고. 당장 가서 그 시체라도 찾아오지 못하냐고. 그래 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냥 그 길로 다 바로 돌아서서 가셨대요. 거기 함흥으로 가셔가지고. 그래 버드나무로 칼을 만드셔서 그 곁로다가 살을 모조리. 땅에다 산소를 모셨던 것을 다 파서 그것으로 살을 다 깎아서 그 뼈만 추려가지고. 요만한 조그만 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해서 그걸 머리에 이고서 함흥이라는 데서 여기 정자리라는 동네까지 계속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 그걸 해 이고서 걸어오시다 보니. 걸어오시다 해가 지면은 아무데나 거리에다가 묻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자고서 밥을 얻어다가 상식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먼데서 왔으니까 며칠이고 한 달이고 그렇게 걸린 거지요. 걸렸는데. 그렇게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더라요. 그걸 이고서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머리가 다 빠지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오셨대요. 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집 어른들을 하늘 같이 모신다고 그랬대요. 그래 열녀가 난 거는 그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하게 해서 그런 거지요.

그래 할머니가 오시다 보니까. 골에 시체를 놓고 이렇게 있다 보면 호랑이가 곁에 와 가지고 같이 관을 지키고 있다가 가고 그런 것도 많이 봤대요. 그래 그런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당에다 모시고. 그걸 어떻게 나라에서 알았는지.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돼 가지고. 이런 분이 세상에 없다. 그래가지고 열녀비를 하나 내려 주신거지요. 이거는 아주 옛날이지요.

원래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 마을에 이렇게 각을 해 가지고. 집까지 해서 잘 모셨었



열녀류씨포창완의문 표지



완의문 내용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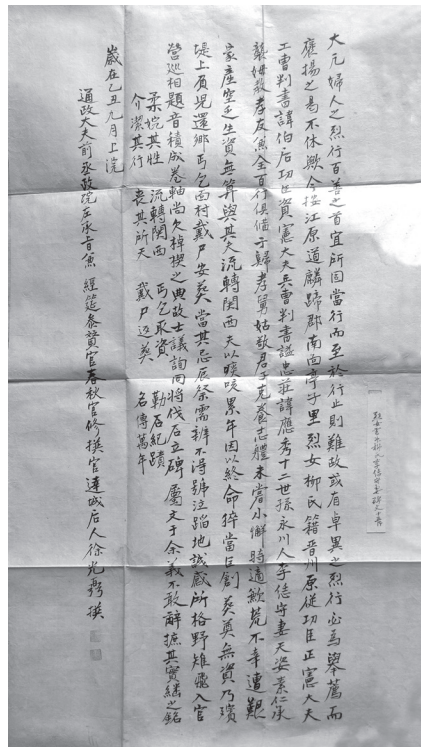
어요. 그건 나라에서 그렇게 지어주신거지요. 그렇게 잘 해서 보냈는데. 열너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내막까지 다 써서 그렇게 해냈어요. 나무에다 써가지고 붙여 놓았어요. 그렇게 집을 잘 지어 놔었는데. 그걸 오랫동안 잘 보존을 못하고 그러니 그게 다 망가졌어요. 그래 집이 허물어지고 그러니 집을 다 제거하고 이거 비만 세워놨다가 거기 도로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이전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에 이리로 이전을 했어요. 아마 그 비석도 아주 오래 있다가 나중에 해서 세운 거겠지요.

예전에 열너비 책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를 인제군에서 가지고 가서 알아보고 여기 각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정부에 추천을 한 번 해 본다고 그래 그걸 한 부 가져갔는데. 그걸 가져왔으면, 저희 족보가 춘천에 있는 막내 동생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있기 쉬워요.(제보자: 이종진(남, 63) 정자리. 2016.9.1.)

장근성 제보자는 이 열너비에 관한 문서가 있었다고 한다. 장근성 제보자도 이종진 제보자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예전에 이장을 볼 때 군청

에 있는 채○○의 모 공무원이 그 원본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 책을 가져가서 책도 안 가져오고, 열녀각도 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필자가 이를 수소문해 보니, 열녀에 대한 기록을 춘천 퇴계동에 거주하는 그의 후손인 이 종섭(남, 48) 씨가 인제군청에 가서 찾아와 보관하고 있었다. 군 관계자가 가지고 다니면서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표지가 낡았고, 열녀비각도 세우지 않았으며, 따로 기록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열녀비문 15단 원문

烈女晉州柳氏李愆守妻碑文十五丹

大亢婦人之烈行百善之首宜所固當行而至於行止則難故惑有卓異之烈行必爲舉薦而褒揚之易不休歟今按江原道麟蹄郡南面亭子里烈女柳氏籍晉州原從功臣正憲大夫工曹判書諱伯后功臣資憲大夫兵曹判書諱忠莊諱應秀十二世孫永川人李愆守妻天姿素仁承襲姆教孝友兼全百行俱備于歸孝舅姑敬君子克養志體未嘗小懈適歉荒不幸遭艱家產空乏生資無算與其夫流轉關西夫以痰咳累年因以終命猝當巨創葬奠無資乃殯堤上負兒還鄉乞面村戴尸安葬當其忌辰祭需辦不得號泣蹈地誠感所格野雉飛入官營巡相題音積成卷軸尙欠桌楔之典故士議詢同將伐石立碑屬文于余義不敢辭撫其實繼之銘



柔婉其性 流轉關西 丐乞取資 勒石紀蹟

介潔其行 喪其所天 戴尸返葬 名傳萬年

歲在乙丑九月上浣

通政大夫前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參贊官春秋官修撰官達城后人徐光弼撰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열녀 진주 유씨 이임수의 처 비문 15단

대개 부인의 열행은 온갖 선의 으뜸이다. 마땅히 행한 바 진실하니, 지극한 행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도다. 혹여 남달리 높은 열행이 있다면 반드시 천거하여 널리 알려야 하지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열녀 유 씨는 본적이 진주이고, 원종공신 정헌대부 공조판서이고 휘는 백후로 공신 자헌대부 병조판서이며, 시호는 충장의 후손이다. 휘가 응수인 12세손 영천 이임수의 처는 천품이 자애롭고 바탕이 어질며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효와 우애를 겸하였으며, 시집가서 오로지 온갖 행실을 구비하였으며,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공경하여 극진히 봉양하여 그 뜻이 몸에 배었다. 아직 일찍이 작은 게으름도 없으며, 흉년을 만나 절뚝이며 거칠게 살아 불행하여도, 가난을 만나 가산이 비고 궁핍하여 살아가는 자산을 계산할 수 없어도, 그 지아비와 더불어 관서지방을 떠돌았다. 지아비가 천식과 기침으로 몇 년을 앓다가 이로 인해 죽었다. 갑자기 목숨을 잃자 마땅히 크게 놀라 장사하고 제사함에 자산이 없었다. 이에 빈소를 만들고 산소를 높이 만들어 놓고, 아이를 업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마을을 만나면 구걸을 하면서 시체를 머리에 이고 고향으로 돌아와 안장을 하였다. 마땅히 그 남편의 흔적을 잃을까 걱정하고 제수를 분별하여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울며불며 땅을 밟아 다졌다. 정성에 감읍하여 격조가 있는 바, 들에 있는 꿩이 날아 관으로 들어갔다. 이를 손질하여 제사를 지냈으니, 그 소리가 쌓여 책을 이루었다. 오히려 높은 기초가 되는 옛 고사에 부족할까. 선비들에게 의논하고 물어



함께 장차 돌을 깎아 비석을 세우니 나로 하여금 글을 짓게 하였다. 그 뜻을 감히 사양하지 않고, 그 사실을 주위 모아 열의를 이어가고자 여기 새겼다.

그 성품이 원래 부드럽고 순한데  
관서를 떠돌면서  
구걸을 하여 제사 비용을 마련했구나  
여기 그 대강의 실마리를 찾아 돌에 새기네

대개 그 행실이 깨끗한데  
남편을 잃어 하늘로 보내고  
시체를 머리에 이고 고향으로 돌아와 장사했네  
그 이름 만년토록 후세에 전하리

때는 을축년(1925) 9월 초순  
통정대부전승정원좌승지검 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달성후인 서광필 지음

『인제군사』(1996)에는 <열녀 진주유씨(烈女 晉州柳氏)>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남면 정자리(麟蹄郡 南面 亭子里) 응봉(鷹峰)재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열녀비(烈女碑)가 있다. 고종(高宗) 22년 을축년(乙丑年 1925) 9월에 건립한 비각(碑閣)이나 6.25당시의 전화(戰禍)속에서 각(閣)만은 애석하게 불타 없어졌다. 1925년 당시 15원(쌀 1가마당 30전)을 투자하여 건립한 비각(碑閣)과 비석문(碑石文)은 338자로써 통정대부 전 승정원 좌승지검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通政大夫 前 承政院 左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달성후인(達成後人) 서광필(徐光弼)에 의해 만들어졌다.

자헌대부병조판서(資憲大夫兵曹判書)를 역임한 영천인(永川人) 이응

수(李應秀)의 12세손에 해당하는 임수(愆守)의 처(妻)인 열녀유씨(烈女柳氏)는 영천이씨(永川李氏)의 훌륭한 가문에 출가하여 여인으로서 할 바 정절을 지키고 효(孝)를 으뜸으로 삼았으며, 종사(宗祀)를 봉양(奉養)함에 소홀함이 없었으나 불행히도 가산(家産)이 없고 생활이 궁핍하여 남편을 따라 관서(關西)의 황해도 등지를 떠돌아다니던 중 남편은 담해(痰咳)의 병이 들어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가까운 친척조차 없어 어린자식과 함께 구걸을 하며 친신만고 끝에 남편을 고향에 안장하였으나, 가진 것이 없어 제수(祭需)를 마련하지 못함에 곡을 하며 슬피우니 그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 듯, 홀연 물고기가 튀어나오고 꿩이 날아내리니 정성껏 제사를 모실 수 있었다.

유씨(柳氏)는 또한 후손을 위해 절개를 지켜 개가(改嫁)하지 않고 백발(白髮)이 되도록 살았으며 이와 같은 행실과 정성이 널리 전하여지고 마침내는 공부자성적도오륜행실중간소(孔夫子聖蹟圖五倫行實重刊所)까지 알려지므로 비(碑)와 열녀정려각(烈女旌閭閣)을 건립하고 표창하였다.

그 종손인 종현(鍾鉉 1951~)이 <열녀유씨표창완의문(烈女柳氏表彰完議文)> 원본(原本 1926)과 정려각(旌閭閣) 내에 건립한 <열녀유씨이임수처비문(烈女柳氏李愆守妻碑文)> 원문(原文 1925)을 기록한 자료와 함께 함흥부(咸興府)에서 발행한 호구성적장(戶口成籍帳-戶口環境調査書) 5통(1822-1855)을 소중한 보존하고 있으며 비문(碑文)과 표창완의문(表彰完議文)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인제군사』)

### 오얏골고개

매봉재에서 기린면 현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가 오얏골이다. 이 산을 넘어가면 대바우가 있다.

### 오개밭골

통골로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 왜골고개

숫가마골에서 상남면 하남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 고개를 넘으면 바로 나타나는 동네 이름이 왜골이라서 왜골고개이다. 이곳은 군도가 개설되어 약 4km를 이어주고 있다.

## 웃말

1반이다. 매봉재 밑에 있는 마을이다.

## 음지도롱골

아랫말 양지도롱골 맞은편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 응봉산(鷹峰山)

매봉산의 다른 이름이다. 높이는 해발 979m이다.

## 응봉치(鷹峰峙)

매봉재의 이칭이다.

## 정자각

2003년 새농촌건설운동을 할 때 지었다. 정자각 앞에 가면 현판이 있는데 그곳엔 한자로 정자각(亭子閣)이란 현판이 붙어 있고, 현판은 二千三年十一月 장근성(張根成)이 썼다고 했다. 정자는 6각형의 둥근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기와를 얹었으며, 단칠을 해서 색깔이 화려하다. 정자 옆에는 작은 계곡물이 흐르고, 그 주변에는 소나무 등을 심어 작은 공원처럼 꾸며 놓았다. 정자각 맞은 편 길 건너 아래에는 아랫말 서낭당이 있다.

정자 앞에는 1976년에 도로를 확장한 기념 표석이 있다. 그리고 그곳을 표고사업장이라 이름 하였다.

## 정자고개[정자리고개, 소치고개]

정자리에서 소치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소치리 쪽에서는 정자리고개라 하고, 정자리쪽에서는 소치고개라 한다. 이 고개는 정자리에서 소치를 거쳐 신남으로 빠지던 유일한 길이었다. 정자고개를 지나 소치에서 신남으



노가지재

로 넘는 노가지고개를 지나 신남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 꼬박 하루가 걸렸다. 이 고개는 시장을 볼 때만 넘는 고개가 아니라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도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했고, 신남이나 인제로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도 넘어야 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아낙네들은 한 번 신남장을 보려면 등에는 아이를 업고 머리에는 곡식을 이고 넘었고, 남자들은 지게에 돈 될 만한 곡식이며 약초 등을 가득 지고 넘던 고개이다. 혼인을 하면 새색시가 넘어오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하면서 넘기도 했다. 새벽 일찍 밥을 해 먹고 시장에 팔 곡식을 지게에 짊어지고 이 고개를 넘다보면 산짐승을 만나기도 하였다. 멧돼지도 만나고, 도깨비도 만나고 했다. 신남시장에서 지게에 지고 간 곡식을 팔아 생필품을 사서 오면 밤이 되어 깜깜해 졌다.

또한 이 고개는 정자리 사람만 넘던 고개가 아니다. 김부리와 회동 사람들도 반드시 이 고개를 넘어야 신남 쪽으로 갈 수 있었다. 지금 김부리와 원갑둔은 군사지역으로 지정되어 민간인이 살지 않는 마을이 되었다. 그러나 1996년도에 마을사람들이 이주하기 전까지는 아주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초등학교가 있고, 김부대왕각이란 제당이 마을 중심에 있어서 제의를 지낼 때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치렀다. 김부리사람들은 큰 고개를 세 개 넘어야 신남까지 갈 수 있었다.

## 정자막[정자막리, 정자리]

정자리의 이칭이다.

## 정자천(亭子川)

정자리 매봉재에서 발원하여 정자리를 거쳐 소치리와 부평리를 거쳐서 소양강댐에 이르는 강줄기이다. 정자천에는 몇 개의 세천(細川)이 모여 정자천을 이룬다. 정자리 원갑골에서 갑둔1리로 흐르는 천을 원갑골천, 갑둔1리 옥토골에서 갑둔1리로 흐르는 천을 옥토골천, 김부1리 합병골에서 김부1리로 흐르는 천을 합병골천, 매봉골에서 정자리로 흐르는 천을 매봉골천, 길평골에서 정자리로 흐르는 천을 길평골천이라 하는데 이 골짜기의 천이 모두 매봉산에서 갑둔2리(소치리)로 흐르는 천인 정자천으로 흘러든다.

이곳에는 금강모치를 비롯하여 1급수에서만 자라는 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예전에는 고기의 종류가 많았으나 요즘은 가뭄과 채소농사에 치는 농약 등으로 인해서 고기의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동네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소치리 쪽이나 부평리 앞에는 상당히 많은 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물고기의 종류도 다양하다. 소치리 쌍다리야영장의 경우는 보쌈이나 어항을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운탕 거리를 만들 수 있다.



정자천



정자천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사진 이금화)



## 정자초등학교

정자리에 있던 초등학교이다. 지금은 폐교를 하였고, 학교 건물 주변에는 잡초가 가득하고, 나무들이 자라서 학교건물을 가리고 있다. 학교건물과 운동장이 약 10m되는 언덕을 사이에 두고 있다.

원래 정자리 초등학교는 현재 오홍인(78세, 2016년) 씨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4칸짜리 농가인데, 처음 학교 건물이 없어서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학교 건물을 옆에 짓고 원래 농가였던 이 건물은 당시 소유주였던 사람이 오홍인 씨가 집을 지으려 하자 건물을 뜯어서 옮기라고 했다.

정자리초등학교 운동장은 예전에 정자리에서 모든 행사를 열던 곳이다. 초등학교가 폐교되기 전에는 마을의 가구(家口) 수가 80호정도 되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술문을 세워 기념을 해 주었다. 술문은 소나무를 베어서 아치 모양으로 해서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드는데, 술가지를 끼우고 새끼를 둘러 고정을 했다. 그리고 그곳에 글씨를 써서 붙여 기념행사를 알렸다. 이 술문은 마을의 청년이 군대 갈 때, 마을운동회가 있을 때, 6.25전쟁 때 국군이 온 걸 환영하기 위해서도 세웠다. 마을청년이 군대를 갈 때는 술문을 세우고 마을사람들이 나와서 환송을 해주었다.



정자초등학교(2016.8.3)



정자초등학교 앞 이승복 상(2016.8.3)



정자초교 12회 졸업사진 1965.2.20(사진 심영춘)



정자초교 앞에서(사진 심영춘)



정자초교의 추억(사진 이종섭)



정자초교에서(사진 이종섭)

가을운동회를 할 때면 마을사람들이 함께 참가해서 운동장이 가득 찼다. 운동회를 하면 돼지를 잡아 국밥을 끓여서 나눠 먹었다. 학생 수도 많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여 사람들로 가득 했다.

애석하게도 세월의 변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필자가 2016년 9월 7일 이곳을 찾았을 때 굴삭기로 정자리 초등학교의 건물은 부서지고 있었다. 정자리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는 정자초등학교는 그렇게 흙더미로 변하였다.

**지당골[제당골]**

아랫말 산신당이 있는 골짜기이다. 임도가 지당 옆으로 지나가서 차로 갈 수도 있다.

**지령골**

기령골을 일컫는다.

**질골**

통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오캐밭골 위에 있다.

**춧대바위**

매봉산 중턱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의 모양이 춧대마냥 생겼다.

**큰서리**

큰설이라고도 한다. 통골로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문골 아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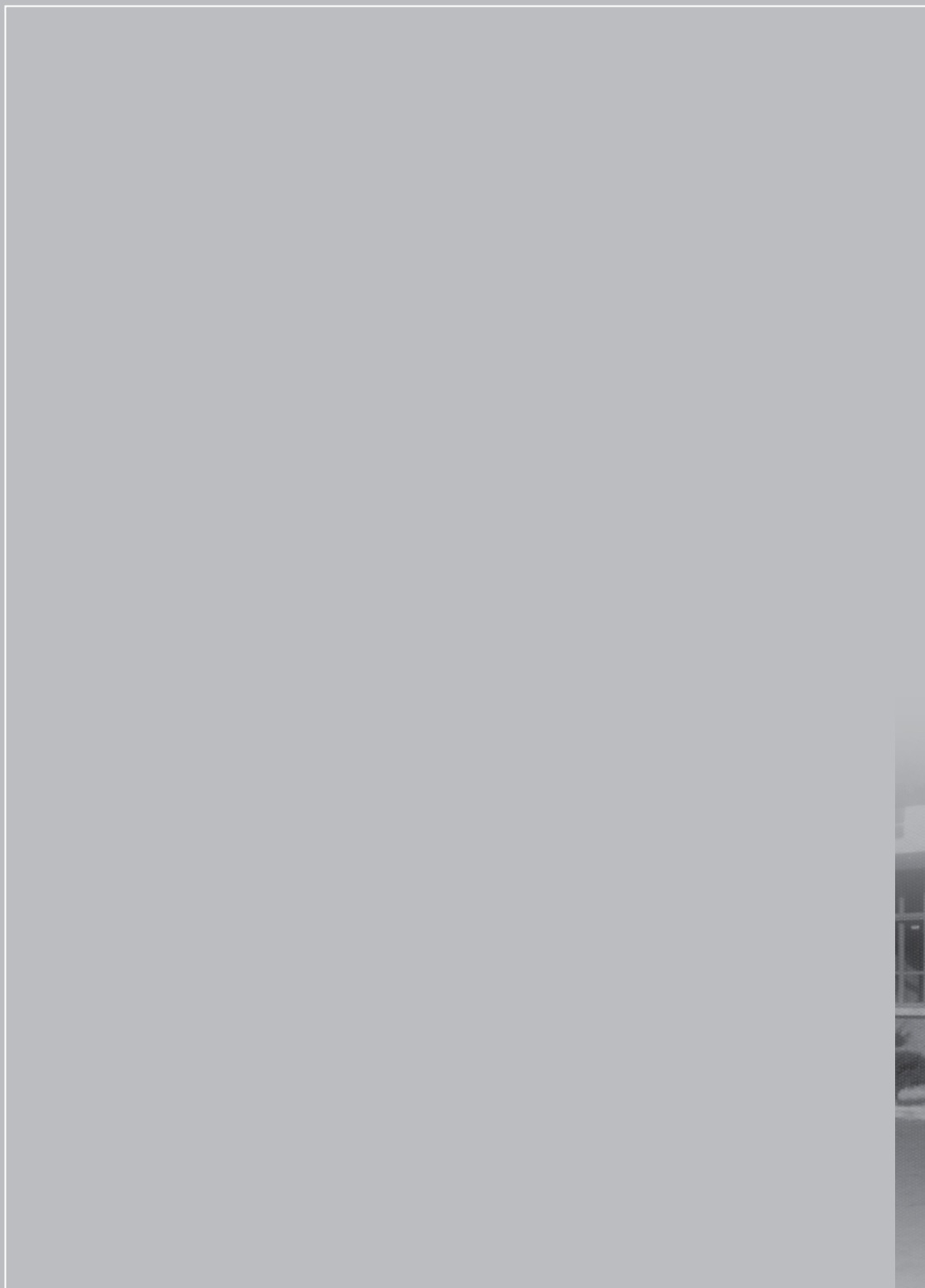
**큰 통골**

대통골을 일컫는다.

**통골**

정자막 북쪽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대통골과 소통골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이 골을 따라 곧장 가면 남전리의 동아실이 나온다. 이 골짜기는 동대골, 오캐밭골, 큰서리, 문골, 질골, 물안골, 다락골 등이 있다.

통골은 주로 아랫말 사람들이 이용했다. 골아 꽤나 깊고 크기 때문에 아랫말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꼴을 베거나 나무를 하거나 풀을 베는 곳이었다.



제3장  
역사 구술







# 제3장

## 역사 구술

### 정자리의 유래

정자가 아주 옛날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정자맥이 있었다. 정자맥. 그걸 정자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정자맥에 집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자맥에 집을 짓고. 옛날에는 걸어 다녔잖아. 양양 여기 가서 우리가 소금을 사다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무인지경에 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잖아. 도둑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십 명이 이렇게 같이 가고. 그런 전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정자각 뒤로는 정자각 그랬는데. 그게 원래는 정자각이 아니라 정자집이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걸 주막이라 그러나. 그게 유래가 이제 정자각 정자각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지요.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6.25 전에 우리는 쪼끔했지만 열 살 정도 됐어도 양양을 걸어가서 뭐 소금도 사가지고 오고 고기도 사오고 그래서 파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 여기서 양양 가는 게 여기 머그네미고개 하답 중답 상답으로 해서 그걸 넘어가면 아주 직선으로 간대요. 그러니 아주 무인지경이지. 기린으로 해서. 그러니 옛날에는 여기서 뭐 콩 같은 것 해서 걸머지고 엮도 해서 걸머지고 해서 가서 양양 가서 바뀐다가 잡숫고 그랬다. 그게 뭐 전해 내려오는 거지 뭐. 그렇게.

정자는 원래 여 밑에 있었는데. 중년에 군에다가 여 마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한 십년 되나. 원래는 지금 정자 그 밑인데. 터가 마땅찮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정자각을 짓고.(제보자: 오홍인(남, 78세, 1939년 3월 7일생, 2016.9.1.)

## 정자리 도로가 뚫어진 사연

그 정자각 앞에 70년대 우리 정자리에 내가 박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지도자를 봤어.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새마을자금을 2천만 원으로 제일 많이 받았지. 그때는 2천만 원이면 지금 한 2백억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때 2천만 원이. 그래 중앙회에서도 그때 말이 많았어요. 뭐 일개 마을에 200만원 씩 줬는데, 2천만 원을 하사해 주셨고.

그런데 그 원인은 정자리 김성규 교장 선생님 아들이 그 박 대통령이 근령이 하고 한 반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교장 아들이 우리 동네도 이러니까 한 번 이거를 대통령에게 얘기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학생장이 여기 계속해서 왔다갔다 그랬어요. 그래 왔다가 가면 그 박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얘기해 가지고 그러니 난 알지도 못했지. 그리고 뭐 대통령이 시켜서 도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뭐 정자리에서 자꾸 진정을 하는 것 같다고 하고. 진정은 누가 하나. 학생들이 한 거지.

그렇게 되다가 2천만 원을 제가 하사를 받았지. 그래 하사를 받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참 옛날이잖아요. 그게 73년돈가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버스를 타고 가면, 그게 일 년간 라디오에 나오는데. 야, 저 돈을 받으면 어디에 쓸까. 하도 돈이 많으니까. 저걸 어떻게 받아쓸까. 뭐 이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그래 가지고 이 길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 길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너머 저쪽 돌아들어오는 게 너무 멀다 그래가지고. 그 정재철 씨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어떻게 얘기하다가 지금 이 길이 올라왔지요. 그래 그때 제가 새마을지도자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받아 길이 올라오고.

그러니 73년도 74년도 그때는 저 갑둔리 김부리가 고개를 몇 개를 넘어서 이리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걸어서 그렇게 넘으니까 그게 멀잖아.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박 대통령 하사금은 그렇게 닦았어요. 그리고 부평에서 소치까지는 그게 아마 80년대 들어서 된 거지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 길 닦은 게 한 20년? 정재철 씨 국회의원 했을 때니 그 분네가 그 닦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분네가 닦아가지고 버스를 아예 몰고 여기 학교 마당에 와서 그 양반이. 그 양반이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셔서. 그 양반의 아드님이 속초에 또 나와 가지고. 먼저 번에 뭐 이렇게 공천도 못 받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양반이 됐으면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을이 참. 여기가 좋은 마을이지요. 좋은 마을인데.(제보자: 오홍인(남, 78세, 1939년 3월 7일생, 2016.9.1.)

### 초등학교 이야기

초등학교는 아주 오래 전에 없어졌지요. 우리 아들이 5학년 때 분교로 왔다가 그 다음에 끝났지요. 그 아이가 지금 34살이니까. 25년 정도 되었지요. 여기는 초등학교만 있었지요. 여기가 분교로 왔다가 없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졸업하고 학교는 끝났어요.(제보자: 장근성(남, 63) 정자리 1반)

### 군부대가 들어온 문제

이제 문제는 이게 일부가 훈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거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고민이나 하면. 그 마을이 안 한다고 하면서 군부대가 조금씩 점령을 하면 땅값이 떨어지지 올라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게 안 되겠다. 그래 하려면 다 하던지. 일부 해놓고. 이게 뭐 군부대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농민한테 너무 하는 게 아닌가. 정부에서. 그래서 한기

호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 원하는 게 어떤 거냐. 이래 가지고, 우리는 군부대가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만 이 양반이 이번에 떨어지고 말았어. 그래 고민이 많습니다.

### 마을의 풍수적 형상

여기가 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동으로 들어가는 형국이거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여기 중간에 집 있는데, 아주 큰 소나무가 있었어. 큰 소나무가 엄청나게 큰 것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왕이 돌아가시면 이 마을에서 거기 모여가지고 하여튼 몽상도 입고.

### 지서이야기

그렇게 6.25 전에는 이 마을이 엄청나게 컸어요. 한 5백 호정도 됐어요. 6.25 전에는 5백 호 가량 됐는데, 왜냐면 여기 앞에 지서가 있었고, 군 애들이 요 건너와서 있었는데, 지서가 6.25전에는 여기에 30명에서 25명이 있었어요. 인제경찰서보다도 컸어요. 아 그러니 지서에 순경들이 하루에 이렇게 보면 어디서 사람을 붙잡아 오는지. 매일 뭐. 옛날에는 장작을 여기에 이렇게 놓고 내려 놀러, 우리가 이렇게 돌더미에 숨어서 보면 이놈의 새끼들 본다고 소리를 치면 쫓겨 가고 그랬지요. 그래 내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 많이 죽었지요.

### 양조장이야기

그때는 여기에 양조장도 있었고, 구 건달 팔 갈보가 놀았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갈보가 하나 모자라서 건달들이 매일 싸웠답니다. 그때 우리는 한 열 몇 살 될 때니까. 양조장이 컸어요.



## 6.25때 상황

그랬는데. 그게 왜 여기가 컸느냐면. 38선이 여기 위로 지나가는데, 여기서 모두 통제를 했어요. 여기 원대리며 남전리며 모두 여기서 통제를 했어요. 이북으로 안 들어간 곳은 모두 여기서 통제를 했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여기가 큰 것이지요. 여기가 38선 관문인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여기가 홍천군인데. 황금석이라고 그때. 그 분네가 청년단장으로 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이 양반네가 청년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홍천군에서 15일에서 20일 적으로 한 100명씩을 이 복지개골이며 이쪽으로 죽 가면서 보초를 서는데. 우리 정자리 황금석이라고 그 분네가 청년단장을 하면서 같이 군인들 경찰들 같이. 이거를 보초서고 했지. 하다가 거 6.25가 났지. 그래 6.25나면서 정자리의 황금석이란 그 분네가 대단한 분이였어요. 대단한 분인데. 딸 둘 낳고. 그 양반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죽은 게 아니고. 6.25때 그 마을에서 어떻게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난 사람이 많았어요. 이 근방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누가 빨치산에 얘기를 해가지고 밤에 지는 걸 전부 가서. 이렇게 이제 묶어 가지고 끌고 가서. 그러니까 전부다 죽였지 뭐. 그 당시에. 그때 열서인가. 그래 하나도 못 오고. 거기 가담 안 했던 사람은 끌고 갔다가 조사하고 보냈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충신인데. 실체는 충신이잖아. 그런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아무런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여기에 6.25때 그 남은 분들도 대단했지요. 대단한 게 뭐냐면.

여기 박 선생이라고. 박영순이에요. 그 6.25 중공군 나왔다 들어갈 무렵이야. 그렇게 들어갈 무렵에 여기 결사대라고 조직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열 몇이서 그렇게 해서. 결사대 대장을 이양수라고 했고. 그런데 총을 어떻게 뺏었나 하면. 지금 그런 사람이 충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게 보상을 못 받는 게 뭐냐면. 이제 두 놈이서 인민군이 오는 거야. 밤에 총을 메고. 그래 이제 총을 뺏어야 되겠는데 뺏을 수가 없잖아. 그래 박영순이라고 그 양반이 나무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엎드려 있다가 이렇

게 드니 총 같잖아. 그러면서 너 총 놓고 손들어 이러니 이놈이 총을 놓고 손을 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렇게 놓은 총을 들고 인민군을 쏜 거야. 그래 가지고 그렇게 그 총을 뺏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패잔병 뭐, 그냥 그걸로 참 많이 사람 죽였어요. 많이 죽였지요. 그래 가지고 총을 많이 뺏었지. 수십 정 뺏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을을 지키다가 그 다음에 일차로 중공군이 내 밀었잖아요. 그 내 밀면서 그 다음에는 또 보복을 당해 가지고, 그래 이차로 중공군이 나왔을 적에 여기 결사대들이 하룻저녁에, 우리 사촌은 그 영주 가서 순경을 하다가 그 술문 해 세우고 그랬어요. 만세 부르고 이렇게 그 결사대 조직을 하는데, 그래 갑자기 와서 그러는데, 술 한 잔 먹고 집에 와서 자고 그러는데, 그래 싹 잡아가지고 여기 지서에, 우리 집이 그때도 여기 있었어요. 그래 인민군 그 새끼들이 빨치산, 그래 붙잡아서 이렇게 매고 양미리 엮듯이 이렇게 매고 매니 풀 수가 없잖아. 그렇게 끌고 가고 뭐, 그러는 걸 울며불며 부모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고, 가다가 아마 전부 다 죽었을 거예요. 한 군데 갔다가, (결사대들이 대단 했네요.) 이 정자리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충신이고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실체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뭐 비도 하나 없어요.

술문은 여기 지서가 있으니까, 그 앞에다 해 세우고, 여기 개울가 다리 있는데 거기에 큰 나무가 있었어, 거 그네도 매고 그랬던 데예요. 그래 거기에 그렇게 해 세웠었는데, 그 다음에 저녁 때, 그 이튿날, 그냥 따발총을 가지고 그 누가 얘기를 했는지 그 뭐 어떻게 됐는지 그놈들이 쫓아 온 거예요. 총을 막 갈겨 가지고, 그때도 사람이 죽었지요. 쫓겨 갔다가 왔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 충신이 참 많았지,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전쟁이 났다면 그런 충신이 나올라는지 모르지요, 여기 발굴해야 돼요.

기린에는 홍 뭐라는 사람이 말을 뺏어 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는 그렇게 했어, 여기서 정자리에서 머그네미고개를 넘어 가고 오며 라는 거를 전부 다 이 마을에서, 하여튼, 머그네미고개를 지나 기린 서리로 지나 이렇

게 38선이 갖잖아요. 저쪽에는 이북이었지요.(제보자: 오흥인(남, 78세, 1939년 3월 7일생, 2016.9.1.)

### 중구날 서낭당행사

옛날 9월 9일이면, 일 년 농사를 짓잖아요. 일 년 농사를 지어서 수지로, 뭘 차좁쌀을 하든 뭘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술을 하든지 떡을 하든지 메밀로 적을 부치든지. 이렇게 해서 옛날엔 정자리 전체가 서낭에 모였어요. 그래 서낭당에 가져다 놓고 우리 농사 잘 되었으니까. 우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전체가 모여 했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렇게 다들 모여서 먹고 놀다가 보니 술 먹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다 모이지 말고 각자 반으로 나누자. 각 반별로 서낭당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여기 옛날에 7개 반인데, 그 전에는 12개 반까지 있었다요. 가장 많을 때는 500호 정도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반별로 서낭당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었는데,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농사를 먼저 지으면, 뭘 떡을 하든지 술을 하든지 그렇게 거기 가져다 차려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금처럼 바뀌니까. 오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돼지머리나 하나 가져다가 9월 9일, 그리고 제주나 해서 잔이나 붓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게 됐지요.

그러다가 야가(박정숙 무당) 와서 9월 9일 놀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가 산골에서 3월 3일 하고 9월 9일에는 동네 전체가 모여 하다가 이제 반에서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러면 이걸 해다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9월 9일은 돼지 한 마리하고 떡도 네다섯 가지 놓고 과일도 몇 상자 가져다 놓고 제사를 지내주지요. 그렇게 하고는 그걸 우리 반에다 다 주고 가요. 나눠 먹으라고.

그런데 그것도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산골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나 같이 그날 참여해서 함께 하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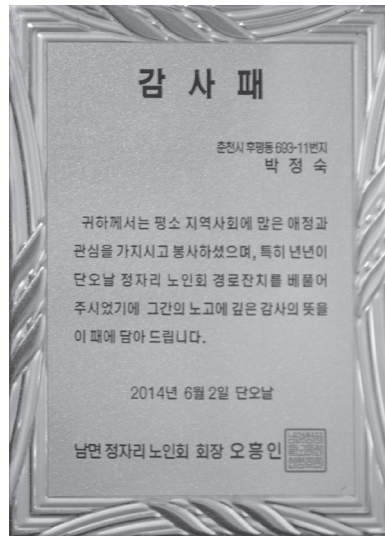
람은 마을풍속으로 대하는 것이지요. 원래부터 했던 것인데, 내가 거기다 술을 해놓든 떡을 해놓든 아무래도 괜찮다 하지만. 또 웬만한 젊은 애들은 그거 해서 뭐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해주니 고맙다고 하지요.

그러니 9월9일은 자기 정성도 드리고 동네 정성도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내가 9월9일은 여기 와서 내가 크게 굿도 하고 정성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하는 것 9월9일에 굿을 하든 뭐를 하든 상관없다고 해서 좀 크게 하게 됐다. 그래서 여느 사람들 데리고 와서 크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보자: 오흥인(남, 78세, 1939년 3월 7일생, 2016.9.1.)

### 오월단옷날 경로잔치

그래 노인네 몇 분은 그렇게 모이니까. 약 30여명 돼요. 그러니 아예 9월 9일에 노인잔치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9월9일은 네가 이렇게 와서 돼지도 놓고 정성도 드리고, 우리 반원들한테 고기도 나눠주고, 그날 점심도 잡숫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주려면 아예 날을 별도로 받아라. 그랬더니, 어느 날 할까요? 그래서 하필 내가 얘기한다는 것이 오월 단옷날을 말했어요. 그래 오월 단옷날 지금 벌써 4년째지요. 단옷날은 돼지를 잡고 떡도 서너 가지하고 음식 전체를 해가지고 와서 경로잔치를 4년째 해주고 있어요.

그러는데 원래 인제군수님은 아주 친해요. 그래 첫 해는 강릉단오제를 가



정자리 노인회에서 준 감사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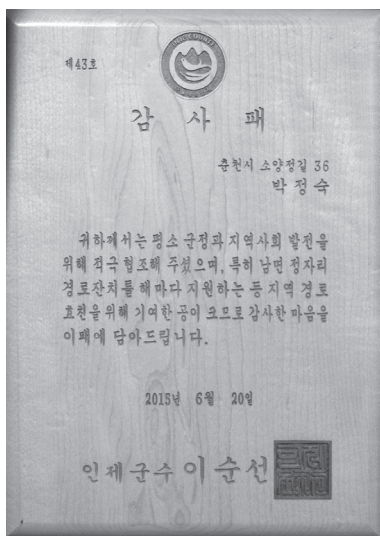
야하는데, 거기서 초청을 해 가지고 거기를 못 갔어요. 내가 여기를 와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를 왔지요.

그래 작년에 저 분네가 너무 고마운데, 사실은 무속인인데. 내용은 이러 이렇게 됐고. 그 아버지가 사실상은 충신인데, 그 분네가 다 죽었지만, 그 분네를 지금 잘 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 보면 뭐 월남 갔다 오고 그런 사람은 잘 해주는데, 정부에서 진짜 6.25때 군번 없이 싸운 사람들 찾아서 잘 해 줘야 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마을을 지킨 것이

거든요. 그분들이 아니면 절대 못 지켰다. 청년단들은 날고뛰는 사람들이고, 그 이양수라는 사람은 지금 말하면 훨훨 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아까 얘기 마주 하고 해야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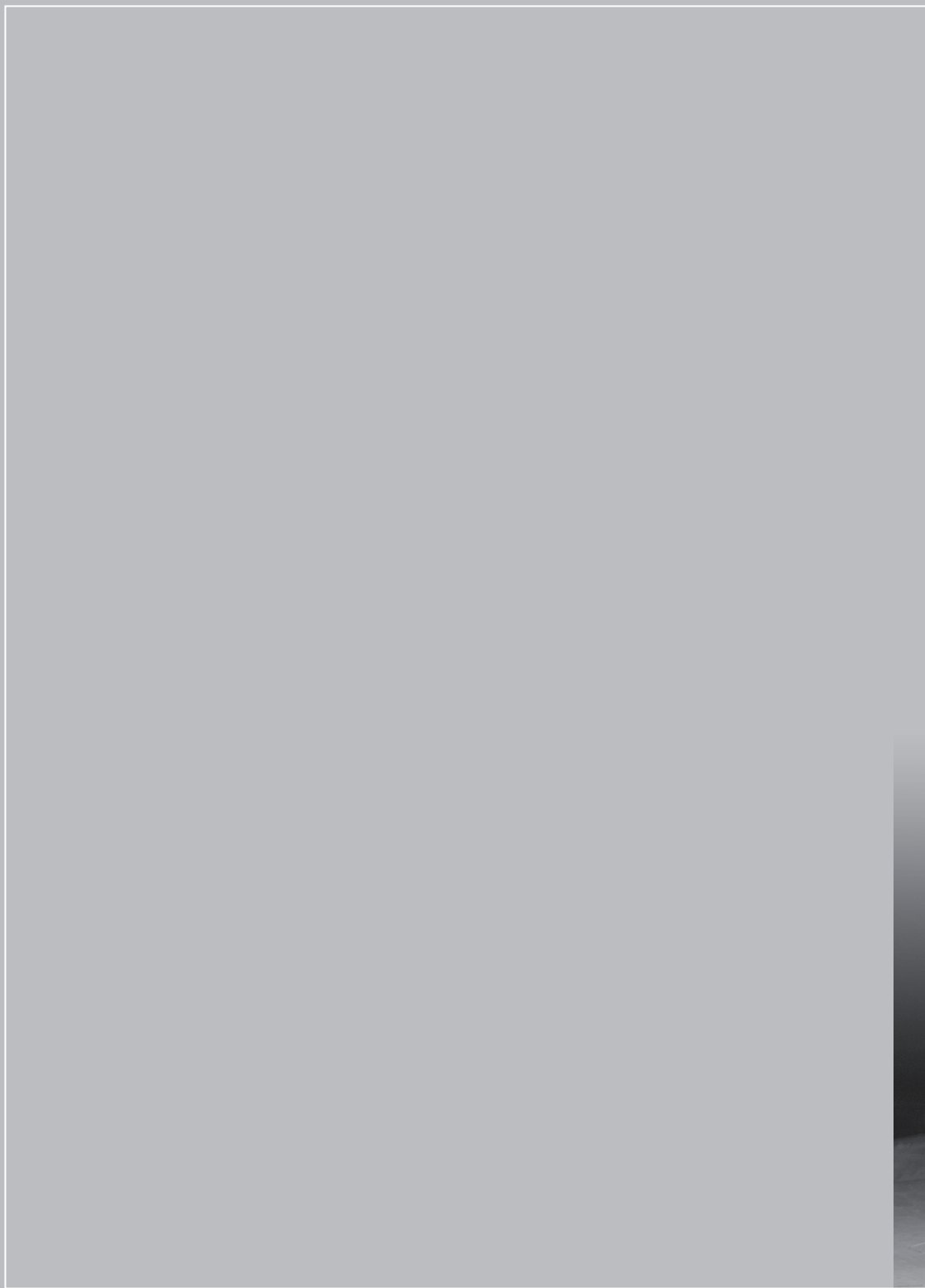
그래가지고 오월 단옷날은 계속 그렇게 해줘서 군수한테 한 번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미안한데 군수님. 이거 뭐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뭘 해드렸으면 좋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감사패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 해주면 좋지 이랬지. 그걸 올해에 해 가지고 와서 드렸지요. 그랬더니 좋아서, 내년에는 국악 하는 사람들 불러서 오월단옷날은 노래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고맙다고 나는 그랬지요.

그 사람 아버지가 박영순이거든요. 그 양반도 선생 할 적에 말년에는 괜찮았어요. (제보자: 오홍인(남, 78세, 1939년 3월 7일생, 2016.9.1.)



이순선 인제군수의 감사패





제4장  
세시풍속





# 제4장

## 세시풍속

###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 행사를 한다. 장소는 노인회관 앞마당이다. 달집태우기를 하기 전에는 옷놀이를 한다. 그렇게 하루 동안 옷놀이를 하며 먹고 논다. 달집태우기는 각자 소원을 종이에 적어서 달집에 매



정월대보름제와 달집태우기(사진 심영춘)

단다. 그리고 제상을 차리고 마을이 잘 되고 동네사람들 모두 잘 되게 해 달라고 고사를 지낸다. 제물로는 돼지도 잡고, 축문도 읽는다. 정월대보름행사가 마을에서는 제일 큰 행사이다. 축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보고 정자리에 맞게 쓴다. 잘 읽는 사람을 선정해서 읽게 한다. 2016년에는 장근성 씨가 축을 고했다. 이 행사가 정자리에서는 제일 큰 행사이다. 예전에는 달맞이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년에 달집태우기 행사를 시작했다. 이날은 청년팀, 노인팀 등으로 나누어서 상금을 걸고 옷놀이를 한다. 현재 정자리에는 농악팀이 따로 없어서 농악놀이는 하지 않는다. 달집태우기가 끝나면 준비한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논다.



달집(사진 심영춘)



정월대보름 율놀이(사진 심영춘)

정월대보름이 되면 여자들도 집집이 다니면서 많이 놀았다. 찰밥이나 떡을 해서 먹으면서 모여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논다. 옛날에는 재미있게 살았다. 놀 때는 장고를 치면서 노래를 하였다. 옛날에는 밤에 많이 물러다니면서 놀았다. 지금은 마을회관에 가서 할머니들이 모여 술도 한 잔씩 마시면서 같이 지낸다. 사람은 많지 않아도 다들 회관에 모인다. 정월대보름이 되면 회관에 모두 모인다. 요즘은 다들 차가 있어서 멀어도 다 모일 수 있다.

### 정월대보름

옛날에는 다들 못 사니까 일찌감치 나물밥을 해먹고, 저녁이면 애들이 깡통에다 석유기름 넣어서 나무토막을 넣어 쥐불놀이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놀았다.

새댁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집 가서 놀고 저 집 가서 놀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지냈다. 나물밥 해놓고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다.

지금은 노인정에 모여서 마당에다 청년들이 불놀이를 한다. 그렇게 크게 불을 해놓고 달맞이를 한다. 거기 그렇게 앉아 모였다가 떡들 먹고 놀다가 헤어진다.(권오영(여, 78) 아랫말, 2016.7.21.)



## 천렵

마을에서는 개울에 가서 천렵을 했다. 고기를 잡아서 끓여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하루 노는 행사이다. 요즘에는 마을에 도로공사와 고랭지채소를 하면서 물고기가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먹을 것을 해 가지고 가서 먹



정자리 농악대1(사진 이종섭)

으면서 논다. 예전에는 메기, 송어, 뱀장어, 미꾸라지 등 고기가 많았다. 김부리로 넘어가는 골짜기에도 고기가 있다.

## 어부식

정월대보름에 오곡밥을 해서 종이에 싸서 열음구멍으로 넣어 버렸다. 액운을 없앤다고 해서 했다.

## 산치성

마을에서는 개인별로 산의 특정한 곳에 가서 치성을 지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김 뭐라는 어떤 사람이 대를 이어서 기령골에서 산치성을 지냈는데, 치성을 지내기 싫어서 그만 두려고 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치성을 지내는 나무에 원새끼를 꼬아서 돌리라고 해서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풍을 맞아서 불구가 되었다. 나중에 또 한 번 풍을 맞아 결국 말을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치성을 드리다가 그만 둘 때는 그냥 그만두는 것이 낫지,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 일꾼의 날

2월 1일. 일꾼의 날은 특별하게 일꾼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끼리끼리 모여서 그저 술을 먹고 놀고 그랬다. 그렇게 모여서 떡도 해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논다. 천렵 식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는 2월 초하루면 한겨울이다. 너무 추워서 일을 못한다. 남도나 일을 시작하지 여기는 엄두도 못 낸다.

일꾼의 날이라고 해서 찰밥도 해 먹고 놀았다. 지금은 회관에 모여서 같이 논다.



정자리 농악대2(사진 이종섭)

## 머슴날

여기는 워낙 산골이라서 그런 거는 모른다.

## 농목하기

4월초쯤 되어 눈이 녹으면 여름에 땀감으로 쓸 나무를 한다. 두레를 만들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나무를 하는데, 이를 농목이라 한다. 농목은 봄과 가을에 두 번을 한다.(세시풍속의 <농목>조 참조)

## 못자리하기

농목을 하고 나면 못자리를 한다. 못자리가 끝나면 감자를 심는다. 못자리를 할 때는 갈을 꺾지 않고 거름을 섞어서 넣는다. 옛날에는 비닐 나오기 전에 물못자리를 했다. 보통 한식 때 못자리를 한다. 4월 5일 경이다. 논을 삶아 놓고 볍씨를 뿌리는데, 저녁에 논을 삶아 놓고 아침이 되면

얼음이 얼어있다. 그러면 그 얼음을 깨내면서 맨발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때는 고무장화도 없었다. 그래 눈에 들어가서 손으로 바닥을 고르고 거기다가 뽕씨를 뿌린다. 그러면 얼음에 살이 닿아서 막 베어 피가 나고 그랬다. 물이 차서 살을 에는 듯 했다. 지금 아이들 그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기겁을 할 거다.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 갈꺾기

모를 심을 때 눈에는 갈을 꺾어 넣는다.

### 사월초파일

여기는 사월초파일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다.

### 단오

여기 70년대까지는 단오행사를 잘 했다. 이 동네(석장골)에서는 여기 돌배나무가 커다란 게 있었다. 지금은 죽고 없다. 그 돌배나무에 그네를 매고 탔다. 석장은 돌무덤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 그네를 타면서는 누가 가장 많이 올라가나 내기도 하였다. 그네를 타다가 다치기도 많이 했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그네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그네를 타는 밑으로 지나다가 부딪혀서 증상도 입곤 하였다. 또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였다. 지금 그네 뛰는 데 가면 보조 줄을 해서 팔에다 묶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짚으로 하기 때문에 짚이 마르면 부서져서 끊어진다. 지금 쓰는 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옛날에 쓰던 짚단은 이삼일 정도만 지나면 끊어진다고 노인들이 잘라낸다. 그걸 빨리 자르지 않으면 아이들이 타다가 다치고 그랬다.

단오 전날은 집집이 수리취떡을 만드느라, 수리취를 뺑아 넣고 떡을 찧다. 아주 쿵닥쿵닥하였다. 떡을 만들어서는 집집마다 떡을 돌렸다. 그러면 온 동네 떡을 다 먹었다.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아도 정이 많았다. 지금은 누가 뭘 해 먹는지 알지도 못한다. 대표적인 단오음식은 수리취떡이었

다. 수리취떡은 단오 때 필히 있어야 할 정도로 모두 해 먹었다. 여긴 미나리는 많지 않았다. 산에 나물들이 많으니까 나물을 많이 먹었다. 미나리는 어찌다가 먹기는 하나 꼭 행사 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옷날은 아침에 약쭈을 뜯기도 한다. 노인들이 있는 집은 약쭈을 꼭 뜯었다.

### 정자리 경로잔치

5월 5일 단오일. 매년 단오일에 노인회관에서 정자리 노인들을 모셔놓고 잔치를 연다. <5월5일 놀이 조> 참조.

### 유두

6월 유두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었다.

### 칠석

칠석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었다. 정자리는 7월에 농사짓느라 바빠서 특별한 행사를 열지 못한다.

### 복대림과 양어

복날은 개를 잡아먹었다. 개울에 가서 물고기도 잡아먹었다. 여긴 버들치라는 고기가 많았다. 쉬리도 있고 했는데, 채소농사를 많이 지으면서 농약 때문에 고기가 거의 없다. 여기는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한다. 그래서 7월에 파종을 한다, 그 파종을 할 때 토양 살충제를 뿌리는데, 파종을 한 후 바로 장마철이라 비가 오니까 그게 쓸려 내려가 개울에 있는 물고기가 많이 죽는다. 그때는 갑둔리까지 내려가면서 고기가 죽는다. 장마철에만 여기 물이 문제가 된다. 가물 때는 농약이 휩쓸러 가지 않는다.

신남 사람들이 먹는 상수원이 부평에 있는데, 장마철에는 농약이 많이 섞여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신남 사람들에게 정자리에 비료가 몇 차가 들

어오고, 농약이 몇 박스가 들어오는지 모른다고 했더니, 신남사람들이 장마철이 되면 물을 못 먹는다.

그런데 지금은 물고기가 많이 늘었다. 뭐 중탱이라는 고기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고기이다. 그 고기를 몇 마리 붙들어서 여기 연못에 넣어놨더니, 저기 도토골이라는 데 연못(장근성 씨의 연못)이 있다. 그 고기가 새끼를 놓아 퍼졌다. 그래서 지금 이 개울에 많은데, 그 고기는 농약에 강한지 잘 살아 있다. 미꾸라지처럼 피부가 미끈미끈 한데, 버들치 비슷한데, 크기는 꽤 커서 이만큼 한데, 그게 종자가 퍼져서 많이 있다. 가재도 못 살고, 버들치도 못 살고 그러는데, 버들치도 그 통골 골짜기에 가면 있다. 그런데 그게 큰 개울에 내려오면 농약 때문에 죽는다. 여기 농사만 안 지으면 그 종자가 금방 퍼진다. 중탱이라는 그 고기가 뭔지 몰랐는데, 여기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한테, 거기 인천사람인데 원래 고향은 충청도인데 우리 집에 놀러왔을 때 물어보니, 아이 이게 우리 고향에 많은 중탱이라고 그랬다. 충청도에는 중탱이가 많다고 하였다.

도토골에 연못이 있고, 거기다가 한 70평정도 그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 고기를 다 갖다가 길렀어요. 뱀장어며 메기며 다슬기며 미꾸라지 다 해봤어요. 연구하느라고요. 여기 지역에 맞는 것을 찾아 양어를 하려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고기가 내려와서 퍼졌어요. 여느 고기는 내려와서 다 죽더라고요. 물이 차서, 물이 차서 버티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거기는 연못이니까. 거기서는 자라는데.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릴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기가 퍼져야 되는데. 거기 자체에서는 가뉘놓은 물이니까 수온이 높아서 되는데. 거기서 일단 떠나면 죽든지 떠내려가든지 그러는데, 여기 중탱이란 놈만 살았어요.

### 호미씻임이

옛날 김 다 매고 나면 떡 해 놓고 먹고 천렵하고 그랬다. 옛날에는 모 끝 나면 하고 김 끝나면 하고 하였다. 옛날에는 먹는 게 귀한 시절이라 일 끝 나면 핑계 삼아 해 먹었다.

## 호미씻이

호미씻이는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지 않았다. 막걸리 해 놓고 각종 음식도 해놓고 동네사람들이 모여 먹으며 놀았다. 장소는 놀기 좋은 물가 같은 데서 했다. 동네사람 다 모이지는 않고 그냥 모이는 사람만 모여서 호미씻이를 했다. 술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했다. 상머슴 뽑고 그런 거는 없었다. 여기는 머슴 둘 정도로 큰 농사꾼이 없었다.

## 추석

추석이 되면 집집마다 송편을 해 먹었는데, 요즘은 꼭 해먹지는 않는다. 산소도 가고 그런다.

## 중구날(중양절)

9월 9일은 지당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삼월 삼짇날도 지낸다.

## 안택고사

안택고사는 하는 집이 있다. 지금도 몇 집 한다.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경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아는 집이 아직도 하는데 직접 보지는 않았다. 다 지내 놓고 떡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가서 떡은 한 번 얻어먹었다. 떡만 얻어먹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른다.

## 텃고사(터줏가리)

있는 집은 있고, 없는 집은 없었다. 위치는 정해진 곳이 없고 장독대 옆에도 하고 울타리 밑에도 하였다. 텃고사를 지내는데 시루떡을 해 놓았다. 우리도 아버지 계실 때는 텃고사를 지냈다. 텃고사를 지낼 때는 시루떡을 해서 상지둥(상기둥) 앞에다가 차려놓고 비수(손을 비비면서 소원을 비는 행위)를 잘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비수를 한다. 비수간을 잘 하는 사람은 집에서 혼자 하고, 그렇지 못하면 사람을 불러서 했다. 북을 두드



리거나 하지는 않고 손을 빌며 말로 추수리기만 한다. 위치는 부엌 상지 등 앞이다. 상기등은 부엌 가마솥 옆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옆에 있는 기둥이다. 상기등에다 한지를 만들어서 달아매고, 그 앞에서 텃고사를 한다. 한지로 매단 것은 성주라 한다. 텃고사는 달리 성주를 모신다고 한다. 이 성주를 모시는 것은 가을철에 한 번만 하는 사람도 있고, 봄가을로 두 번을 하는 사람도 있다. 가을에는 햇곡식이 나면 한다.(이상복(남, 82) 매봉재, 2016.7.21.)

### 동짓날

팔죽을 썬다. 동짓날은 꼭 팔죽을 썬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필히 해 먹었다. 팔죽을 썬서 집안에 곳곳에 뿌리기도 하고 내다 놓기도 했다. 귀신 못 오게 한다고 사방에 내다 뿌렸다. 또 팔죽을 썬고 마실을 다니면서 놀러가서 먹기도 하였다. 식은 팔죽을 화로에 올려 데우면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었다.

### 선달그믐제사

선달그믐이 되면 그믐제사라 해서 지냈다. 집집이 지내는 것은 아니고, 지내는 집도 있었다. 저녁에 만둣국을 끓여놓고 조상께 지냈다.

### 음식먹기

옛날에는 음식이 없다가 생기니 이집 가서 먹고 저집 가서 먹고 돌아다니면서 먹었다. 지금은 고향에 어찌다 와도 잘 먹지 않는다. 옛날에는 고향에 있는 친구와 객지 나갔다 명절 쇠러 들어온 친구들 하고 밤새 다니면서 먹곤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형제들 끼리나 그렇게 하지, 친구들이 와도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은 외국에 나갔다 들어온 친구들도 친구는 안 찾아보고 가족들 끼리나 어울리곤 한다. 옛날에는 형제들이 자주 만나니까 명절에는 안 만나도 됐는데, 지금은 형제도 오랜만에 만나

---

니까 또 출근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형제들 끼리 모여 앉아 시간 보내기도 바쁘다.

### 세배하기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했다. 지금은 아주 친한 집이나 다니곤 한다. 그게 세상이 각박하니까 그런 것이다.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 아침에 제사만 지내놓고는 가는 것이다.

그래도 정자리는 노인들이 많아서 설날부터 정월대보름까지 세배를 많이 다녔다. 이 동네는 집집이 다니면서 세배하는 풍속이 없어진 것이 몇 해 안 된다.

### 차례

설날에는 차례를 지낸다. 그믐제사를 지내면 차례 상에는 떡국을 놓지 않고 메를 놓는다. 저녁에 안 지내면 아침에 다 한다.(제보자: 오홍인(남, 78) 2016.9.7.; 이금화(여, 72) 2016.7.21.; 장근성(남, 63) 2016.7.21.)

---

제5장  
의식주





# 제5장

## 의식주

---

### 01 식생활

---

#### 음식

근데 옛날에 여기 웬만한데 6.25 전도 그렇고, 6.25 후도 그렇고 먹을 게 문제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 도토리 많이 심었고 이거 전라도 사람들이 들으면 욕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전라도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당시 처녀들을 여기다가 쌀 한 가마씩 받고 제무시에다 싣고 와서 막 팔았어요. 6.25 나고서도 돈이 어디에 있어. 먹고 사는 것도 못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그런 시절을 보냈잖아요. 6.25 막 나가서 도토리도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돼지가 다 주워 먹지만은 그땐 사람이 다 주워 먹었어요. 몇 가마씩 가져다 놓고 물에 울귀서 당원 섞어서 달달하게 해서도 먹고, 밥도 해 먹고, 찜어서 먹고.(제보자: 오흥인(남, 78) 2016.12.4.)

#### 초석잠

식물 뿌리인데, 캐서 바로 문혀 먹을 수 있다. 아삭아삭한 맛이 난다. 생긴 모양은 골뱅이처럼 빙빙 둘러 있고 크기는 한 개가 입에 넣었을 때 부담 없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이다. 맛이 돼지감자와 비슷하다.(제보자: 이선녀(여, 72) 2016.12.4.)

## 산나물이야기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싸리나물, 곤드레, 잔디나물, 삼주나물, 참나물, 누리대, 얼리지, 둥굴레 등이 있다. 고비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팔고비, 참고비, 풀고비, 수추고비, 외대풀고비 등이 있다. 삼주는 뿌리는 한약재로 쓰고 잎은 나물로 먹는다. 취나물은 종류가 많아요. 곰취, 나물취, 더덕취, 미역취, 며늘취, 떡취, 개미취가 있어요. 참나물은 한 가지예요. 참나물은 미나리과예요. 누리대라고 있어요. 누리대 또는 노리대라고도 하는데, 이 나물은 높은 곳에서만 난다. 약 700고지 이상 돼야 나온다. 그게 한 1000고지 가면 많이 나온다. 향이 좋은데, 그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 진해서 먹기 어렵다. 지금 그 나물을 여기서는 일등으로 친다. 얼리지도 산에 가면 다 있다. 차 끓여 먹는 둥굴레도 많다.

나물을 뜯는 시기는 봄 5월이 적기다. 5월이 한창 뜯는 시기이다.

그전 옛날에는 나물을 뜯어서 다 묵나물을 했어요. 삶아 말려서 묵나물을 했다가 먹었다. 요즘은 나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물 종류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시내 사람들은 산나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나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먹으려면 내가 뜯어서 말려야 한다.

묵나물을 먹을 때는 물에 불려서 삶아서 볶아도 먹고, 데쳐도 먹고, 나물밥도 해먹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나물죽도 하고 나물로도 여러 가지 해 먹는다.

나물에 얽힌 얘기는 별로 없다. 마을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더 정확해요.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주로 뜯으러 다녔기 때문에, 옛날 노인들은 높은 산에도 많이 갔거든요. 우리는 여기 야산에만 뜯으러 갔지요. 높은 산에 가서 여러 가지 나물을 뜯어왔어요.

나물 노래는 대개 여자들이 하지, 남자들은 안 하거든요.

곰취는 용도가 다양해요. 곰취를 삶아서 수리취처럼 떡도 해먹고, 무쳐서 나물로도 해먹고, 삼겹살 같은 것 구워가지고 쌈도 싸먹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하는 게 장아찌를 해요. 장아찌는 양념장을 해 가지고 깎아



럼 해요. 곰취를 왜 곰취라 하는지 그거는 몰라요. 옛날부터 이름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요. 나도 그 유래는 몰라요. (수리취는 단오 때 뜯어서 수리취라고 하잖아요.) 곰취종류도 많아요. 여기서 현재 재배하는 것은 곰달비곰취하고, 산곰취하고, 넉치곰취라고도 하고 진달래비라고도 하는데 그거하고, 홍곰취라고 있는데 그게 해발 1000고지에서만 서식을 해요. 그거는 대궁 자체가 빨개요. 그걸 내가 산에서 캐다가 해보니까. 여기가 지금 650인데 여기서는 안 돼요. 그게 씨가 나와서 씨로 번식을 시켜야 하는데, 씨가 여물지를 않아요. 지대가 낮아서 그런지. 그런데 여기 산곰취는 해발 약 2,3백 되는 데는 잘 안 돼요. 곰취도 한 500고지 넘어야 돼요. 곰달비곰취는 해발 2,3백 되는 데도 되고요. 그건 수확량도 많고요. 그러니 지금 젊은 사람들 쪽에는 산곰취보다 곰달비곰취를 더 먹어요. 왜냐면 산곰취는 쓴 맛이 많아요. 곰달비곰취는 쓴 맛이 있기는 있는데 젊은 사람들 먹기는 좋지요. 우리가 시장에 내놓으면 곰달비곰취가 값이 더 비싸요. 우리가 2kg씩 작업을 해서 담는데 비쌀 때는 3,000원 차이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1,2천원 차이는 계속 나더라고요. 산곰취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먹던 사람들은 산곰취를 찾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쓰니까 곰달비곰취를 찾고 그렇더라고. 인제에서는 주로 재배하는 것이 곰달비곰취하고 산곰취하고 넉치곰취예요. 넉치곰취는 잎이 큰데 그거를 진달래비라고도 하고 넉치라고도 하고 또 한대리곰취라고도 해요. 그거는 이름이 세가지로 불러요. 산곰취하고 곰달비곰취는 다른 이름이 없고요. 그거 말고도 또 있는데, 그거는 이름은 몰라요, 저 아래 장근성이라고 우리 처남네 가면 내가 부르는 것 말고 두세 가지 더 있어요. 대관령에서 그 모를 갖고 왔다고 그러던데. 산채 연구하는 곳에서도요. 처남은 산나물만 해요. 주로 곰취하고 산마늘 명이나물만 해요. 곰취에 얽힌 이야기는 어른들한테는 있는지 몰라도 우리 세대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시내사람들은 취나물 하면 그거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섯 가지, 아마 그 외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취나물이 종류마다 맛이 다 달라요. 똑 같지가 않아요. 쓰기도 하고

달달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 쓴 게. 곰취 종류는 우려내지 않고 그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나물로 먹었을 때는 곰취도 쓰고 더덕취도 써요. 더덕취는 묵나물이 참 좋아요. 부드러워서. 며늘취하고 더덕취는요. 며늘취는 그게 꽃으로 이야기 하면 금낭화예요. 그런데 나물로 부르면 며늘취라고 그러지요. 그거도 부드러워서 묵나물로 참 좋아요. 개미취와 미역취 그게 다 묵나물용이에요. 미역취도 쓰거든요. 그래 우려내요. 옛날에는 개미취 그거로 나물밥을 많이 했어요. 개미취 나물밥이 맛있어요. 개미취도 이제는 심어야 먹지,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많았는데, 이제는 그거도 별로 없어요. 곰취는 밥을 해먹는 거 못 봤어요. 곰취는 대부분 쌈용이에요.

장아찌 종류가 곰취 장아찌하고, 여기서 하는 게 산마늘, 일명 명이나물이라고 하지요. 그 장아찌가 많아요. 장아찌는 명이나물이 최고로 좋아요. 그건 비싸잖아요.

## 도토리

도토리는 엄청나게 많이 주웠지요. 올해도 무척 많이 떨어졌어요. 도토리는 묵뿐이에요. 밥은 못해 먹고 묵을 쥘서. 그리고 도토리를 삶아서 일곱 여덟 번을 물을 옮기내 가지고, 찌가지고는 먹었는데. 그거는 옛날



셋말 서낭당 앞의 마귀묵

식량 없을 때 먹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맛으로 그걸 해 먹어요. 사카린이나 당원을 넣어서 달콤하게 섞어서 먹었다. 일종의 도토리범벅이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해 먹었는데, 지금은 그걸 해 먹는 사람이 없다.

참 많이 주우러 다녔지요. 지금도 산에 가서 많이 줍는데, 지금은 묵 위주로 해 먹지요. 그리고 팔기도 하고요.

## 메밀

옛날에는 메밀도 많이 심었지요. 메밀은 중복 때 심는 건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심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메밀을 거의 안 심어요.

메밀로는 메밀묵, 메밀전, 메밀막국수를 주로 하지요. 밥은 안 해먹어 봤어요. 메밀죽도 안 해먹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는 다른 것 해 먹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주로 묵, 전, 국수를 해먹었어요.

## 옥수수

옥수수는 옛날에 올챙이국수라 해가지고, 틀에다 죽을 썬서 놀리면 나오는데, 그걸 일명 올챙이국수라 하지요. 또 옥수수묵도 해먹어요. 옥수수묵은 노란 색으로 하면 노랗고 하얀 옥수수로 쓰면 하얗고요. 옥수수 색깔에 따라 다르지요. 묵을 찌는 방법은 도토리 묵 찌는 거나 같아요. 옛날 여기 화전민이 많이 살 때는 옥수수밥이 주식이었어요.



솔뚜껑에 부치기(사진 심영춘)

## 조

화전민이 있을 때는 옥수수하고 조와 감자가 주식이었어요. 조는 밥으로 해 먹는다.

## 감자

감자는 감자밥도 해먹고, 감자를 갈아서 걸러서 녹말을 앉히면 그 녹말이 가라앉아요. 그 녹말을 빼서 말려 가지고 겨울에 두었다가 떡도 해먹고. 옛날 어른들이 감자투생이라고 해서 감자를 갈아가지고, 녹말을



점심상

빼가지고, 그 다음에 찌꺼기를 꼭 짜서 녹말과 같이 섞어가지고, 밥 짓는데다 푹푹 뎠서 수자로 푹푹 올려놓으면 찌서 밥하고 섞어 먹는다. 이것 감자투생이라 했는데, 쫄깃쫄깃하고 맛있지요. 지금도 옛날 향수를 느끼면서 가끔 해 먹어요.

감자는 송편도 하고 웅심이도 하고 떡도 하고 다 해요. 썩은 감자는 또 따로 해서 먹는다. 여름에 중복 때쯤 감자를 캐서 큰 통에다 물을 넣고 감자를 넣으면 썩는다. 감자가 썩으면 그 다음에 체로다가 싹 걸러서 말린다.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냄새가 안 날 때까지 계속 물에 울귀 낸다. 물을 따라 내고 또 새물 부어서 버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지요. 그렇게 완전히 울귀 내고 떡을 해서 먹으면 맛있다.

감자는 썩어도 먹고 얼어도 먹고 다 먹어요. 얼은 감자는 껍질을 까서 말려서 체로 쳐서 떡가루처럼 해서 송편을 해 먹거든요. 그것도 맛있어요. 그러니 감자는 버릴 것이 없어요. 고구마는 썩으면 써서 못 먹는데, 감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 고구마

고구마는 거의 다 찌서 먹지요. 고구마는 떡 해먹는 것도 못 봤어요.

## 수수

수수는 밥도 해먹고, 수수부꾸미라고 해서 수수를 가루를 내서 반죽을 해서 지금은 후라이팬(프라이팬)이지만 옛날에는 후라이팬이 없으니 솥 뚜껑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말하자면 떡처럼 이렇게 굽는 거지요. 그리고 팔을 다져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고는, 여기 시장에 가면 메밀전병이라고 동그랴게 말아서 먹는 것처럼, 그 원리하고 똑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라서 먹으면, 우리도 어찌다 그걸 한 번 해 먹어보면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맛있었는데, 지금은 한두 개 먹으니까는 별로더라고요. 쫄쫄한 게 맛있지요.

## 콩

콩은 주로 콩죽하고 두부를 하지요. 메주, 장 담그는 것, 콩 밥해 먹는 것하고 용도는 그거지요. 청국장도 해먹고요. 콩탕도 해먹고요.



마을회관에 있는 메주

## 갯

갯김치는 지금도 한다. 돌산 갯은 크고 넓적하잖아요. 여기 갯은 삐죽 삐죽 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갯김치는 여기 다 해요. 그게 누렇게 익으면 맛있다. 발효가 돼야 맛있어요. 갯은 철분이 많아서 열량이 많아, 겨울철에는 옛날 어른들은 막국수 눌러 가지고 막국수는 찬 음식이에요. 옛날에는 겨자가 없으니까 그 갯으로다가 겨자 대용으로 먹었지요. 그 갯 씨

를 갈면 겨자 맛이예요. 씨를 갈아서 타 먹는다. 갓 씨는 크기가 좁쌀알갱이만하다. 아주 잘다.

예전에 메밀전병을 할 때 무채김치와 갓김치를 섞어서 넣었다.

## 팥

팥으로는 팥죽을 쑤고, 밥 해 먹고, 떡고물로도 먹었지요.

## 기장

기장은 차좁쌀로 찰떡을 해 먹듯이 똑 같이 떡을 해 먹는다. 기장으로 떡을 하면 색깔이 노란 게 참 예쁘다. 쫄깃하고 맛있다.

## 츄

츄는 산에 가서 캔다. 츄를 캐다가 그 알통이라고, 맨 처음에는 작은데 자꾸 캐 들어갈수록 커지거든요. 그러면 츄를 푹푹 잘라서 방맹이(방망이)로 두드려서 물에 씻어서 걸러요. 그래가지고 떡가루 체로 싹 걸러서 가라앉히면 감자녹말처럼 하얗게 앉아요. 그걸로 떡을 하면 엄청나게 질겨요. 옛날에는 쌀이 엄청 귀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츄가루 한 말하고, 쌀 한 말 하고 맞바꾸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츄가루 한 말이면 쌀 몇 가마하고 바꾸어야 할 거예요. 츄가루가 귀하니까요. 찾는 사람도 없고요. 옛날에는 먹고 살게 없으니까 그랬지요. 그걸 츄녹말떡이라고 해요.

## 송기

송기 같은 거는 우리 세대는 안 먹었어요. 그거는 2,30년대 사람들이 많이 먹었대요. 소나무 껍질에 있다. 봄에 물오를 때도 하고, 겨울에 양식이 없으면 해서 먹었다.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속껍데기를 그거를 찌서 찞어 해먹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 벌

벌은 여기 토종벌만 해요. 올해도 벌이 있기는 있었는데, 병을 해가지고 싹 죽었어요. 꿀을 뜯 사람이 거의 없어요. 3년 전에는 나도 뜨기는 떴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꿀 한 되에 80만원씩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백만 원을 쥐도 없어요. 여기는 토종꿀이 없어요. 토종꿀도 산속에 있는 거라야 해요. 지금 신남 쪽이나 시내 쪽에는 벌은 토종벌이야, 토종벌인데 이 벌이 뭘 물어오느냐에 달린 거예요. 시내 같은 데서는 그 애들이 아이스크림 같은 것 먹다가 버린 것이나 여러 가지 사탕도 버리잖아요. 그렇게 버린 것 다 물어와요. 달달한 것은 다 물어오니까. 그런데 이 산속에는 그런 걸 물어올 게 없잖아요. 산 속에는 꽃 있는 곳만 가서 물어와서 쉴애다 채우지요. 그러니 시내 거와 여기 거하고는 달라요. 같은 토종꿀이라도. 벌은 토종인데 그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 다르지요.

여기는 양봉 반입 금지지역이에요. 토종벌 보호구역이에요.

## 사냥

사냥은 옛날 어른들은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70년대 그때는 산토끼 많이 잡았어요. 그때는 산토끼가 엄청 많았어요. 울무를 뚫어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다 산토끼도 한 마리씩 있어요. 귀해요. 고양이들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 너구리, 살췍이가 새끼를 낳으면 싹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번식이 안 돼어요. (제보자: 심덕용(남, 63) 정자리. 2016.12.14.)

## 산나물

여기는 산나물을 뜯을 때 매봉재, 기령골, 도토골, 통골 등 산으로 갔어요. 참나물, 고사리, 고비, 곰취, 곤드레, 고비 중에서도 팔고비 참고비 풀고비, 나물취.

곰취는 그 전에는 한 가지만 알고 뜯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산



곰취 채취하기(사진 심영춘)

곰치, 곰달비곰취, 평풍곰취, 소당곰취, 평창곰취 등이 있어요. 옛날에는 산에 가서 뜯으니 그저 곰취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재배를 하면서 그 종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별의 별 곰취가 다 나와요. 평창곰취가 값이 더 낮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곰취는 묵나물도 해 먹고 찜도 싸 먹는다. 봄에 요만 하게 나왔을 때 돼지고기 찜 싸먹으면 그게 최고예요. 곰취는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콜레스트롤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대요. 아주 삼겹살 싸먹는 데는 더 이상 곰취보다 좋은 게 없어요.

묵나물 해서 무쳐먹으면 맛있어요. 곰취장아찌도 있고요. 잔거는 그냥 삶아서 무쳐 먹기도 하고요. 지금은 주로 장아찌를 많이 해요. 곰취밥도 해 먹어요.

곰취밥을 할 때는 밑에다 기름을 조금 넣고 쌀을 넣고 곰취나물을 썰어서 올리고 그냥 밥을 하면 돼요. 기름을 넣는 것은 그냥 밥이 고소하라고 넣는 거예요. 곤드레는 그렇게 밥을 해 먹었어요. 곰취도 해 먹어요. 그렇게 밥을 해 놓으면 좀 짹짹 해요.

나물죽도 해 먹었지요. 질경이 죽을 많이 해 먹었지요. 곰취도 하는데, 삼추씩이 제일 좋아요. 나물죽을 할 때는 장을 풀어서 해요. 삼추씩으로 하면 물이 뽀얗게 나와요. 죽을 쓸 때는 된장만 넣어요. 감자넣고, 된장 넣고, 나물 넣고, 쌀도 넣고 끓이면 되지요. 나물국죽을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나물을 넣을 때 칼로 썰는 것 보다는 손으로 푹푹 뜯어 넣으면 더 맛있어요.

나는 배춧국을 끓여도 그렇게 손으로 뜯어 넣으니 맛있더라고요. 손으로 뜯어 넣으면 더 부드럽고 맛있게 느껴져요.

산나물 뜯으러 갈 때는 도시락을 싸들고 갔어요. 옛날 산에 갈 적에는 그냥 밥을 퍼서 장을 조금 해서 밥 옆에 붙여요. 그리고 다래끼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싸리나무로 한 종다래끼에 넣어서 허리에 차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산에 가서 곰취나 나물취 같은 것을 뜯어서 장을 넣어 밥으로 씹을 싸먹고 오는 거지요. 산에 가면 도랑물이 조금 나오는 데가 있어 그런데 가서 쉬면서 먹는 거야. 물도 마시면서. 그렇게 먹고는 그릇에다가 장을 풀어 장물을 만들어서 마셔요. 그게 냉국이야, 냉국. 집에서 먹을 적에는 고추장을 풀어서 거기다가 김치를 넣어 먹지만, 산에 가니까 물에다가 장만 타서 먹는 거지 뭐.



나물 재배 밭(사진 심영춘)

---

그 전엔 나물을 뜯으러 갈 때 여럿이 많이 갔지요. 많이는 안 땀겨어도 같이 가면 좋지요.

지금은 보자기를 차고 나물을 뜯는데, 옛날에는 싸리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옆에 차고 나물을 뜯었어요. 요즘은 앞치마처럼 생긴 나물 뜯을 때 차고 다니는 것을 시장에서 팔아요.

산에서 뜯어오면 삶아서 마당에 널어 말려요.

지금은 산에 못 가요, 산에 나무가 많아서 나물이 없어요. 나물이 그늘에 다 삭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곰취도 다 밭에다가 재배를 해요. 그래 밭에다가 심어서 뜯어 서울에 출하를 하고 그냥 사가기도 하고 그래요. 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뱀이 나오면 그냥 저까지 건너뛰고 그랬지요. 무서워서. 옛날에는 참 많이 알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잘 안 나요.(제보자: 권오영(여, 78), 이금화(여, 72), 이선녀(여, 72), 2016.12.14.)

## 02 주거생활

### 오흥인가옥

현재 정자리 셋말 아래쪽에 있는 집이다. 옛 정자리 초등학교 바로 옆이다. 기둥은 도끼로 깎아서 울퉁불퉁하다. 대패로 밀지 않았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대문에 있는 기둥이 위는 좁고 아래 부분은 넓다. 집을 지은 지는 6.25 훨씬 이전이다. 언제 지은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외양간은 소를 기르려고 오흥인 씨가 직접 만들어서 따로 붙였다. 뒤는 나무토막으로 짓고 부엌으로 난 곳은 뚫어 구유를 놓았다. 외양간 옆에는 광이 따로 없다.

지금 한옥으로 지어도 이런 식으로 기둥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밑은 크고 위에는 작게 이렇게 했는데, 이 기둥은 100년은 훨씬 넘었다. 그러니까 나무 모양 그대로 깎았다. 지금 이런 나무 깎으려면 다 아름답리로 한자 이상은 다 도끼로 깎았다. 재목은 참 오래된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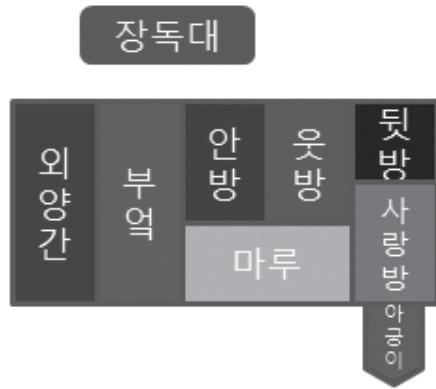


오흥인 가옥의 전경



부엌에서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곳으로 밥상을 들고 들어갔다. 이 문 옆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 성주를 매었다. 성주 앞에는 이렇게 실광을 만들어서 조양신을 모셨다. 뭇 모신 것은 아니고, 그냥 밥그릇을 놓아 출타한 사람 밥 안 굶게 했다. 안택을 할 때는 다 모셨다.

방은 네 칸이다. 현재 사랑방으로 쓰고 있는 방은 두 칸인데 한 칸으로 텃다. 옛날은 방이 다 작았다.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방을 작게 하고 높이가 낮게 지었다. 보온을 하려고 높이 짓지 않았다. 방 이름은 옷방, 사랑방, 안방, 뒷방이다. 사랑방 뒤가 뒷방이다. 그리고 앞에는 마루이다. 댄에는 장독대가 있고, 울타리는 나무로 하였다. 소나무 가지를 찍어다가 아래는 깎아 흙으로 박아 돌리고 가운데에는 긴 나무 대를 둘러 중간에 칩으로 엮었다. 그리고 모서리는 돌담을 쌓았다. 지금 사람들에게 소나무로 대 맞춘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린가 한다.



오흥인 가옥의 구조



찬장과 화로



사랑방 앞의 아궁이



벽은 외 엮는다고 해서 가운데 나무를 대고 수수깡이나 겨릅으로 가로 대고 새끼줄로 엮었다. 그리고 흙을 이겨서 이쪽저쪽에서 탁 치면 이리 저리 나오면서 벽을 이룬다. 그렇게 한 다음 조금 말라 흙이 굳으면 흙을 이개서 흙칼을 사용해서 양쪽으로 바른다. 이것을 흙손질이라 했다. 여기 이 벽도 다 그렇게 한 것인데, 나중에 시멘트를 덧입힌 것이다.

지금 이 집을 사용이 편하게 고쳐야 한다. 여기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수도만 한 군데서 해결하고, 나무로 불 때는 아궁이는 그냥 두고 어떻게 고쳤으면 한다. 불 때는 거는 그냥 두고 어떻게 고쳤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아무래도 내년이나 후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불 때는 것을 놔두고 그렇게 만들려니, 그게 쉽지 않다.

저기 우리 아버지가 판 집을 내가 다시 샀다. 그 집이 있다면 사진도 찍고 그래도 된다. 집은 괜찮았다. 그게 방 이 아홉 칸인데, 옛날 능애집이다. 그때 그걸 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굴삭기 기사가 세 명이 와 있었다. 임도 닦느라고, 그래 저 안방에도 자고 그랬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방에서 다섯이 어떻게 잤는지 모른다. 아주 조그만 방에서 다섯이 잤



오흥인 가옥에 있는 관세음보살도



절구

다. 그런데 일을 다 했다고 그러면서 뭔가 한 이들 일을 해주고 가겠다고 그랬다. 할 게 없다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할 게 있으면 하라고 그랬다.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서 혼잣소리로



부엌

“저 집이나 부엌”

그랬다. 이걸 부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부순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은 원래 잘 지었다. 지금 절에 다녀보면 절집이나 같다. 마루도 이렇게 내리 밀어서 놔다. 그래 집도 크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그만 부엌 버렸다. 지금 사과나무 심은 저 꼭대기인데 그 사람이 자꾸 그래서

“아 올라가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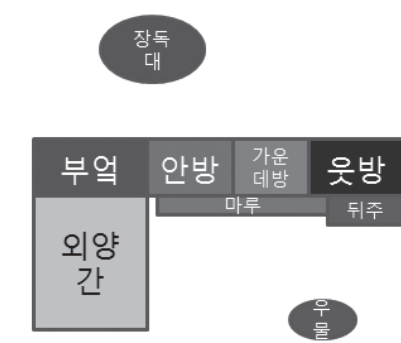
그랬는데, 그게 잘 못 됐다. 옛날 집이니까. 그 굴삭기 기사가 포하고 술을 사가지고 와서 절을 하고는 그만 툭툭 치니까 금방 다 넘어졌다. 그리고 땅을 긁어서 놓고 나무는 불을 해 놓으니 다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다.

정자리에서 오래된 집은 이종진 집하고 장영춘 집하고 오홍인 집이다. 모두 6.25 이전에 지은 집이다. 따지면 오홍인 가옥이 가장 오래 되었다. 이 집이 오래 되었는데, 웬걸 것이다. 이 집이 원래 학교 건물이다. 6.25 나고 아이들을 이 건물에서 가르쳤다. 그랬는데 집을 새로 짓는다니까. 그걸 짓지 말고 이걸 뜯어다 지으라고 했다. 그러니 이게 학교였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그때 산관 감독하던 할아버지가 그걸 뭘 뜯어지어 기둥도 자네 맘대로 해서 더 높게 해서 지으라고 했다. 아이고, 그냥 짓지요. 그렇게 지었는데 서까래가 없었다. 그러니 그 양반이 서까래를 아주 좋은 것으로 해서 다시 이었다. 그때는 다 이게 초가였다. 이 집은 거 학교 새로 지을 때 나도 여기 와서 공부를 했다.

## 장영춘(남, 62) 가옥, 통골 입구

정자리의 장영춘 가옥은 지은 지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집안의 각종 살림도구가 잘 보존되어 있다. 지붕은 슬레이트이나 기둥을 비롯하여 벽 등이 모두 옛날 지었을 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부엌도 옛 모습 그대로 나무를 때는 아궁이를 유지하고 있다. 집 앞에는 아주



장영춘 가옥의 구조

래된 뒤주가 그대로 놓여 있으며, 집을 돌아가면서 벽과 바닥에 가재도구가 온전한 상태로 놓여 있다. 오래된 단지도 있고, 창애, 절구, 키, 어처구니 등등이 모두 보존되어 있다. 마치 박물관과 같은 분위기를 나타낸다.

집의 구조는 위의 그림과 같은데, 가운데 방은 아랫사랑이라고도 부른다.



장영춘 가옥 전경



장영춘 가옥의 이모저모





매봉재에 있는 전통 귀틀집



매봉재 전통 귀틀집 1

### 초가지붕 잇기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 가장 큰 일이 초가지붕을 잇는 것이었다.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이엉을 배서 지붕을 잇고, 혼자 못하는 사람은 여럿이 힘을 합하여 이엉을 배고 지붕을 이었다.

초가지붕을 이을 때도 동네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힘을 합하여 같이 하였다. 이엉을 뺄 때 혼자 하면 지루하고 힘드니까 음식을 해놓고 먹으면서 같이 하였다. 저녁에는 방에 앉아서 새끼를 꼬고 낮에는 마당에서 이엉을 뺐다.

노인들만 있어서 지붕을 잇기 어려운 집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도와주었다. 오늘 어느 어른 집 지붕을 이어주자 그러면 다들 몰려가서 새끼도 꼬고 이엉도 배서 지붕을 이어주었다. 하룻저녁에 한 사람이 5,6개의 이엉을 엮어주면 열 명 정도 가면 하루면 지붕 하나는 이을 수 있었다. 그것도 짚이 없는 집은 산에 가서 새초를 베서 엮어 해줬다. 초가지집이 아니라, 새집이 된다.

이런 일은 대부분 마을단위로 행해졌다. 매봉재, 셋말, 기령골, 애랫말 처럼 자연마을 단위로 이뤄졌다. 동네잔치는 크게 했지만, 이런 일은 대부분 자연마을단위로 행해졌다.

---

정자리는 1977년 새마을운동 할 때 하사금을 받아서 슬레이트로 지붕 개량을 했다. 그때부터 초가집이 모두 없어져서 이영을 배지 않았다.

### 집짓기

집을 지을 때는 가까운 곳의 나무를 베어 사용했다. 지금은 집을 지을 때 사다가 쓰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 농촌에서는 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다듬어 사용했다. 다 초가집이었다. 초가집의 지붕을 이을 때는 좋은 날을 받아서 했다. 날을 받을 때는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서 했다. 그 사람이 어떤 날이 좋다고 그러면 그날에 했다.



# 제6장 구비문학

本所建 孔子廟刊五倫行實  
 以為身 聖獎善而列郡單子  
 恐續未列中 謹按江原道有司  
 及儒林薦林 則麟蹄郎南面亭  
 子里烈行柳氏籍 言好倡義功  
 巨資憲大夫判謚忠莊沛應秀

大正三十一年  
 三月廿六日  
 李承勳 印



## 제6장

# 구비문학

---

### 01 설화

---

#### 도깨비 이야기

예전에 장근성 씨가 도깨비를 소치리 상수원 물탱크 부근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만나고 싶어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렇다.

어느 날 저녁 부평에서 일을 보고 부부가 차를 타고 정자리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소치리 물탱크 부근에서 어느 여인이 차를 같이 타고 왔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지나가던 여인을 차에 태웠다. 그렇게 오다가 쌍다리 부근에서 내리겠다고 해서 내려 주었다. 그런데 같이 차를 타고 온 부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음은 이야기의 전말이다.

옛날에 살던 집 앞에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에 물고기를 넣기 위해서 부평리 소양호에서 고기를 싣고 오던 중이었어요. 부평리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잇는 친구가 있는데, 고기를 잡고 자살한 고기는 도로 물에 놓아주었어요. 그런 고기를 우리 연못에서 키우겠다고 얻어오던 중이었어요. 친구한테 부탁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기 가져가라고요.

오다가 고기가 죽을까봐 물탱크 밑 강가에서 새 물을 갈아주려고 옆드려서 물을 갈아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아저씨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었다. 그래

“정자리까지 가요.”

이러니,

“그럼 태워 줄 수 없어요. 나 저기까지 가는데.”

라 했다.

“타세요.”

그리고 차에 타고서 올라왔다. 그때 밤이니까 밤인데 우리 집사람이 차 문을 여니까. 그 사람이 타더라고요. 타고, 우리 집사람이 타고. 그래 오다가 쌍다리 있는데 거기 샘이 있거든요. 거기 쌍다리 못 미쳐서 거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서 거기서 또 갈아주느라고. 그래 새물을 갈아주고 타는데 우리 집사람만 타더라고요. 그래 안 오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안 가요.”

그래요.

“아니 여까지 사람 태우고 왔는데. 아 그 사람.”

난 내가 내릴 때 내려 가지고 불일 있어서 내린 줄 알았거든요. 소변이라도 보려고 내린 줄 알고, 차를 타고 안 가고 있으니까 왜 안 가냐고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을 같이 가야지 우리만 가면 어떻게 하나.”  
고 하니까.

“무슨 사람이 땀어요.”

안 땀다는 거예요. 그래 겁이 나니까

“빨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밤이라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이 타는 것 하고, 옆에서 여자가 타는 느낌이 있었고, 내릴 때는 내가 먼저 내렸으니까 내리는 것은 몰랐고. 타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이 양반 정신 나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헛깨비를 본 거지요. 그게 한 15년 쯤 됐어요.

(제보자: 장근성(남, 63) 정자리 1반. 2016.8.3.)

## 소 구른 사건

저기 예전에 헌집에 살았었는데. 소를 저 산에 풀어놓았는데. 여기 봉세 군데 맨 끝에 봉. 저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를, 소를 끌고 오려고 올라갔는데. 내가 올라가니까 이놈이 사람소리가 나니까 돌려다 보다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저기 가파르니까. 뒷발을 이렇게 잘못 내디더서 허방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았는데. 여 한길에 내려와 떨어졌어. 저 정상에서. 털썩털썩 한참을 내리 구르더라고. 그래 저기 뒷집에서 건너다 보고. “소 내려 구른다. 소 내려 구른다.”라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기 한길이 지금은 크게 닦느라고 높았지만, 그 전에는 한 요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큰길에서. 마지막에 구르다가 한 요 만큼 되는데 거기서 툭 떨어지며 딱 서더라고 이게. 거기서 그냥 꿈 떨어진 게 아니고. 동굴동굴 구르다가 네 발로 탁 서. 그러니 그게 딱 맞은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딱 섰는데. 쫓아 내려와 보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소가. 큰 암소인데 새끼 가진 소인데. 이래 보니까. 가족이 나무그루터기에 하도 굶혀가지고 진짜 상처가 안 난데가 없어. 그래도 살았어요. 그게. 기적이예요, 사람들이 모두 기적이라. 새끼도 괜찮았어요. 다 정상이야. 그 봉우리 이름은 없어요.

이 작은 골짜기니가 다 이름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산에 안 다니니. 옛날에는 산에 가서 나물도 뜯고 그러니 노인들이 뭐 어느 골짜기 가서 뭘 뜯어왔다 뭘 해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계속 그렇게 해서 기억할 수 있는데. 지금은 큰 골만 알지. 작은 골은 안 가니까 모르지요. 입에서 떨어지니까. 잊히는 거예요. 저기 작은 골짜기가 옛날에는 뭐라 다 이름이 있어 불렀어요.(제보자: 장근성(남, 63) 정자리 1반. 2016.8.3.)

## 명당자리 파서 망한 사연 및 정자리 초등학교가 없어진 사연

그 당시 김 교육감이 정자리에 와서 피난을 했어요. 그 박 씨네에. 그런데 이 양반 사촌 형인지? 그때 그 양반이 선생을 했거든. 6.25 전에. 그때

김○○ 교육감 아버지가 정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6.25때 돌아가시니까 장사를 치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물어드린 거예요. 그래 그렇게 갖다 물어드렸는데 그게 명당이네. 그래 가지고 김○○ 씨가 이제 교육감이 되었어요. 그래 정자리에 와서 이 양반들한테 덕도 보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학교 부지가 약 5천 평 되는데, 그때 김 씨가 교육감을 하면서 자기 고향처럼 생각해서 사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러니, 요번에 와서는 학교를 아예 부숴버리더군요. 그래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그런가보다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김 씨가 들어올 적에 여기 김 모 교장이 어론리에서 교장을 하다가 여기 정자리에서 교장을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김 씨가 여기 땅을 한 천 평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어요. 그런데 그 김 교장이 교육감한테 잘 보이려고 무덤의 상석을 만들었어요. 그날은 나도 갔지요. 그래 상석 돌을 이렇게 놓으니 일렁일렁 이렇게 놀아요. 그렇게 놀면 그곳에다 흙을 조금만 넣으면 안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장이 상석을 번쩍 들어요. 그러고는 밑에 받혀진 돌을 깨내요. 그 집 패들은 그걸 모르지요. 지금 생각해 봐도 그게 한 발도 넘어요. 그게 묘 앞에, 동그런 묘 앞에 복판에 요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한 발 넘은 것 파다가 그렇게 크면 도로 덮어야 되잖아요. 주먹만큼 나온 돌을 파서 그걸 큰 돌을 파내니, 그래 결국 그걸 파서 그 밑에 어디로 굴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바로 그날부터 일이 나더구먼. 그날서부터. 그래 그 무덤이 김 교육감의 아버지인데, 결국은 그 돌이 묘 앞에 문지방돌이래요. 파내면 안 된대요. 그때 그 지관들이 그래 나온 대로 하면 되지, 왜 파내냐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 해놓고 나니, 지프차가 까만 게 오더니, 그 김 교육감을 태우고.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 양반들 앞에서 감히 뭐 말이나 해요.

그런데 그 김 교장이 이제 제사를 차리는 거예요. 진설을 하는 거야. 제사는 잘 차려 왔어요. 그런데 많이 제물을 차려 왔으면 그냥 놓고 지내야지. 아, 이양반이, 상 차리는 것을 진설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설을 하다가, 갑자기 아니 왜 여기 황육이, 소고기가 없냐는 거예요. 왜 큰 제사에



황육이 없냐고. 그러니 제사차려 온 사람은 황육이 뭔지도 모르고, 황육이 뭐요? 그러니까. 왜 이 큰제사에 소고기를 안 했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번, 씨팔 것 안 지내면 그만이지. 내가 이렇게 차려왔는데, 황육을 찾고 뭘 찾고 그래. 그리고 나서는 그 제사를 눌러 안 지냈어요. 그래 그걸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데. 속으로 앞으로 괜찮을까? 하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도 교육감은 못들은 척 하고. 그때 모두 산에서 배례를 하고 학교를 오더라고.

오더니. 여기 그때 전○○라고 여기 별초를 해주고, 논이 약 8백 몇 평인가 그래. 그걸 부쳐 먹고 그렇게 했는데. 난 이제 논도 안 부치고 그것도 안 해. 그리고 갔다. 그래 사정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런 멸시를 당하고 할 것 같아. 난 안 해. 그리고 가니, 그걸 누가 부치나. 그래서 몇 년 전까지 그게 계속 묵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누가 와 가지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십 년이 넘어도 누가 그걸 부치려고 그래. 그걸 그렇게 하고. 한 이 년인가 삼 년인가 있는데. 그 김 교육감이 모가지가 나갔다고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산소를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그 양반이 그렇게까지 되는구나.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이제 여기 거 뭐 좀 아는 분들이 와서 얘기 하는데. 그래 좀 탄 데로 좋은 데로 가려고,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과 선물을 하면, 그거 보지도 않고 그냥 광에다가 쌓은 모양이야. 그런데 그 사과 밑에 전부 돈이 있었다는 거야.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 이 양반이 잘못되고 사과도 썩고 그래서 보니까, 사과 밑에 돈도 있고. 어떻게 그런 부정을 해 가지고 잘못 됐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조용해요. 몇 년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러더니. 약 7,8년 될까? 그 아들이 한 번 찾아왔다. 그래 찾아와서 그 땅을 누가 좀 부칠 사람이 있으면 부치고, 다시는 간섭을 하지 않겠다. 누구든. 그러니 우리 할아버지 산소를 금초만 좀 해다오. 뭐 제사를 지내 달라 뭐 그런 것 하나도 없고. 그래 그걸 개간을 해서 고추를 심지. 고추를 심고 지금은 금초만 해줘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남의 산소에 가서 뭐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이래 가지고 잘못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 김 교육감이 우리에게는 고마운 분이었는데, 지금은 학교가 없어지고 땅도 누가 가져가고 하니 우리 동네에는 아무 것도 아닌 거지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금 학교건물 허문지가 5일 됐어요.

그래 참 저게 정자리에 역사가 깃든 곳인데. 참 저걸 저렇게 허무는구나. 그래 판다는 소문도 있고, 먼저는 5억 그러더니 지금은 7억이니 8억이니 그런 소리가 있다. 그걸 농사짓는 산골에 누가 10억을 주고 사나. 그럼 그렇구나 해야지요. 이제는 정자리의 학교에 관한 추억도 모두 없어졌지요. 건물이 모두 없어졌으니.(제보자: 오홍인(남, 78세, 2016.9.1.)

### 말등바위와 뱀바위 이야기

저거는 뱀 바위라 그러는 데. 지관들이 하는 말이, 저기 깨져 나간 형국이 없어야 된대요. 저게 깨져 나갔는데. 이 꼭대기 어디 산소가 있으면, 큰 산소가 있는데, 저게 깨져 나가서. 거 지관들 지리 보는 사람들 얘기야. 힘은 못 쓰고 그렇게 돼 먹었다. 저게 깨지지 말고 이렇게 돼서. 뭐 말 그런 형체가 있든지. 말 등에 하는 그런 형체가 있어 가지고.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깨져 나간 형국이기 때문에 힘 받을 거는 아니고 이게 그냥 그렇구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구먼.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깨져 나갔으니까 이게 암만 그렇게 해도 힘을 못 받는다.

여기서는 기도를 하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원래 여기가 논이었어요.(제보자: 오홍인(남, 78세, 2016.9.1.)

### 천석꾼이 망한 이야기

그게 오래된 얘가지.

여기 천석꾼이가 손님이 많이 오니까. 여자가. 손님들 안 오게 해달라

니까. 저기 보이는 저기에 산소가 있는데. 그게 할아버지 산소인데. 그 뒤에다가 시체를 묻으면 일 년 내로 손님이 안 올 거다. 그렇게 그 터 보이는데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가 망해가지고. 천석꾼이가. 가는데. 검은 소가 옛날에. 여기 저 밍고개 넘어가는 거. 조○○라고 있는데. 거기 넘어가는데. 검은 소가. 여기서 떠나가지 않더라. 얼마나 많은지. 그 집이가 그렇게 망해 나갔다더라고.

그래 그 뒤에 박 씨네가. 그 자리에 갔다가 조금 올려 썼다고. 산을. 그 래 가지고 박 씨네가 또 부자가 된 거야. 그 산 자리에.

그래. 인제 남북리라 그러던가. 거기 인제군의 거기메 땅도 여 박 씨네 부자의 땅이었다네요. 그리고 6.25전에도 박 씨네가 그게 살기 힘든데도 그거 나팔 들고 취침나팔과 아침에 기상나팔을 불고. 집에서요.

그런데 그 집들이 6.25 나 가지고 피란을 가는데 족보하고 돈보따리 하고 어느 것을 가져가야 되느냐 인제. 그래 바우에다가 물어놓고 바우 밑에다가 족보를 물어놓고. 이 다음에 우리가 살면 족보는 다시 찾아가면 된다. 임시 급하니까 돈 보따리를 가져가자. 그래 돈 보따리를 가져 나갔지. 지금 그 패가 원대리 못 가서. ○○이라고. 거기 가서 그 양반이 자리 잡았는데.

그 양반 죽어서 우리가 장사 지내러 갔는데.

“정자리 여 죽어서 돌 갔다 내 가더러야.”

그래.

그 양반 산 자리를 파는데 돌이 와르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 거기 쓸 수 없어서 돌을 한 차 실어내가고. 거기 산을 쓰더라. 그러더니, 그 집들도 요즘에 와서는 힘을 못 받고.

(돌이 나왔어요. 산소에서?)그 자갈돌. 그러니 자리가 안 좋은 거지 뭐. 그러니 다른 데서 좋은 흙을 가져다가 산을 쓴 거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작은 아버지가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

“정자리 ○씨라는 사람이 죽어서 돌이 있는 산 자리 그런데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부자면 좋은 자리 묻혀야 되는데, 그것도 팔자인가 봐요?) 그게 인심이 나와 한다고. 다 좋은 자리에 묻힐 수 없어요. 그것도 다 공을 들여야 좋은 데 묻히지. 아이, 허덕대고 세월 보내다 보면 때는 늦어 그저 아무 데나 가는 거지. 뭐 별수 있나요. 그게 사람의 본령인데. 명당에 가려면 그게 닦고 또 닦고 자꾸 좋은 일을 해야 명당이 나오지. 그게 하지도 않은 데 명당이 어디서 생겨요.

내가 다니면서 보는 견지에. 그 산 자리도 무시 못 해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정자리는 이게 하나지요.

그 천석꾼이 그 자리에다 묘를 쓰고, ○씨가 대단했지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못 갔어요. 그래 그 집들도 한 번 그렇게 잘 되고 말았어요.

그때 그 ○씨가 한국방송의 논설위원을 했어요. 박정희가 국회의원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아이고 나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동안 잘 나갔지요. 대단했지요.

그러다가 그 패들이 지금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 패들이 그렇게 안 되려면 그때 그 식을 따라서 해야 하는데. 안 한 거지.

요즘 젊은이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 차 댈 때 좋은 데 쓴다고 길옆에다가 묘를 써요. 길옆이고 따뜻하게 햇볕 잘 들면 명당자리라고 갖다 묻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건 잘못 된 거예요. (제보자: 오홍인(남, 78세, 1939년 3월 7일생, 2016.12.4.)

## 거꾸로 써야 명당

원래 산 자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 시니까 지게에 지고 가다가 길에 넘어지면서 떨귀 버렸어. 그래 지게가 넘어지면서 아버지가 데굴데굴 굴러서, 굴러 가다가 거꾸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그냥 파묻어 버렸대.

그런 후 그 집이가 승승장구를 해 가지고. 잘 되니까. 아들이 온 거야.

내가 그 전에 아버지 산 자리 하나 제대로 못 봐서 거꾸로 저기를 했는데. 이제 지관을 모셔다가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셔야 되겠다고. 지관을 불러다가 아버지 쓴 산 자리를 보니까. 이 산 자리는 거꾸로 써야 명당이 되는 자리지 바로 쓰면 명당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안 쓰고 말았대요. 그러니 그 지관이 명지관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복을 준 거지 뭐.(제보자: 오홍인(남, 78세, 1939년 3월 7일생, 2016.12.4.)

### 뫓자리 이야기 네 개

강릉사람으로 치안본부장을 했던 손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치안본부장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게 박 대통령 때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 치안본부장 생가 터에 그 산 자리를 보는 지관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 자리를 팔라고.

이 사람이 옛날에 아버지께서 살던 터고 내가 난 터니까 나를 죽이고 가져 가져가기 전에는 안 된다. 내가 사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잡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지관이니까 터를 아니까. 그게 좋은 자리니까. 손달영이야. 손달영이가 치안본부장 올라가서 그렇게 했고.

거기 떼에 그 선조 산이 삼척 근덕에 있어요. 근덕에. 그래 내가 거길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래 지금이나 그때나 똑 같아요. 지금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장관이 되고 그러면, 그게 돈이 수조원이야. 그게 생겼어. 그래 생기면 뭐 지리 보는 사람이 그 집 산이고 뭐고 자꾸 봐요.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를. 예를 들어, 이 이집에는 산을 이렇게 옮기면 더 잘 될 텐데. 하면서 옮기라는 거지. 그래서 옮기는 사람이 망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이 치안본부장까지 올라가서 권력을 쓰니까는, 어떤 지관이 이걸 옮기라는 거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지리 박사가 와서 그렇게 하라니까는, 옮기는 거야.

그러니 이웃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경을 하면서, 저기 뒷부리를 파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구경을 하는데. 그 손달영이 어느 할아버지인지 누군지

는 똑똑히 모르는데, 거길 아주 뜯어내지도 못하게 썼더라는 거야. 그러니 파다파다 곡괭이로 파다가 안 되니, 그 시체 있는 그 밑을 파가지고, 뚫어서 긁어내려고, 요기를 딱 뚫었는데. 김이 푸~옥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이 싹 나오니까. 거기서 파던 사람이 전부 다 쫓겨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아는 분이, 이제는 이 집이 끝이 났구먼. 그러더라.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그냥 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긁어내 가지고 밀레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그 가을에 놀러 모가지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명당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에요. 그 김○○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문지방돌. 그 이듬해 모가지가 나갔잖아. 그런데 그 김○○이가 고마운 거는 그까짓 거 이제는 교육청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거기 5천 평을 자기 고향이라고. 학교의 부지 뭐 그런 걸 다 사줬는데. 이제는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것도 교장 선생이 아니 왜 가서 그렇게 했냐고. 돌이 이렇게 육각이야. 이 앞에 돌이 이렇게 조금 나온 거를 흙을 조금만 채우면 괜찮을 거를. 한 발을 들여 파냈으니. 왜 파내냐고 남의 묘를. 그 교장이. 그랬는데 그때는 나도 그 양반을 조금 안 좋게 봤는데. 그게 어느 분인가, 그 집도 한 삼 년 두고 보면 알거야. 뒤를 이 년이 지나니 모가지 데거덕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김○○ 네 그 광을 뒤지니까 사과가 나오는데. 사과 썩은 거지. 오래 됐으니까. 위에는 사과고 그 밑에는 돈인 거야. 그런 게 몇 짝이 나오고. 말도 못하게 살았지. 그러니 그때는 교육감 백만 가져도, 큰 학교로 갈 수도 있고 그땐 그렇잖아요. 그래 그 집들이 지금도 그래가지고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집과 내가 세 집을 봤는데.

옛날에 내가 객지 생활을 하면서 해미를 샀어요. 해미를 십 몇 년을 다녔는데. 충청도 해미. 서산 거기 메. 거기를 다녔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 보고 그래. 한 씨인데. 학자이신데. 오 서방, 오 서방. 왜요. 자네 여기 충



청도 부자 망한 산을 살 수 있으면 가서 사. 그래 날 보고. 그래 왜. 그랬더니. 그 집이가 버스가 그 당시에 70대, 거 빨건 차 직행이 70대가 있고 부잔 대. 그 산지기 아시지. 우리 오 씨네도 춘천에 산지기가 있거든. 그 산지기를 두면은 그 땅을 부쳐 먹고 산소 깎아주고 제사 지내주고 이래는 것이 산지기인데. 그 산지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그 부자 그 사람이 충청도에 부자 그 사람이 그 산지기 있는 그 산을 옮긴지가 1년 밖에 안 된다는 거야. 1년 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이 망했다는 거야. 망해간다는 거야. 망해 가는데. 그러니까 번창이 안 되고 주는 거지. 차가 자꾸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그런 단계인데. 이 산지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사장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장님, 그때 거기 메 금초도 해드리고 하던 탄 데로 모셔간 그 자리에 우리 아버님을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 갖다가 씨. 파간 자리니까. 그래 그 사람이 삽자루 하나 길이로 올려 썼대요. 삽자루 하나 길이로 올려 써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썼다는 거야. 삼년 되니까, 이 사람한테 그 차가 다 넘어오더라는 거야. 그게 내가 충청도 다닐 적에요. 야, 그러니까. 잘 될 적에는 어느 누가 와서 산을 옮기라 하더라도 가만 놔둬야 해요. 그러니까 그 학자 한 씨네 할아버지도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오죽 없어 산지기를 했는데, 어떻게 돼서 삼년 동안에 그 재산이 그 사람한테 다 넘어 오냐 그 거야. 참 신비한 일이지. 그게 거짓부리라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이제 봤는데. 내가 그걸 가서 그 위치를 살려고 가서 움직이니까. 팔아야 사지. 나는 객지고.

근데 그 손달영이는 어떻게 아냐 하면, 거기 메에 어떻게 일을 왔어요. 이쪽으로 산관일을 왔는데, 이 방에서 잤지. 그래 주인장 나하고 이야기 좀 해. 그래 이야기를 하면. 그런 산 이야기를 하고. 그래 여기 정자리가 자기가 보니까.

참 옛날부터 배형국이래요. 여기가. 배 형국인데 구멍을 뚫으면 안 된다는 거야. 배는 구멍을 뚫으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구멍을 뚫

어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 구멍을 뚫어 먹으면, 십 년 안에 은근히 잘못 된 줄도 모르게 망가지는 거지.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그 손달영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네가 손달영이가. 나한테 이렇게 사는데. 손달영이가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산소에 김이 빠졌다는데. 일 년도 못 가서 모가지가 나갔다.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일하던 사람이 그때 못 살았어요. 산관일을 와서 하는데. 내가 그때 그 집도 갔었지. 그 사람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는 없고 그래 부인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내가 가니까. 아들은 군대를 갔는데. 소가 두 마리야. 소를 먹이는데.

그리고 한 십 년 있다 가니까. 이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야,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 어머니 살아서 내가 갔는데. 그 어머니 산소 쓴 데를 구경을 가져하더라고. 그래 자기 아버지 하고 합장을 이렇게 똑 같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평지에 썼는데. 글썬, 내가 보니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장고 치는 형국이라는 거야. 그러니 장고를 치면 소리가 나잖아. 그러니 언젠가는 소리가 난다는 거지. 아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또. 자기 할아버지를 어떤 마을에 갖다 써야 하는데 도저히 갖다 쓸 수 없어서 돼지 한 마리 잡고. 내가 이렇게 돼서 여기 산 끝에 국유지인데. 그 밑에는 민간인이 개인의 밭이고. 그러니 그 산에다가 산은 쓰고 여기 한 두 평이고 세 평이고 조금만 여기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만 내가 사서 이렇게 단을 쓰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 허락을 좀 해달라고. 그래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그때 천렵을 시켜 준 거지. 그랬더니 아이구 하라고. 그래 그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를 이렇게 옮기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렇게 쓰고, 한 십오 년 동안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십오 년 동안에.

그래서 난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내가 다니면서 겪고 보고 듣고 그런 건데.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애들한테도.

그 다음에 여기 젊은 사람들은 제사를 뭐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삶이 그렇게 내려 왔으니까

우리대로 해야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따지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걸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이제는 지리 보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볼 것 보고. 내가 죽을 적에 자리 잡아 놓으면 아무도 부러울 것 없잖아.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산 자리로 가지만, 서울에나 도시에서 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갔다 쓰냐고. 화장해가지고 납골당에 아파트처럼 그건데. 그까짓 거 뭘 해. 거기다 갔다 넣어. 난 애들 보고 그래 거기 갔다 넣을 필요 없어. 차라리 큰 강물에다 갔다가 허기는 안 나는 거야 물에다 띄우라고 모르게 아주 넓게 뿌리든지. 아이고 지금은 참 요지경 아니냐. 뭐 지 아버지 죽었는데 잣봉지 하나 버릴 데 없으니까 차 세우고 아무테나 내 뿌리고 내 빼는 놈도 있고 별 놈이 다 있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꼭대기에서 닦아 봐야만 되는 거예요.(제보자: 오홍인(남, 78세, 1939년 3월 7일생, 2016.12.4.)

### 호랑이 잡은 이야기

매봉재에서 옛날 호랑이를 잡았어요. 거 매봉재에 전찬호네 집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은 길을 닦아서 거기가 다 없어졌어요. 거기 메에 화채간이 있었어. 그런데 거기 호랑이가 계속 온다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 뒷을 놓은 거예요. 거기 메, 호랑이 미끼를 어떻게 놓아 뒷을 놓았는데, 이게 맞았대요. 맞았는데. 그래 그걸 잡았는데. 발족이 딱 맞았더라. 그러니 호랑이가 자기 살을 엄청나게 아낀대요. 그래 가지고 그걸 잡았다고 하더라고. 그래 잡았는데. 그거 잡은 사람이 안 좋다더라. 거기 메 그런 게 있어.(제보자: 오홍인(남, 78세, 2016.12.4.)

### 열녀비

그 양반이 천리 타향에서 신랑을 이고 왔는데, 그래 열녀를 했다. 옛날 여기 열녀각이 있었다. 아주 멋진 건물이었다. 그 여자가 천리타향에서 이고 온 거였다. 이제 밥도 못 먹고, 상식도 못 드리니까. 신랑인데. 그래 하

루는 광주리를 들어야 하는데 들 수 없었다. 광주리는 뭘 담아서 들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 싸리나무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자기 신세타령을 여자가 했다. 내가 이 천리타향에서도 당신을 먹을 것 못 먹고 내가 이렇게 머리로 이고 가는데 당신이 날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날 좀 가게 해 줘서 고향에 가서 내가 다시 해 올릴 테니까 가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 밥은 한 그릇 해 놔줬지. 아 그래 들러서 이고 왔다는 거야.(제보자: 오홍인(남, 78세, 2016.12.4.)

### 산신제 제주 가져다 먹고 화입은 이야기

심○○ 씨 할아버지가 옛날에 고을 원 비슷한 것을 했어요. 그 심 씨네가 매봉재 1번지에 살았어. 그 집들이. 하여튼 대단했어. 내려오면 꼭 말을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사람도 불기를 많이 쳤던 모양이야. 그래 어디 메 행차를 해서 부하들 하고 턱 갔는데. 그 마을에서 자게 되었는데. 아 그 반주를 좀 가져와라. 그러니 반주가 없는 거야. 그래 내가 이 고을에 원이 되고 이렇게 행차를 하고 갔는데. 반주가 없어야 되겠느냐. 호령을 내린 거예요. 호령을 내리니까. 이게 불기를 맞게 생겼잖아.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해놓은 거는 없고 산신제 지내려고 산에다가 제주를 봉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고하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가져와야지. 그래 이걸 가져와서 이 사람이 먹었다는 거야. 그래 먹었는데 이 사람이 지골(사람이 망가지는 것. 산신한테 벌을 받는 것)을 받았어. 그걸 먹고. 지골을 받아 가지고. 그 집이. 지골은 사람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 산신제 지내려는 것을 먹고 산신에게 벌을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병신이 된 거지. 그 사람이. 그래 병신이 되고. 그 양반 아들 인가도 좀 안 좋아. 그 다음에 손주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손주는 눈이 좀 찌그러졌고. 그 집들이 그렇게 돼 가지고. 옛날에 그 선조 할아버지가 못된 그런 것이 내려오면서. 아주 심 씨네가 안 좋아요. 그 집이 손주 한 사람은 인제 어디가 산다고 해. 그래 그거는 산신제 지낼 술을 가져다 먹었으니 안 되지. 거기 그런 전설이 있지. 그랬는데. 산신제 술

을 먹은 날 밤에 호랑이가 막 북아치고 아주 이렇게 돼 가지고. 병신이 이렇게 지골을 입어. 그 집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다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 양반이 저 매봉재 1번지에 살았어. 그래 그 아들이 전부 눈이 찌그러지고 앞도 못 보게 되었는데. 그러니 그런 걸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지금 젊은 애들은 무슨 정성 그러는데. 안 그래. (제보자: 오홍인(남, 78세, 2016.12.4.)

### 잣나무 송구 먹고 병 나은 이야기

그 약을 누가 소개를 해서 외지 분이 휴양을 왔어. 그때가 5월이예요. 아 근데 친구 때문에 오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돈은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제 뭐 다 그 거기에서 군에서는 꼭대기 유지로 노는데, 병이 걸린 거야. 근데 열 발자국만 걸으면 끄끔 해매. 그러면 앉으면, 운행을 하는데. 지금 저 길에서 여기를 들어오는데 두 번 앉아서 드러누우니까. 어 저걸 왜 저래 보내야지, 그럴 거 아니예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 와가지고 가방이나 그런 걸 가지고 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래도 옳거나 잘 못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숨이 차고, 병명이 안 나온다.”

는 거야. 미국까지 가 했는데. 병난 게 안 나온다고. 그런데 별 약이 다 있어요. 외국에서 뱀 쓸개 있잖아. 그런 것도 줬다는 데, 뱀 그런 것도 별 약이 다 있어. 영양가 뭐 이런 거. 나 먹으라고. 아우 난 싫다고. 그렇게 주거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사장님 약을 하나 해드릴 테니까 잡수실래요.”

했더니 그 뭐냐고. 그 송진 내려 줬단 말이야. 위니까.

“난 못 기는데”

그래.

“요기 저 건너도 못가요. 그러니까 바로 저기야 저 건너 거기서 잣나무를 하나 비 차가지고 아주 잡숫고 싶은 대로 실컷 잡쉬요.”

이거 나무 한 대를 그러니까 어 이 양반이 많이 먹는 거야. 밥은 요만큼

먹는데 쓱 하면 훌렁훌렁 물렁물렁 하니까 훌렁 넘어가고 훌렁 넘어가니까. 어휴 저 양반이 또 탈날라나 그랬는데, 보름 되니까요. 여기서 저 위를 가는 거야. 삼거리를. 응 여길 두 번 쉬어서 오던 양반이.

“그 사장님 그러면은 이제 좀 나왔는데 내가 이제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좋은 공기를 좀 마셔요.”

잣나무 밭 편한 데를 들어가면 건볼만 있지 풀도 없어 이거를 비닐을 하나 가져가고 갖다 줬어. 꼭대기나 하나 갖다놓고, 밥 잠수면 여기를 와서 드러누워서 잠자고 오고, 점심 잠수고 또 거기서 드러눕고 그랬는데. 저 꼭대기 아주 강갈한테 이런데 강갈한테 멀리 올라가서 자리 잡고 거기를 올라 내리는 거야.

약은 여기 와서 해 준 게 그것 밖에, 물하고 밥 우리 먹는 거. 약은 그것 밖에 없는데. 이 양반이 난리가 난거지 뭐 아들, 며느리, 손주, 마누라 다 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내가 표고를 할 때예요. 내가 뭐 신세를 갚아야겠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내가 병이 나왔으니까. 일본 모리회사에서 버섯 종균을 만들었으니까. 그 모리회사에서 오게 해 가지고 통변을 해가지고 오 선생 교육을 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분 내가 병이 좀 나오니까 아들, 며느리, 손주 다 왔어. 일본사람, 통역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물었지. 이거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 통역까지 다 와가지고 그 사람 돈까지 줄려면 그게 돈이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짓 게 문제냐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도움을. 그래가지고 그분내들이 형제처럼요. 부여요 부여. 부여의 현 씨인데 그래 가지고서는 아주.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 돌아가시기 전 그 집 친척들이 아주 날 친척처럼 잘 해 줬어요. 진짜지.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송진이 그 병을 낫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판단을 해 보면 내가 그걸 먹어 보면 하여튼 위에 아주 좋아 속에는 좋아 그게 결국에는 송진이에요. 잣나무의 송진. (제보자: 오홍인(남, 78세, 2016.12.4.)



## 팔자 이야기

지금 내가 다니면서 해인사 큰 스님을 내가 만났어요. 절대 못 만나요. 그것도 팔자인거지. 엿저녁에 해인사 말씀에 하셔서. 그 해인사 애길 하는데 해인사 큰 스님도 내 가서 만났어요. 들어 오래. 들어가서 해인사 큰 스님에게 가서 큰 절을 3번 하고 무릎을 꿇고 앉으니

“아니 왜 무릎을 꿇어 편안히 앉아 편안히 앉아”

그러더니 그 상좌가 아들이 더라고. 그 상좌가 스님이 셋이 있는데. 가서 무슨 것도 가져와, 무슨 것도 가져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좌 스님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계속 가져다주라는 거야. 과일 가져 왔잖아. 그러니까 그 감은 왜 안 가져와 감도 가지고 와. 그래 ‘야 이상하다’ 내가 속으로 그러더니 일어나래.

“어디로 가시려구요.”

하니까

“어 나하고 한 백 미터 산책을 하자”

는 거야. 해인사 큰 스님이 거 대통령이 가도 못 만났잖아. 그래 가서 산책을 했어. 산책을 하면서

“애들이 몇이나”

고 해서

“삼남일녀입니다.”

내가 그랬거든 셋째 아들을 자기한테 팔라고 그래.

안된다고. 그래 아는 거지 뭐. 그런데 금방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 보지도 않고

“왔다가 갔다는 소리 하지도 말고 명을 이어 갈려거든 날 줘”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들었지. 그래 거 잘못되었잖아. 그러니까 팔자야.

지금도 그 큰 스님이 계시잖아. 현재 계시는데 그 이름은 내가 몰라. 지금 큰스님 아무도 안 만난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작년 가을에 한 번 더 보이겠다고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만난대요. 나이가 많

으서가지고.

내가 배운 건 없어도 여러 사람을 만나들은 소리가 많잖아. 그래서 큰 스님한테

“큰 스님 해인사 팔만대장경 안에 소원성취문이 있는데 신익희하고 이승만이 그걸 알아 봤다는데 그것 좀 보면 안 되나요.”

그랬어. 소원성취발원문을 나도 꽤 어지간히 했어.

“에이 그게 어디 그런 게 있어”

뭐 그러더니. 그 스님이 저 꼭대기 집에 스님이 준 건데 염주. 대추나무 염주 발자국 찍은 사진하고 선물로 줬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상좌스님들한테

“여기 큰 집이라고 하고 전화해봐”

이러고서는 나가. 나가니까. 아 그 상좌스님이 따라오래. 따라 가니까. 그 팔만대장경 지키는 스님이 있어. 난 그 이름을 모르는데 그때 내가 가서 그 스님하고 내가 우리 큰 애하고 같이 갔어. 같이 갔는데 입맛을 썉썉 다시더니 팔만대장경 문에 정부에서 보는 카메라가 있고 2군데가. 그 다음에 해인사에서 보는 CCTV 2개가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드나드는 것 다 보는 거야. 아 그런데 팔만대장경 말고 조그만 집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도 요렇게 2개가 비추고 있더라고. 가서 이렇게 그걸 쳐다보는 거야. 그러더니

“아 내가 가라면 가면 되지 뭐”

이러는 거야. 그러고서는 날 들어오래. 문을 떨거덕 열고서 들어가니까 한 20개 되는 것 같은데. 그 소원성취문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분명히 있대. 신익희하고 이승만이 하나 봤대요. 갔더니 이렇게 돌려 세우더니 이걸 와서 안으라는 거야. 그래서

“스님 나는 이거 무거워서 못 들어”

내가 우리 아버지 할라고. 우리 애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안고 나왔는데 그게 목판이야. 목판인데 커 무거워. 와 우리 애랑 같이 나오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 여기서 들이 비치니까 비켜가지고 이쪽에. 이쪽에 돌아서서 가니까. 그걸 달라고 그래. 목판을 그게 뭔지도 모르지 뭐. 이렇게 나

오라고 그래 가니까. 그걸로 머리를 세 번 툽툽 치는데. 세 번을 쳐 주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난 여기서 가라고 그러면 가지요. 뭐 권한이 없다는 거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목판을 이렇게 세우고 보내는 거야. 보니까 발이야. 이게. 발인데 그게 부처님 발이라는 거야. 그래 내가

“아휴 이게 발이네”

그러니까 발은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틀리드라고요.

“아니 발이 무슨 소리야. 뭐라고 불러야지 발이라고 그래”

하고 쿠사리를 쥐. 그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스님 어쨌든 나 알았으니까 사진이나 하나 찍어 줘요.”

하니까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거야 그 스님이.

“아이 찍어야지 뭐”

내가 쫓아가서 막 이려고서

“야 카메라 안 가지고 왔더냐.”

하니까 우리 애가

“아니 휴대폰으로 찍으면 돼요.”

이래 내가 스님 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좀 찍어 주세요. 그리고 그걸 줬어. 핸드폰을. 그리고 우리 두 부자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그랬는데 송운석이 그 사무장. 그 양반이 그걸 달라는 거야. 그래 해 줄게. 내가 그런데 우리 애가 물에 털썩 빠트렸잖아 핸드폰을. 물에 빠트리니 못 빼잖아. 그래 그 사진 밖에 없어. 그런 일이 있어. 내가 거기 가서 스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님 평생 부적이 있다는데.”

그렇게 친절하니 난 그 양반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상좌스님들이 나중에 그 양반 간 다음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기 저 스님하고 친척이 되시냐.”

고 역사에 그런 일이 처음이라는 거야. 나한테 큰 스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고 그러는 게 처음이라는 거야. 이상하다는 거야.

“나는 그런 것도 없고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휴 이상하다는 거야. 그 상좌 스님들이. 그 다음에 그 상좌 스님 한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난 절에 주지스님이 제일 높은 줄 알았거든 그런데 거기는 큰 스님이 제일 높는데. 그럼 주지스님이 큰 스님을 한 번 보게 해 달라고 버르고 별러서 어떻게 해 가지고 주지스님이 데리고 온대요. 여기 방에 이렇게 앉았잖아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는 걸 딱 본대. 딱 보고 밑에서 서면 그 사람을 다 본거야. 관상을. 그럼 절을 하잖아 세 번 절을 하고 서면 앉으라는 소리를 안 하면 앉지를 못 한데 원래가. 열 명이 왔으면 아휴 명은 앉지를 못 하고 그냥 간대. 불일을 다 봤으니까 나가봐 그러니까 나왔지를 못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가 어디 있어. 음식 어서 먹느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날 보고

“어떻게 친척이 됩니까?”

물어 그러고서는 큰 스님한테. 나도 그런 소리는 참 별 소리를 다 들었지.

“큰 스님”,

“왜”

그래서

“평생부적은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세계 불려야 돼”,

“에이 평생 부적이 어디 있어”

그러더니 그 부처님 명암판 그걸 하나 보냈어. 우리 집에 보내고 강릉 이쪽으로 오대산으로 넘어오는데 무슨 절이 있어. 강릉에서요. 상원사, 월정사 말고 저 넘어 오는데 있는데. 거길 가 보래. 그러면 알 것이다. 얘기를 해. 금강산 건봉사 아니고 강릉서 오대산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월정사 쪽으로 넘어 오는데 중간에 무슨 절이 있어. 하여튼 거길 택시로 갔어. 근데 택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 큰 스님이 그랬기 때문에 보통 스님이 아니다 하고 갔어. 갔는데 내가 그냥 다니는 스님들은 몰라요. 사람을 볼 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보기도. 거길 가서 점심시간 전에 바깥에 나와 이러구 섰는데. 툭툭 쳐. 거기 큰 스님인지 뭔지 내가 모르잖아

“가서 공양 드셔야죠.”

그래 ‘점심을’이라는 거야. 뭐야 여기 스님이 나한테 이렇다 그러고서는

갔어. 가서 점심을 같이 먹고 ‘점심을 드시고 공양을 하고 두시쫘, 두시나 세시쫘 저기 저게 내 방이니까 그리고 오라’는 거야. 그래 갔어. 갔더니 이 양반이 이려고 앉아서 그건 잔이 요만큼 하더구면. 도토리 깍지 만해. 거기다가 부어주니까. 흘랑 마시니까. 또 부어 주고 어이구 그러니까 9잔을 먹었잖아. 뒤로 들으니까 그러는 법이 아니고. 큰 스님한테 가서는 한 잔이나 두 잔을 먹는 거라고. 뭘 그렇게 9잔이나 먹느냐고 그래. 아이 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뭐 그런 걸 모르니까 주는 대로 먹고, 9잔이나 먹으니까 내가 봐도 좀 미안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 스님이 해인사 큰 스님을 아는 거야. 그 스님이 전생, 후생을 다 보는 거야. 그러더니 처음에는

“그래 날 어떻게 알고 여기를 오셨습니까?”

그래 어떻게 가다보니까 해인사를 갔는데 해인사 큰 스님을 만났고. 노골적으로 다 얘기 했지 뭐. 평생부적이 있다는데 내가 그걸 몇 개 가졌으면 해서 큰 스님한테 겁도 없이 이랬습니다. 했더니 씨익 웃더라고 이 양반이. 씨익 웃더니. 이제 9잔을 먹고선 그만 먹어야 됐더라고 부어 놓은 걸 안 먹으니까 안 부어 놓더라고. 그래 놓고선 서로 말문을 여니까

“지차시구만”

그래 날 더러.

“네 맞습니다.”

“태어나긴 지찬데 뭐. 집안일이나 장손 일을 다 하는 구먼 뭐”

인제 이렇게 얘기 하는 거야. 그래 ‘어 이 양반이 알기는 안다 그랬어.’ 스님들은요 알아요. 전생에 좋은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거야. 학자지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공부를 왜 안 했어요. 그러는 거야. 나를 보고 공부를.

“아 6.25를 만나가지고 내가 용두리라고 하는 데서 내가 태어나서 강원도 인제를 산골짜기를 들어와 먹고 사는 걸 하다보니까 6.25 나고서 공부도 못 했고, 나이가 되니까 군대를 갔다 왔고, 그 때 뭐 장가를 들어서 아이들 낳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시국을 잘 못 타고 나서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네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공부 안 했길 잘 했습니다

는 그러는 거야. 날 보고.

“왜요?”

그랬더니 공부를 했으면 죄를 많이 지어서 안 된다는 거야. 뭐 했으면 사람 모가지를 자꾸 치잖아. 양반은 그런 뜻이야. 그 성질에 원칙만 따지니까 이젠 사람 안 다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길 다행이고. 공부를 했으면 농사를 지을 분이 아니고. 전생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사람은 성격대로 사는데. 지금 농사짓고 그렇게 사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면은 만족할 겁니다. 그래. 그 양반이. 그래 그 양반이 쪽 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좀 틀리다 그래서 그 분한테 한 번 더 갈려고 내가. 더 갈려고 그랬는데 텔레비전을 딱 보니까. 이 양반이 부산에 초청 강연을 가서는 갑자기 돌아가셨어. 내가 여기 그 어떤 분하고 같이 한 번 그 양반하고 꼭 찾아 가 본다고. 어휴 내가 간다고 하니 같이 간다는 사람이 많은 거야. 어떻게 되어서 뉴스를 봤는데 부산에 어느 절이야. 절에서 큰 스님들을 데려다가 법회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거길 가서 쓰러져서 놀러 돌아가셨어. 강릉 있는 분이. 그래 가지고 그 양반한테 한 번 더 갈려고 했다가 못 갔는데 그 분네나, 큰 스님이나, 우리 아들네나 똑 같아. 두 분네가 우리 죽은 놈을 달라는 거야. 여기 이 강릉 스님도 내가 해인사스님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스님은 생일 날 얘기를 해

“개가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없었어요?”

그러는 거야.

“개가 태어날 적에 태를 감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중놈 중놈 하는데. 해인사나 이렇게 큰 스님이 하나 되려고 하면, 나라 왕 하는 것 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거야. 큰 스님이 하나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랬는데, 우리 집 그 놈이 팔자는 큰 스님이 될 팔자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럼 그제 태를 감았는데. 그게 염주래 염주. 그래서 알았지. 팔자를 타고 났어. 그랬는데.

그 애를 영주 절에 가서 자면서 꿈을 꾸었어. 부석사 가기 전에 추암사. 그 산속에 있는 추암사 절에 들어가서 자면서 꿈을 꾸었어. 아 근데 감이



이만 한 게 왕 감이 하나 걸린 거야. ‘이상하다’내 속으로 어떻게 절에 와서 지는데 감이 왕 감이 저렇게 하나가. 그런데 그게 태몽인데, 가서 그렇게 애를 가졌잖아.

그랬는데 해인사 큰 스님은 ‘그냥 달라’고 그리고 ‘그래야 명이 길다’고 그랬고, 여기 스님은 ‘그 애가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 보거든 그래서 ‘태를 감았다’고 하니까 ‘나한테 보내세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애한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려고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 그게 염주인데 그 애는 큰 스님이 될 팔자고 큰 스님이 하나 되려고 하면 산이 하나 돌아앉아야 된대요. 그렇게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지금 백담사에서 3년인가 5년을 공부하면 거반 다 죽는대요. 그 안에서. 그 공부하는 걸 뭐라고 이름 부르는 게 있더라고. 그럼 아침에 밥을 저다 주면 3년인가 5년을 거기서 거 주는 밥 먹고 그 안에서 오줌, 똥을 누면서 한 번도 못 보는 거야. 거기 가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 살고 나오면 큰 스님 되는 거야.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영월 우리가 잘 다니는 범홍사라고 있어.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도 닦을 때까지 넣어 주는 거 먹고, 거기 불상이 없어. 그냥 그게 불상이야 뒤에 유리를 이렇게 해 놔는데 그게 비치는 게 불상이야. 정면을 보고 거기 보면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도를 닦는 거지.(제보자: 오홍인(남, 78), 2016.12.4.)

---

## 02 민요

---

다음은 2016년 12월 14일 정자리 마을회관에서 채록한 자료이다.  
제보자: 이금화(여, 72), 권오영(여, 78), 이선녀(여, 72), 오홍인(남, 78)

### 〈곰치타령〉

이곰치 저곰치 하여도  
정자리 곰치가 최고란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데야 내 사랑아(권오영)

### 〈나물아리랑〉

달롱아재야 실롱조카야  
물고지나 동세  
우리집이 삼동세  
보나물 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권오영)

### 〈뱃노래〉

모시랑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안달이 났구나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 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잖다(이금화)

마루나무 뽕뿌라나무 자랑들 말아라  
아닌 밤 중 게다소리 뺨골이 녹는다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 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잖다(이금화)

앞집에 처녀는 시집을 가는데

뒤집의 총각은 목매러 간다네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 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잖다(오흥인)

시들 새들 곱배 차는 찬 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에야 노야 노야 에야 노야 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권오영)

푸르죽죽에 능내삼팔로 날 감지를 맡고

정든님의 기나긴 님팔로 날 안아 주게(권오영)

### 〈연정아리랑〉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가고나 싶어 가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권오영)

뛰뛰빵빵에 나이롱 버스는 기생의 오빠만 타나요

저 멧팅구리 내 남편도 버스 탈 줄 안다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권오영)

올타리 똑똑 꺾어서 나온다던 입이

행랑채를 야 들었다 얹어도 아니나 오네(권오영)

노랑도 대가리 비범벽에나 상수  
언제나 길르고 길러서 내 낭군을 삼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권오영)

시냇물은 돌고 돌아서 서해바다로 가는데  
요내 몸은 돌고 돌아서 정자리로 왔구나(권오영)

오늘 같는지 내일 같는지 파서망정인데  
호박포기 강낭포기를 왜 날더러 가꾸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권오영)

저 건너 묵밭은 작년에도 묵더니  
올해도 날과 같이 또 한 해 묵는다(권오영)

### 〈시집살이노래〉

시집온지 삼일 만에 부뚜막 장단을 쳤더니  
우리집의 시어머니 부지깨 준비를 하는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테야 내 사랑아(권오영)

시집살이를 못하고 친정에 살이를 할망정  
술 한잔 안 먹고 예허야 나 못 살리라  
어랑어랑 어허야 얼싸 암마 동계이어라 내 사랑아(권오영)

### 〈아리랑〉

산이나 높아야 골이나 깊지  
조그만 여자속이 얼마나 깊을 소나(권오영)

(이건 후렴이 없어)

네 눈이 검정 수캐야 밤 사람을 보고서  
함부로 짓지 말아라  
(밤에 연애를 걸러 가는 데 이 놈의 개가 짓잖아)(부르다가 가사를 잊어 중단함)

올라 오셨수 내려 가셨수(부르다가 너무 야하다고 중단함)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렇게 곱게도 왜 생겼나(부르다가 잊어서 중단함)

### 〈밀양아리랑〉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동지설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갔네(이금화)

황자댁기 오셨는지 인사를 늦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갔네(이금화)

### 〈어랑타령〉

개구리방초 뛰는 건 멀리 가자는 뜻이요  
싱글벙글 웃는 뜻은 잠이나 들리는 뜻이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데야 내 사랑아(권오영)

절레나무는 길러서 개구장 옆으로 돌리고  
이 와다구시는 돌려서 우리 정자리로 돌려라(권오영)

독데기 땅이나 들썩여 골방취새끼가 돌고요  
양단이불이 들썩여 총각처녀가 논다 네  
얼싸 암마 등계디어라 내 사랑아(권오영)

신고산이가 우루루 함흥차 떠나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 애기 담뭇집만 싸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데야 내 사랑아(이선녀)

가는 새 오는 새 덩불 덩굴이 정거고  
가는 손님 오는 손님 술상머리가 정거라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데야 내 사랑아(이선녀)

못 하는 소리를 하라고나 하니  
오장육부가 발발 떨어져서 아니 나오네(이선녀)

고무신 바닥이 고와도 발가락 밑으로 놓고요  
여기 이 몸이 고와도 남자의 품으로 돈다 네  
어랑어랑 어허야 얼싸 멩게 등계 디어라 내 사랑아(권오영)

술 아니 먹자고 맹세맹세 했더니  
안주 보고야 주모를 보니 또 한 잔 먹겠네(이선녀)

술은 술술 에루화 잘 넘어 가는데  
참머래 냉수는 에루화 지척에 내놓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데야 내 사랑아(이선녀)



---

제7장  
생산민속





# 제7장

## 생산민속

### 농토

정자리는 예전에 논이 많았다. 다락논을 일궈 논농사를 많이 하였는데, 요즘은 모두 깎아내려서 밭을 하고 있다. 소출이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많기 때문이다. 정자리 본 마을부터 숯가마골로 올라가면서 거의 다 논이었



쌍겨리 밭갈이(사진 심영춘)

다. 지금은 농사지을 사람도 부족하지만 논을 부치지 않는다. 밭은 채소도 하고 해서 돈을 벌기가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농사 위주의 마을에서 밭농사 위주로 바뀌었다.

여기는 논농사는 남자들이 주로 짓고 여자들은 밭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여자들은 밭을 해서 날랐다. 그 때문에 논맬 때 노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여자들은 잘 모른다.

김은 말을 못할 정도로 많이 맬다. 벌써 나이가 15살 정도만 되면 밭에 나가 김을 맬다. 아가씨들끼리 어울려서 김을 맬 때는 돌아가면서 노래도 하곤 하였다.

“산이나 높으니 골도 깊구나”

그런 노래를 하였다.

옛날에 여자들은 공부를 안 가르쳤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일을 시켰다.(제보자: 이옥녀, 여, 84, 정자리. 2016.10.5.)

### 화전 일구던 일, 울력

화전농사 지어서 가을이면 산꼭대기에 가서 저 오고 그랬어요. 같이 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저 오는 거지요. 오늘은 누구 저오고, 내일은 또 누구 저오고 했죠. 화전은 통골이라고 정자리로 올라오는 첫 번째 골 있잖아요. 그 골이 기령골까지 올라왔어요. 골이 돌아서. 그 골이 3km는 될 거예요. 상당히 길어요. 거기 가서 저녁때면 지고오고 했으니깐요.

(지도를 보여주면서)옛날에는 이게 다 땅이라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요만치만 농사를 지어요.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면 기령골이에요. 여기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콩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고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 4km는 넘을 거예요. 통골에는 사람이 많이 산 것이 아니라, 대여섯 집정도. 원래는 여러 집이 살았는데 우리 여기 이사 왔을 때는 두 집인가 있었어요. 화전정리 할 때, 70년대. 그때 다 나온 거지요.

울력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일을 해서 지계에 곡식을 지고 내려온다.



쌍겨리 밭갈이(사진 심영춘)



씨앗 날기(사진 심영춘)

## 주춧돌 마련하기, 울력

옛날 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조사료가 따로 없었다. 지금처럼 곡물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높은 산에다가 풀을 베어서 말린다. 풀을 베어서 단을 묶어 놓으면 처서가 지나 가보면 풀이 바짝 마른다. 그러면 동네사람들이 울력을 해서 지계에 저서 소를 먹인다. 이것을 주춧돌이라 했다.

산에 올라가서 칩냉쿨이라든가, 소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풀을 베어서 몇 단씩 나무에다가도 가려놓고 한다. 그래 놓고 겨울에 가서 저 오는 것이다. 혼자 가서 매일 저 오면 힘들니까 여럿이 가서 저 오는 것이다.

그래 오늘은 누구네 꺼 저온다. 내일은 누구네 꺼 저온다. 그렇게 날을 받으면 그 집에서 막걸리도 하고, 막국수도 마련하고, 떡도 해놓고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풀을 저오면 먹고 놀다가, 그 다음날은 다른 집에 가서 또 하고 그랬다.

풀을 베는 것은 집집이 가서 한다. 풀이 많은 곳을 찾아 각자 산에 가서 미리 풀을 베어 단을 묶어 잘 마를 수 있도록 이곳저곳에 가려 놓는 것이다. (제보자: 장근성(남, 63) 정자리 1반)

## 호미씻이

호미씻이는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지 않았다. 막걸리 해 놓고 각종 음식도 해놓고 동네사람들이 모여 먹으며 놀았다. 장소는 놀기 좋은 물가 같은 데서 했다. 동네사람 다 모이지는 않고 그냥 모이는 사람만 모여서 호미씻이를 했다. 술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했다. 상머슴 뽑고 그런 거는 없었다. 여기는 머슴 둘 정도로 큰 농사꾼이 없었다. 나무가 크니까 약초가 자랄 수 없다. 나무가 커서 그들이 지면 약초가 자라지 못한다.

## 숫가마골

옛날에 여기 통천 김 씨가 와서 숫을 시작했다. 보지는 못했다.

### 농목하기(폼앗이나무하기)

정자리에서는 예전에 나무를 할 때 혼자 하기도 했지만, 능률을 높이고 공동체의 협동심도 이어가기 위해서 폼앗이로 하기도 했다. 몇 집에서 폼앗이두레를 만들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나무



나무 자르는 장면(사진 이금화)

를 했다. 그렇게 여럿이 함께 해서 나무를 가리로 해놓고 겨울이면 땔나무로 썼다. 인원이 많으면 한 차례씩만 돌아가도 한 겨울을 난다. 인원이 적으면 두 차례 세 차례씩도 하고 그랬다. 일 년에 두 번을 했는데, 가을에 한 번하고 봄에 한 번을 했다. 봄에 한 나무로는 여름을 나고, 가을에 한 나무로는 겨울을 날 수 있었다. 특히 봄에 하는 것은 농목(農木)한다고 했다. 농사 때 쓸 나무라는 뜻이다. 누가 농목하자 그러면 모여서 하는데, 누구네부터 하자고 하면 그렇게 시작했다.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돌아가며 보통 한 다. 어떨 때는 나이 상관없이 섞여서도 하지만, 대개는 또래들이 서로 편하니까 또래들끼리 모여 하는 것이다.

해당 집의 주인이 나무를 쌓아놓을 장소를 정해주면, 각자 산에 가서 한 짐씩 해 와서 그 장소에 나무를 부린다. 그리고 막걸리 한잔 씩 먹는다. 그리고 또 산으로 가서 한 짐씩 해오고 그런다. 풀 그거 퇴비하는 거나 똑 같다. 퇴비할 때도 장소를 정해 놓고 헤어져서 산에 가서 풀을 한 짐씩 해서 가져다 놓고 그러는 거나 똑 같다.



장소는 나무가 많은 산 어느 곳에 장소를 잡는다. 여기는 시골이니가 어디를 가도 나무가 많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워낙 공출을 많이 해서 민둥산이 됐지만 여기는 산에 나무가 많았다.



나뭇가리

나무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는 씨름도 하면서 장난을 하기도 했다. 일이 끝난 저녁에는 술을 한 잔씩 먹고 놀기도 하였다. 풀을 썰 때는 소리도 하였다.

나무를 하러 갈 때는 지게작대기로 지게목발을 두드려 장단을 맞추면서 각장 아는 노래를 부르곤 하였다. 아무나 하고 싶은 노래를 한다. 산을 오를 때 힘이 드니까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다. 특별히 정해진 놀이나 민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무는 단체로 끌고 오거나 하는 것은 없고 각자 지게에 지고 다녔다.

봄에는 2월이 지나 눈이 좀 녹으면 농목을 한다. 보통 4월 초에 한다. 여기는 4월 초가 지나야 눈이 녹는다 (제보자: 장근성(남, 63) 정자리 1반)

### 나무하기(발구)

나무를 할 때는 지게지고 낫을 들고 산에 가서 했다. 봄 되면 여름 나무를 하러 갔다. 이때는 십여 명씩 모자를 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나무를 했다. 나무 하러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기는 했으나 지게를 엮어 상여놀이 할지는 않았다.

산 깊이 가서 나무를 했는데 거리가 멀고 힘들면 예전엔 발구를 했다. 소를 끌고 가서 나무를 묶어 끌고 오는데 이를 발구라 했다. 발구질을 해서 나무를 끌고 왔다. 발구는 나무를 묶어 꾸민다. 나무를 끌기 위해 만든 나무 썰매이다. 나무를 양쪽에다 대고 이렇게 동여를 매고 해서 소를 메

위 가지고 끌고 내려온다. 나무를 베어놓고 소를 끌고 올라가서 발구를 했다. 발구는 통나무도 하고 나뭇가지도 했다. 발구는 바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밧줄로 묶는다. 지게로 지고 오는 것보다 많이 가지고 오고 힘이 들지 않아서 나무할 때 했다.(이상복(남, 82) 매봉재, 2016.7.21.)



나뭇가리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노는 아이(사진 이금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서까래와 같은 통나무 두개를 ‘발고’라고도 하는데 달구지의 전신이라고도 할 원시적인 연장이다.

사다리 모양으로 위는 좁고 아래쪽이 벌어지도록 연결시킨 모양인데 앞쪽에는 가로대(명예)를 박아서 소 등에 얹으며 뒤의 양쪽에는 짧은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역시 가로대(달애)를 붙였다. 이 달애는 실린 물건이 흘러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땅에 닿는 달애의 아랫부분은 지면에 평행이 되도록 깎아준다. 이렇게 해야만 저항이 적어 눈이나 얼음 위에서 잘 미끄러진다. 발구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길이는 3~4m이며, 너비는 1m 내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달애에, 두개의 바퀴가 달린 작은 달구지를 연결시켜서 끌기도 한다.

달구지의 사면에는 낮은 널벽을 세운다. 무게는 무겁지 않으나 부피가 큰 것을 실을 때에는 달애에 또 다른 발구를 잡아매어 운행하기도 한다. 또한 ‘똥뒤’라고 하여 긴 통나무 위에 짧은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Y자 모양으로 한쪽이 벌어진 틀을 박아 달애에 연결시키기도 한다.

앞이 벌어진 부분에는 물건이나 곡식이 담긴 광주리 따위를 엮는다. 발구는 대체로 얼음이 깔리거나 눈이 깊어서 달구지를 이용할 수 없는 곳

에서 많이 쓰이는데, 함경도를 비롯한 평안도의 산간지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무게는 20kg 내외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풀베기와 풀 썬는 소리

풀을 썰 때는 작두로 썬다. 그때 풀을 베길 때 나무가 큰 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게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그거를 베기는 사람이 소리를 준다. 그때 소리는 “어러어라 우라리오.”라는 후렴을 하면서, 가령 피나무 같은 경우는 연하잖아요. 그러면 재미있게 하려고 “피나왔다 피나무 어러어라 우라리오” 그리고 뽕나무는 “방귀꿨다 뽕나무 어러어라 우라리오”라고 했다. 이렇게 나무마다 그 특징을 살려 소리를 준다. 소나무도 있고 갈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밟는 사람이 두 명인데 부드러운 것 들어갈 때 세계 콧 밟으면 다리가 푹 꺼지니까. 부드러운 것 들어갈 때는 “다 썩었다...” 뭐 그렇게 하지요. 개암나무는 “오고라뽕짝 개암나무”라 하던가.

그렇게 풀을 썰다가 풀이 많이 쌓이면 그 위에 멍석을 깔아 놓고 그곳에서 모여 씨름도 뜨곤 하였다.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피곤한데도 또 그렇게 놀았다. 그러면서 막걸리도 한 잔씩 먹고 재미있게 일을 했다.

풀은 가을풀인데, 처서 지나서 가을철에 베다. 그렇게 풀을 해서 썰어 쌓아놓으면 풀이 벌겍게 뜬다. 벌겍게 뜨면 그 자체로 균이 생겨 발효가 되어 소에게 면역력을 길러준다. 그러면 독특한 냄새가 난다. 발효가 돼서 벌겍게 뜨면 겨울에 쇠스랑으로 찍어내어 삼태기에 담아 마구간에 깐다. 몇 삼태기 해서 마구간 아래 퍼서 깔아주면 소가 그 위에 똥오줌을 싸고 짓이겨 거름을 만든다. 풀을 깔아주면 소가 좋아한다. 지금도 그렇게



어미소와 송아지(사진 이종섭)

하면 소가 병도 없이 잘 크다. 그 거름을 밭과 논에 저 날라 퍼서 곡식을 길렀다. 옛날에는 비료도 없고 농약도 없었지만 거름을 퍼서 곡식을 기르면 잘 컸다.

나무의 종류는 개암나무, 참나무, 피나무, 뽕나무, 구수맹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사시나무, 신타나무, 찢레나무, 가시나무, 살구나무, 소나무, 장재넝쿨 등을 모두 사설을 넣어 불렀다.(제보자: 장근성(남, 63) 정자리 1반. 2016.8.3.)

큰 나무가 들어갈 때 “어라 우라리오”라고 한다. 풀 썬는 소리는 풀을 썰면서 해야지. 그냥 나오나. 풀을 썰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하면 저절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은 생각이 안 나 다 잊어먹어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 하도 오래돼서 나도 잘 모르겠네. 20대 때 한 건데. 풀을 안 한지 40년 됐는데 뭐. 그러면 그걸 적어가지고 해야지. 그냥 해가지고는 몇 가지를 아나 뭐. 그래도 풀을 썰면 저절로 나올 건데.

그게 나무가 여러 가지잖아요. 나무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도도독 개암나무, 벌벌 떠는 사시나무, 목상의 노리개 소나무, 여자 방구 뽕나무, 잔치가 났구나 국수나무, 대장의 망치자루 물푸레나무, 기어가는 구나 느릅나무, 무당의 신에 신타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부자 났구나 장자넝쿨.

그런데 이게 하는 소리가 있거든.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나오겠는데. 왜냐면 이걸 다 외워야 되거든. 일을 하면서 나오지. 그냥은 안 나와. 그리고 나무를 보면서 이게 소리가 나가는 거거든. 이게 그냥은 안 돼요. 그렇게 소리를 하면서 나가다가 지게 작대기만한 나무가 들어가면 “에라 우라리아”라고 소리를 지르면, ‘우라리아’는 힘을 주라는 거거든요. 큰 게 들어가니까 힘을 줘서 콧 밭아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그걸 하면서 해야지 그냥은 안 돼요.

에라 우라리아  
오독또독 개금나무

밤을 넘어 밤나무  
 강을 질러서 길이나무  
 방구 꿏구나 뽕나무  
 잔치집에 국수나무  
 대장에 물푸레나무  
 기어간다 느릅나무  
 별벌 떠는 사시나무  
 무당의 신이 올라 신탁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모국 싸개 노리개  
 부자 났구나 장재널쿨  
 ~~~~~

이렇게 하면서 사이사이에 후렴이 들어가야 돼요. 어찌 됐던 실제 하면서 해야 흥이 나서 하지 그냥 하면 잘 안 돼. 발가는 소리도 갑작스레 하라 하면 안 되잖아요, 소를 몰면서 해야 제대로 나오지.

끝에 여기는 안 하는데, 기린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퇴비할 때 다 썰고 나서는 퇴비 위에 명석을 퍼놓고 씨름을 하곤 해요.

여기는 씨름은 안 하고, 여기 풀 썬는 소리 풀을 썰면서 하면 정말 흥겨워요. 사람이 많으니까. “에라 우리리오”하면 작두를 짚는 사람이 “으쌰”하면서 냅다 밟지요. 작두하는 사람은 다른 소리는 내지 않는데, 우리리오는 소리를 내면 큰 나무가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메기는 사람이 우리리오 하면 받는 사람은 힘을 있는 대로 주라는 소리기 때문에 ‘으쌰’하면서 작두를 세게 밟아요. “쌰웠고라리오”그러면 이거는 물렁하다 그러니 얇게 밟아라. 그러니까 나무 들어갈 때마다 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사실상 그냥 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노래를 하면서 풀을 챙기는 사람이 무슨 나무가 들어간다 무슨 나무가 들어간다고 알려 주는 것이지. 그러면서 큰 나무가 들어가면 우리리오라 하면서 힘을 주라는 소리고, 쌰웠고라리오하면 힘을 덜 주라는 소

리고 그런 거지요. 후렴은 없어요. 그냥 나무만 불러줬지. 그런데 실지로 풀 썬는 현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지요. 그런데 벌써 이게 이삼십년 전이라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우리 나이 되는 사람은 알거야.

밭가는 소리도 소로다 밭을 갈면서 해야지. 앉아서 해라니 돼. 사람이 끌어도 끌면서 해야지. 이거는 움직이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는 안 돼.

그러니 그때 집 다질 때 지경소리 같은 경우도 지경을 다지면서 해야지 흥이 나면서 땅을 집터를 다지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움직이면서 해야 돼요. 저는 지경다지기는 못해요. 그전에 여기 범용 아버지가 했는데 지금 그 양반 돌아가시고. 그 지경다지기는 소리가 달라요. 상여소리도 다르고요. 그런데 지경다지기는 어디서 따온 건지 모르겠어, 상여소리는 회심곡을 탄 것이거든요.

나도 어렸을 때 집터 다지는 거 보고 지경다지기 하는 거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집 지으면서 지경다지기 하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지경은 돌멩이로 했어요. 큰 돌멩이로 해서 여덟 줄을 매 가지고 잡아댕기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하지요. 옛날에 통나무는 가볍다고 그 래가지고 돌멩이로 했어요. 여기는 큰 돌멩이로요. (제보자: 심덕용(남, 63)2016.8.3.)

## 소먹이

소먹이는 대부분 옥수수짚이나 벼짚 그런 걸 했고, 모자라는 것은 산에서 풀 베어 났다가 썼다. 주춧풀이 유용하게 쓰였다.

여름에는 아이들 학교 갔다가 오면 소고삐를 잡고 풀을 뜯기기도 하였다. 장바를 묶어서 갯가에 가서 매놓기도 하였다.

소는 산에 들러 놓아 풀을 뜯다가 저녁이 되면 자기들끼리 집으로 내려온다.



## 품앗이 나이

옛날에는 나이 18살만 돼도 장정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서른 살이 돼도 아이들이라 그러지요. 16살만 돼도 벌써 품앗이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 아이들 16살짜리 데려다 일을 시키면 아마 엄마들이 까무러칠 거예요.

## 산채

정자리는 산채재배도 많이 한다. 산나물을 재배하면 봄 두 달 만 농사를 지으면 나머지는 일 년 내내 일이 없다. 또 삼씨를 산에다 뿌리면 장뇌삼을 얻을 수 있다.

## 마을체험장



마을체험의 이모저모(사진 심영춘)



마을체험의 이모저모(사진 심영춘)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지어 준 것이다. 마을에서 외부 사람들 오면 잘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농사체험도 하면서 손님을 받아서 소득 올리라고 지어 준 것이다. 새농촌건설운동을 했는데 그 후속 지원사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 벌

벌을 많이 친다. 벌을 치던 사람이 죽으면 벌도 다 어디로 간다. 그래서 벌에도 상복을 입혔다. 정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아프면 가장 많이 쓰던 방법이 꿀이다. 꿀을 먹이든가 바르든가 해서 치료를 했다.

## 고기잡이

옛날에는 족대로 잡았다. 지금은 고기가 없다. 뭐 피라미 밖에 없는데 다른 도구를 쓸 필요가 없다.

## 사과작목반

정자리에는 여러 집이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 고추작목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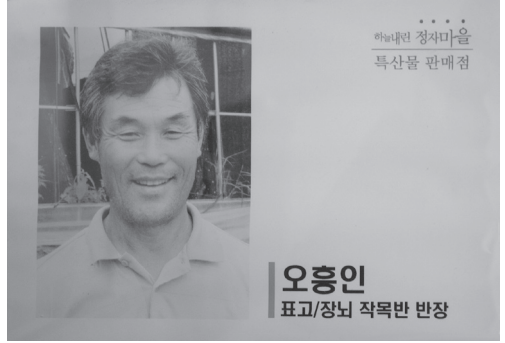
고추작목반이 있어 매달 한 번씩 회의도 하고, 매년 한 바씩 천렵도 한다.

## 표고, 장뇌 작목반

표고 장뇌 작목반이 있어 활동을 하고 있다.



농산물을 싣고 가락동으로 가는 운반차



오흥인 제보자, 표고 장뇌 작목반



---

제8장  
일생의례







## 제8장

# 일생의례

### 기자속

정자리에서는 건강하고 훌륭한 자식을 낳기 위해서 비는 풍속이 있었다. 산에 가서 딸만 낳으면 아들 낳아 달라고 물 떠놓고 빌고, 장독대에서도 아들을 낳아 달라고 빌곤 하였다. 장독대에서는 정화수를 떠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도 빌었다. 어디 믿을 곳이 없으니 옛날에는 참 많이 했다. 산에는 일정하게 자신이 정하는데 바위 밑 같은 장소이다. 그리고 해 뜨는 곳에서는 안 빌고 해 넘어가는 쪽으로 있는 예쁜 바위를 선택했다. 그런 밑에 가서 정성을 드리는 사람이 옛날에는 많았다. 마을에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곳으로 선택했다. 그래 산신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빌고 덕을 봤다고 하면 태몽으로 나타났다. 태몽은 호박을 덩굴째 안았다. 감을 안았다. 대추를 안았다. 뭐 그런 꿈을 꾸었다고 했다. 이런 거는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집에는 자식을 못 낳는 집이 있다. 그런 사람이 가서 빌었다. 옛날에는 가리는 것도 많았다. 부정 들어 온다고 그거 웬만한 사람들은 아무나 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려가면서 산에 가서 정성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금산골이라고 있는데, 금봉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렇게 이름이 아름답고 유명한 산 아래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한다. 옛날에는 그런데 가보면 정성 드린 곳임을 알 수 있다. 돌도 예쁘게 놓고, 있는 사람은 초도 켜다. 옛날에는 초가 어디 있어요. 그 벌 잡아서 밀이라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

---

서 초를 만들어서 불을 켜놓고 그랬다. 그래 가보면 정성 드린 곳을 쉽게 알 수 있다. 기도를 할 때는 메도 지어 놓고 한다.

### 태아예지법

태몽을 꾸어서 큰 밤이나 대추나 이런 꿈을 꾸면 남자 아이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아이다고 했다. 감 같은 것 크면 그게 태몽이다. 닭이 날아들었다고 하면 여자이다. 용꿈을 꾸면 아들인데, 큰 사람이 된다고 했다. 태몽을 가지고 남녀를 점쳤다.

### 임신금기

아이를 가지면 조심하라는 것이 참 많았다. 집에 앉아도 그루터기에는 못 안게 하고, 떡을 해도 복판을 먹어야지 옆에 있는 귀부래기는 먹지 못하게 했다. 어디 막 다니지도 못하게 하였다. 부정이라고 해서 장사(상가)집도 못 가게 했다. 자리 귀통이에도 못 앉게 했다. 먹는 것도 참 많이 조심했다.

### 순산법

옛날에 산모가 아이를 잘 낳지 못하면 마가목으로 지팡이를 해 놓았다가 방에 들여 놓는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바로 밖으로 내갔다. 마가목 나무를 아기 낳는데 갖다 놓으면 속까지 금방 다 나온다. 피마자대궁도 그렇게 했다. 아이 잘 낳게 해달라고 마가목을 용마루에 달아매놓는 사람도 있다.

아이가 거꾸로 나오면 낳지 못하니까 손으로 아이를 도로 넣어서 바로 잡아당겨 낳기도 한다.

### 출산음식

미역 먹는 사람은 미역을 사다가 먹는다. 미역도 줄기 많은 것으로 산다. 사다가 집안에 달아매 놓았다가 아기 낳으면 끓여 먹인다. 부잣집은

10오리, 못 사는 집은 3오리정도, 그저 어지간한 사람은 5개 정도 미역을 사다가 끓여 먹는다.

미역을 사올 때는 긴 것으로 한 발씩 넘는 것을 사온다. 그것도 꺾지 않고 휘어가지고, 그것도 물을 조금 뿌리면 눅눅해서 잘 휘어진다. 그렇게 휘어가지고 묶어서 가져와서 집 옆에 어디 달아뒀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 걸 풀어서 미역국을 끓여서 주곤 하였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도토리, 옥수수, 조 뭐 그런 것이었다. 그것도 넉넉지 않았다. 비료가 없으니까 옥수수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곡식이 잘 안 되었다. 60년대도 여기 산에 가서 도토리 주워서 먹고 산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먹을 게 없는 데도 아기는 계속 가지고 나왔다.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아기가 배가 고프니까 엄마 젖을 깨물었다. 그러면 아이 젖을 먹다가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치곤하였다. 쌀밥이라도 먹어야 아이 젖이 잘 나오는데, 도토리와 나물 이런 것만 뜯어먹고 사는데, 아이가 울면 젖은 물리지만, 젖이 안 나오니 아이가 젖을 깨물 수밖에 없다.

### 출산처

아기를 낳으면 지직을 가져다 깬다. 피가 묻으니까 쉽게 닦으려고 한다. 그래 아기를 낳고는 그 지직을 끌어내었다.

옛날에 못 사는 집에서는 아기가 나올 때 뻘는데도 산에 도토리를 주우러 갔다. 도토리를 줍다가 아기가 나오면 산에서 아이를 낳아서 안고 집으로 왔다. 그렇게 옛날에는 아이 낳기가 쉬웠다. 옛날에는 일을 많이 하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이 낳기도 쉬웠다. 그런데 지금은 운동량이 부족해서 아이 낳기가 어려워서 제왕절개를 하는 사람이 많다.

### 태처리

집에서 아이들 다 받는다. 아이가 나오면 탯줄을 가위로 끊어서 피가 나오지 않게 실로 묶는다. 아이는 그렇게 실로 동여매서 놔둔다. 그때까

지는 텃줄만 나오고 태는 뱃속에 있다. 그러면 산모가 태 끝을 발에다 밟고 있으면 쉽게 나온다.

태는 아이를 낳고 나오는데, 그렇게 낳아 가지고 짚에다 싸서 묶는다. 3일에 내는 사람도 있고 7일에 내는 사람도 있다. 구석에 놔두면 냄새가 난다. 크기도 꽤 크다. 큰 냉면 대접으로 한 대접은 된다. 그렇게 3일이나 7일 있다가 왕겨로 태운다. 아이가 나올 때 되면 왕겨도 한 가마니 준비를 해 둔다. 그래 왕겨를 놓고 그 위에 태를 짚에다 싸서 올리고 왕겨에 숯불을 한 삽 부어 놓는다. 그러면 불이 왕겨에 붙어서 은근히 내다 피면서 태가 다 타서 없어진다.

## 금줄

금줄은 왼새끼를 꼬아 다는데, 남자 아이를 낳으면 고추, 솔잎 등을 꽃아 두어 발 정도 해서 문 앞에 매단다. 여자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안 한다. 금줄은 7일정도 친다.

## 아이 보러가기

7일이 지나면 이웃에서 아이를 보러 온다. 그러면 옛날에는 팥묵 실을 한 타래씩 가져오는데, 아이 명 길라고 한다. 쌀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보러오면 큰일이다. 아이 보러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옥수수밥 같은 것 해서 대접하고 그런다. 옛날엔 조로 밥을 해서 대접하기도 했다. 있는 집은 쌀로 밥을 해서 대접하였다.

## 난시와 길흉

아이를 낳는 시를 봐서 낳는 사람도 있다. 배운 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관 같은 사람이나 학자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태어날 아이가 몇 날 며칠 무슨 시에 태어나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산모가 참아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되는 것 같다. 예전에 손자를 낳 때 아는 분이 한 30분만 더 있다가 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래 왜냐고 했더니 세상에 태어나서, 그 시가 태어날 아이에게 맞는다고 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아이를 한 30분 늦게 낳을 수 있냐고 했더니, 의사와 상의를 하더니, 30분 늦게 낳았다. 그래서 손자를 생각지도 않게 시를 맞춰 낳았다. 나중에 커 봐야 알겠지만 그게 좋다고 해서 시를 맞춰 낳았다.

### 삼신상

삼신상은 삼신할머니라고 그래서 7일 만에 그 미역국을 끓여놓고 밥을 해서 올리고 정화수를 떠서 삼신이라는 곳에 가서 절을 하였다. 삼신할머니께 잘 해야 된다고, 아이가 아프고 그래도 삼신할머니한테 미역국, 밥, 정화수를 올려놓고 무릎 꿇고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빌었다. 그 어머니들이 주로 했는데, 옛날에는 그것 밖에 없었다. 급하니까 그렇게 하였다.

집에다가 특별히 신체를 해놓지는 않았다.

### 삼신평이

애 놓고 젓이 안 나오면 삼신평이라고 복술이를 데려다가 많이 했지. 삼신을 달래는 거야. 그리고 메밀묵을 해서 놓더라고. 그러니까 경 읽을 때에 삼신평이야. 그게 밥 해 놓고 정안수 떠다 놓고 그 다음에 미역국도 끓여 놓고 수저 쏴아 놓고 거기다가 비는 거지 뭐. 그것도 잘 하는 사람은 삼일까지 하고 돈 없는 사람은 하루 하고서 끝나고 그냥 가고. 옛날에는 그랬어. 그것도 지금 가만히 보면 복술이 그렇게 하면 쌀 놓지 뭐. 놓으면 다 가지고 가. 그 양반도 그게 수입인 거야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있는 사람들은 요런 그릇에다 쌀을 놓는 게 아니고 큰 그릇에 쌀을 놓잖아. 꽤 크게 그럼 쌀이 꽤 많잖아. 도토리 먹는 시절에 쌀이 이만큼이면 그럼 그게 얼마인데. 그게 그렇게 하면. 지금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말짱 쏴아서 가지고 간단 말이야. 자루를 해 가지고 오더라고 쏴아서

가져가려고. 그 삼신폴이는 안방에 대략 동북쪽으로 차려서 하고 그러더라고.

## 배내옷

배내옷은 있는 사람은 미리 해서 입혔다. 없는 사람은 어려웠다. 옛날엔 속옷도 못 입던 시절이었다. 겉옷만 입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노인들 뒤를 따라가다 보면 거시기가 다 보였다. 그러면 아이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놀리기도 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 생각이 나는데, 저 양짓말이라고. 거기 사시는 박○○씨라고 있었어요. 그 분이 키가 많아 커요. 아, 그런데 여름에 배옷. 여기서 배를 해가지고 짜가지고 해 입는데. 뭐 옛날엔 다 그랬지요. 그거 뭐 속에 팬티도 없이 그것만 입었는데, 길을 걸어가면 흰하게 다 보이지 뭐. 그때 그걸 보면 그게 왜 그렇게 우스웠는지. 그걸 뒤를 쫓아가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러면, 조그만 아이들이 그런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런 배옷이라도 깨끗이 입고 다니는 사람은 괜찮았어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 배냇저고리

옛날에 애들 낳으면 옷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면은 어무이 저고리나 치마로 애들 배내옷을 해 입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미리 해 놓았다가 입히고. 배내옷 같은 경우 안 버리지 두었다가 망가지면 버리지. 그래도 보관은 해둬.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집도 있고.

## 기저귀

그때 있는 사람들은 소창이라고 했지. 기저귀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한 필씩 끊어다가 소창을 만들어가지고 갈아 채우고 그러는데, 없는 사람은 소창을 어디서 사.

## 이유식

엄마가 잘 못 먹으니까 젓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뽀얀 물은 쌀하고 옥수수 밖에 없다. 옥수수를 푹 끓이면 걸직한 물이 뽀얏다. 그러면 그걸 떠서 먹였다. 또 어떻게 쌀을 구하면 쌀을 넣어서 푹 끓인다. 그렇게 푹 끓여서 뭉개어, 그러면 맹물처럼 된다. 그러면 그걸 숟가락으로 떠서 아이에게 먹였다. 그렇게 키운 애들도 지금 보면 잘 크고 있다.

## 아명

여기 그 집들이 청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아이를 낳으면 죽고 아이를 낳으면 죽고 하니까, 바우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 왕바우, 바우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너무 많이 낳으면, 그제 먹을 것은 없어도 아이는 일곱 여덟을 낳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낳지 못하게 하느라고, 막동이라고 지었다. 그래 이 아이 낳고 안 낳으려고 막동이라고 지어도 또 낳았다.

그 다음에 간난이 그렇게도 짓기도 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치적으로 아이 이름을 지었다. 바우는 잘 안 깨지고 잘 안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죽으니까 바우라고 지은 것이다.

## 장수기원

아이들 오래 살라고 바위에 이름도 새기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전에는 복술이라고 있었다. 복술한테 가서 아이 명 좀 길게 해달라고, 품을 팔아서 쌀 한 말 해서 짊어지고 복술한테 가서 했다. 그러면 명주를 잘라서 거기에 생년월일과 이름을 써서 그곳에 걸어놓고 온다. 그러면 그 집서 수양아들처럼 해 가지고. 그것도 일 년에 9일 놀이 하듯이, 삼월 삼짚날이나 9월 9일에 많이 했다. 그래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보면 괜찮다. 거기다 그렇게 명을 해서 팔아준다고 그랬다. 그날이 되면 이름을 부르면서 축원을 하고 그랬다.



그전에는 마을마다 복술이가 많았다. 그리고 갈 때가 옛날에는 그 무당도 드물었다. 무당이 산골에 없었다. 그래 복술이가 복을 치면서 그러는 것이 복술인데, 아이가 좀 아프면 거기 가서 점을 쳤다. 아이가 이렇게 드러누워 아파 앓고 있는데, 이거 좀 봐 달라고 그러면, 손으로 육갑을 짚어 가지고 알아맞췄다. 그러면 뭐가 동토가 났다든지, 뭐 들어온 물건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점을 해서. 참 그게 다 살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면 데리고 온다. 그러면 쌀을 떠놓고, 삼신을 해놓고 한다. 복술이가 쌀을 두 주발을 넣어라 든지, 세 주발을 넣어라 든지 한다. 그렇게 품을 팔아 쌀을 사와서 넣는다. 거기다 명을 길게 해야 된다고 해서 실타래도 둘둘 말아서 쌀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고 복술이가 복을 뚫고 치면서 축원을 하고 간다. 축원을 하고 갈 때는 그 쌀을 자루에 모두 쏟아 부어서 간다.

그 쌀은 복술이의 일당 수입이다. 그 사람은 그걸 가져가서 밥을 해 먹는다. 우리는 못 먹어도 그렇게 했다. 그게 그 당시 법이고 하나까, 당연시 했다.

### 치병(복술이 귀신 가두기)

대도 잡고 그랬다. 그럴 때는 집안에 누가 아프면 복술한테 가서 점을 한다. 가령, 우리 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파서 맨날 드러누워 계신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 복술이가 점을 한다. 그리고 아 뭐 귀신이 났는데, 귀신 잡이를 해야 된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 먹기 위해서 귀신 잡이를 해야 한다고 그러다. 그러면 귀신대를 나무를 석자로 끊어서 끌로다 나무를 열두 구멍 또는 아홉 구멍 그렇게 뚫는다. 동굴동굴하게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는다. 그렇게 하면 대잡이가 온다. 그거는 엄청나게 큰일이다. 옛날에는 복술이 귀신 잡이를 한다고 하면 큰일이었다. 구경을 가면 무서웠다. 그러면 대 받는 사람이 거기다가 문창호지를 얇게 요만큼 하게 한 뼘씩 되게 썰어서 가져다 놓는다. 그러면 복술이가 축원을 해대면서 귀신을 내 부르면서 그러다. 그러면 대 받는 사람

이 올라 뛰고 내리뛰고 마당에도 나갔다 방으로 들어왔다 하면서 어떤 때는 청명에 개 뛰듯이 한다고 하는데, 그 대받는 사람이 그렇게 개 뛰듯이 한다. 그 대 끝거리로 치면은 아프다. 그러면 다듬잇돌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로 딱딱딱딱 치고 그런다. 그거는 대받는 사람이 나가서 귀신을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귀신을 잡아가지고 오면 그 종이를 뿔뿔뿔 만다. 그렇게 말은 종이를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그 종이가 깡충깡충 막 뛰는 거다. 그러면 나무에 구멍을 뚫은 곳에 넣는다. 길게 왼새끼를 꼬아 둔다. 그 다음에 진흙을 파다가 반대기를 만든다. 그리고 배 형질 같은 천을 이 만큼 하게 오린다. 그래 가지고 그 종이를 손바닥에 올리면 깡충깡충 뛰는데, 그때 대 받는 사람이 그걸 그 구멍에 집어넣고 진흙 갠 것으로 구멍을 막고 천으로 그 위에 올린다. 그리고 그 위에 왼새끼로 세 번을 둘러 감는다. 감아서 꼭 묶는다. 아홉 구멍이면 아홉 번을 그렇게 한다. 밤새도록 그렇게 한다. 밤 10시 쯤 되면 밤참도 해먹고, 그렇게 밤을 난다. 그렇게 하고는 귀신을 다 잡았다고 괜찮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 복술이 저 산의 동쪽이니 뭐니 해서 가서 파묻으라고 시킨다. 그러면 귀신을 가둔 나무토막을 그곳에 가서 묻는다. 그 절차는 어려서 쫓아다니면서 모두 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걸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간다, 또 사람들이 많아야 재미가 있다. 대받고 막 뛰고 깡충깡충 돌아다니면서 그걸 그 구멍 속에 바로 넣으면 좋은데, 이걸 이렇게 만지다가 떨어뜨리면 귀신이 이렇게 나가서 막 뛰는 거라고 했다. 그러면 또 그걸 잡아서 넣는다.

## 칠일

아기 낳고 7일이 되면 미역국 끓여놓고 정화수 떠 놓고 밥 떠놓고 삼신한테 빈다.

이웃집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7일이 되면 아기를 보러왔다. 그 전에는 못 왔다. 이날 아기를 보러 올 때는 실도 한 타래 가지고 오곤 했다. 와서 아기를 보고 “장군감이네. 튼실하네.”등의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아

주머니들이 오면 미역국에 밥을 대접해서 보냈다. 미역 한 오래기에 물을 몇 동이 부어서 푹 끓인다. 그래 가지고 물을 흥건하게 해서 밥을 말아 잡숫고 갔다.

## 백일

옛날에는 백일이 없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지도 않았다. 백일이라는 것은 요 중년에 있었지. 예전에는 없었다.

## 첫돌

첫 생일인데, 이때는 떡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이웃사람들 오라고 해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 없는 사람은 그럭저럭 넘어가고, 있는 사람은 떡이라도 한 말 해서 먹고 그랬다. 첫돌에는 돌잡히기를 했다. 상에다가 돈도 놓고, 연필도 놓고, 실도 놓고, 쌀도 놓고, 뭐 별것 다 놓는다. 그리고는 아기가 어느 것을 잡는지 봤다. 그리고는 실을 쥐면 명이 길고, 연필을 쥐면 문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는 놀이이다.



돌

## 수수무설미

수수무설미는 한 살부터 꼭 십 년을 생일마다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명이 길어 죽지 않고, 잘 산다.

## 금기와 부정

아기를 낳았을 때는 절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집을 방문하면 안 된

다.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은 줄 모르고 동네사람들이 방문을 활짝 열었다가 아기를 보고 놀라 열린 문을 닫고 갔는데, 그 이후 부정을 댄지나 증에 소아마비에 걸렸다.

그 얘기 하나까 생각나는 데. 장가를 들어 살면서 17일인데 장인의 소상이 되었어. 옛날에는 소상 대상해서 삼 년 상을 치렀잖아. 그랬는데 집의 딸이 14일에 낳았는데. 그러니까 4일 있다가 장인 소상이 된 것이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3일 됐는데, 미역국을 잔뜩 끓여 화로에다 불을 담아 놓고, 말을 했지.

내가 이제 내일 가서 장인 차사 제사 지내고 한 일찍 12시 쯤 올 테니까. 거기서도 다 아니까 내가 간다면 붙잡겠어. 가라 그러겠지. 그리고 처갓집을 딱 들어가는데요. 그 소상인데. 닭을 잡아서 모가지를 잡고 털을 뜯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걸 보니 께름하더라고요. 마음적으로 야 이게 뭐 좋지 않네. 께름하게 이게 뭐 생각이 나나.

그래서 다 이제 제사를 지내고 어차피 일찍 와야 하잖아. 아, 글썄 내가 집에 오자마자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울어도 보통 우는 게 아니었다. 밤낮으로 들이밀어 울면서, 엄마가 젖이 나오든 게 젖이 말라 버리는 거예요. 거 참 이상하데. 그래서 젖이 안 나온대. 아니 어제는 젖이 팔팔 나와 빨아 먹었는데, 젖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 내가 집에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

이봐, 처갓집에 갔는데, 문턱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닭을 이렇게 털을 마주 뽑는데. 그게 좀 그렇더라. 그랬어.

그 얘길 하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아기 낳은 방에 가서 마누라한테 그 얘기를 했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그 날서부터 애가 우는데, 모질 게로 드러누웠다는 거야. 태어난 지 5,6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 내가 봐도 그래. 어 참 이상하다. 계속 우는 거지 뭐.

또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왜 그 얘기를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모질 게로 이렇게 드러누워서 애가 우는 데 보니까요. 궁뎅이에, 그게 진짜 부정이야. 닭똥집 있잖아요. 닭똥집처럼 엉덩이

에 그렇게 딱 자국이 붙어 있어요. 꺼떻게. 닭똥집처럼 잘록하고 새까맣고 그렇게. 그래 우리 집사람이, 아니 엉덩이에 어린애 살에 닭똥집 같은 게 붙어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부정을 땀구나. 그랬지.

이걸 해볼 수 없이 삼신풀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 그때서 생각나더라고. 그래 삼신을 달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 매봉재 김 씨라고 복술이가 있는데, 그 양반이 원대리로 갔어요. 그래 그 양반을 오라 그래 가지고. 메밀묵 뭐 이런 걸 해놓고 삼신풀이를 했어요.

## 중매

혼인이야 가까이서도 하고 멀리서도 하고 그랬지요. 그때는 혼인을 하면 권애비라고 있어요. 남자측에서 그 사람을 세워서 여자 측에 보내서 그 집 딸을 줘서 사위 삼으라고. 그러면 금방 허락을 안 해. 그것도 몇 년



혼례(사진 장근성)

걸려서 되는 것도 있고, 몇 달 걸려 되는 것도 있고, 일 년 걸려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옛날에는 연애라는 게 어디 있어요. 처녀 총각이 어디서 서로 쳐다봐요. 그렇게 해서 날 받아서 잔치를 했죠.

## 가마

가마는 남자 여자가 다 타죠. 갈 때에 먼 데는 계속 타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 걸어가다가 색시네 집에 거반 가면 타고 들어가지. 그 다음에 색시 데려올 때는 계속 태워가지고 오고. 걸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당

시는 인제 새손패라고 있어. 새손하고 가마메고 가는 사람들을 힘 좋고 이런 사람들을 아주 골라서 얻어가지고 그렇게 갔지. 가서 올 때에는 색시집에서도 아주 그렇게. 가는 것은 상각이고 오는 것은 후각이야. 그러면 후각으로 색시집에서도. 색시 메고 오게 사람을 너이 씩 보내. 그러면 들썩 메고 가며 교대를 하는 거지. 가다가 힘들면 교대를 하고 교대를 하고. 그러면 신랑집에서 너이면 여덟이잖아. 그러면 여덟이서 먼 데서 여자를 가마 태워 가지고 왔지.

여자 쪽에서 결혼식을 하고 같이 오는 거지. 색시 집에서 그 전날 가서 자고. 아침에 결혼식을 하는 거지. 구식으로. 그래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불일 이런 걸 저런 걸 다 보고, 짐 준비되면, 색시 측에서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는 거지 뭐.

## 공합

공합이 안 맞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공합을 보는데, 흙이면 나무, 흙에는 나무가 잘 크잖아. 이게 공합이 맞는 건데. 그런데 흙인데 불이다.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맞는 거다. 그러면 결혼을 시키지 않았다. 생년월일을 따서 오행으로 보는 거다. 그래 그게 안 맞는 사람이 결혼을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 데릴사위

데릴사위도 있었지요. 그 당시에. 데릴사위는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 살아야 하는데, 일할 사람은 없으니까. 딸이 있으면 데릴사위를 드리는 거지.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마음은 착한데, 남자가 한 스무 살이 많은 사람을 데릴사위로 하더라고. 그래도 잘 살더라고. 그러면 늘그막에 한 쪽이 찌부러지지. 뭐 좋을 수가 있겠어. 젊을 때야 모르지만 늙으면 확 달라지지. 비슷한 나이끼리 결혼은 해야 해.

## 사주와 함

사주가 그 혼인 허락이 떨어지면, 남자 쪽에서 그 사주를 써 가지고 생년월일 난시 뭐. 그 다음에 옷, 그 함에 넣어서. 함에비라 그러지. 그렇게 해서 하얀 소청으로 걸머지게 해서 여자 집으로 가는 거지 뭐. 여자 집



폐백(사진 이금화)

에 가면 상에다가 물을 떠놓고, 창호지 깔고, 그 함을 올려놓고 그 집 친척들 오라고 해서. 우리 딸 함이 왔는데 구경하라고 하지. 그러면 하나하나씩 꺼내면서 설명하고, 뭐 뭐를 잘 해 보내왔다니 그러지. 옛날에는 잘 해 보내는 게 어디 있어 옷이나 해 보내면 잘 해 보내는 거지. 그래도 옛날에 있는 집은 금반지를 했어요. 함에다 넣어서 보내요.

사주는 그렇게 해서 보내면 신부집에서, 그걸 몰래 훔쳐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부집에서 그냥 주지 않고 슬그머니 보이는 데 이렇게 놔둬. 그러면 신랑이 가서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슬그머니 그냥 가서 몰래 이렇게 해서 가져 오지. 그거 다 알지 뭐. 신부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신랑이 가져오는 거지.

거기 메 청실홍실이 있잖아. 그러면 그걸 뒀다가 청실홍실을 죽어서 그 횡대 일곱 개 쓰는데, 그 북판에다 청실홍실을 올려 쓰지. 그런데 그걸 두었다가 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살다보면 다 잊어버리고 없어져. 그러면 새로 사다가 청실홍실을 횡대에 올려 쓰지. 붉은 천 밑에다가. 횡대가 일곱 개예요. 일곱 개면 양쪽에 세 개씩이고 북 판에 하나니까. 그러니 그 북판 것에다 청실홍실을 올려 쓰는 거야. 그게 하관할 때 그렇게 놓고 하관하지요. 뜻은 죽어서도 같이 간다는 그런 얘가지.



## 큰상

결혼 할 적에 큰상이라는 거는 남자 여자 같이 받는 것이 큰상인데. 그게 큰상은 평생 세 번 받는다고 그러지. 첫돌 때, 환갑 때, 마지막에 갈 때 그렇게 큰상을 세 번 받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거는 큰상은 큰상인데, 그렇게 큰상은 아니지 뭐.

결혼식날은 이제 색시를 데리고 왔다고 맞상을 해주지. 맞상을 해 주는데, 심술כות은 사람들은 신랑한테 깎두기 큰 게 있으면 깎두기를 큰 걸 놔서 먹이는 거야. 입에 그게 들어가나. 우정 장난치는 거지 뭐.

## 근친과 신랑달기

결혼한 지 3일 만에 근친을 하지. 신랑신부가 같이 처가에 가지. 그러면 처갓집에서는 그 여자 친구들. 그 동네에서 젊은이들이 많잖아. 그러면 그 사위를 달았어. 그것들이 신랑이 오면 고의적으로 더 혼을 내키는 거지. 신랑달기 할 때 그거 인정사정없어요. 삼일 근친을 갔으면 그 젊은 사람들이 복주(복개)에다가 밧줄을 하나 넣고 그리고 복주를 덮어, 방망이 하나하고, 정화수 한 그릇 하고 복주를 덮어서 갖다 놔. 신랑 앞에다가. 복주는 옛날 낫그릇으로 된



혼인사진(사진 장근성)

밥그릇인데 뚜껑이 달렸잖아. 그러면 그걸 열어보면 밧줄이 있잖아. 그걸 자꾸 열어보라니 안 열 수도 없지. 열어보니 밧줄이 있지. 그러면 여기(밭목)에다가 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매고서 한 명이 둘러내면 여기를 이제. 내가 맘이 있는데, 나를 두고 저놈한테 시집을 가. 그런 신랑 단다는 핑계로 복수를 하니 얼마나 아프겠어. 발이 부어.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여기 밧을 때려 가지고, 바로 울무기를 쳐요. 그러니 밧줄이 더 이



정자리 전통혼례1(사진 심영춘)



정자리 전통혼례2(사진 심영춘)

상 안 늘어나잖아. 그러면 옷가락 같은 나무를 넣어 잡아 트니 얼마나 아파. 아이고, 이게 끊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사위를 달아. 그래 아주 죽겠다고 그러면 그 집이 이제. 장모와 마누라가 와서 요구한대로 다 들어줄 테니 풀어달라고. 그러면 이놈들이 요구를 하는 거야. 술 한 말, 담배도 얼마, 닭도 한 마리, 돼지고기 뭐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 그걸 못 주겠다고 하면, 또 잡아 트네. 그냥 막. 그러면 아이고 막 소리를 지르면 해 줄 테니 놓으라고. 그게 신랑 다는 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신랑달기에 대한 용어는 없고, 그냥 신랑달기라 했지. 여기는 아주 유명한 게. 기린 서리라고요. 양짓말에. 거기서 신랑 달다가 죽었잖아요. 너무 심하게 해서. 그게 왜 죽었냐면, 동네 총각들이 몇 놈이 은근하게 달아야 하는데. 대들보에 달아뻗어요. 그래 대들보에 달아매고서 치는데, 항복을 받는 거야. 뭐 돼지 한 마리 내라 뭐 그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돼야 내놓지 돼지 한 마리를 어떻게 내놓나 없는데. 그래 못 내놓는다고 하니, 그래 막 때린 거야. 그런데 이웃집에 불이 난 거야. 불이 나니까. 신랑 단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쪽으로 다 쫓아 간 거지. 혼자서 거꾸로 달아매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죽었어. 그래서 기린 양짓말이라는 데, 그날이 되면 참매미가 와서 울고 간대요.

## 잣봉지

색시 데리러 가면 잣봉지라고 있잖아요. 잣봉지. 복수를 하려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잣봉지를 마구에서 똥 섞은 거를 잣봉지에 넣어서 들고 치니까. 그게 백이겠냐고. 그렇게 못 되게 한다고. 그 잣봉지를 내가 그렇게 맞아 가지고. 막는데 요지부동이지. 워낙 젊은 사람들이, 그 가마 앞잡이를 못 가게 떡 막고는 치니 어떻게 해. 그러고는 여럿이서 막 들고 치는 거야. 그러면 그 잣봉지의 재가 옷 두루마기에 이렇게 쌓여. 그게 맨 재면 괜찮은데. 거기다 인분 섞은 재를 던지니, 그 냄새 나는 걸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보면 그런 건 너무 했어.

또 콩으로 치는 데도 있어요. 그걸로 치면 아파요. 그렇게 치는 것도 있고.

## 국수먹기

신부 들어올 적에 신랑을 부엌으로 해서 굴뚝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국수를 삶다가 먼저 먹게 했어요. 국수는 길고 그러니 명 길고 오래 사라지는 뜻으로 그렇게 하고, 굴뚝이 연기가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니까, 바가지에다 국수를 담아 가지고 거기 가서 먹었어요. 물은 체할까봐 먹이지.

## 첫날밤

첫날밤은 잠도 못 자요. 문구멍을 다 뚫어 데려다보고 그러는데 잠은 어떻게 자. 그거 잠자는 것 본다고 문구멍을 뚫고 지키고 있으니. 그게 뭐 되겠어. 족두리는 어차피 벗겨야지. 저고리까지 벗기는 거지. 뭐 걸저고리 속저고리. 치마도 다 벗기고. 그리고 속에 얇은 것만 놔두고 다 벗겨야지. 그리고 그 법이 여자가 먼저 드러누우면 안 된대요. 남자가 먼저 드러누워야 한 대요. 그러면 문구멍을 뚫느라고 북북 소리가 나고 야단이지 뭐요. 그렇게 들여다보고는 드러누웠네 어쩐 네 하면서 킁킁 거리고 그러지. 밤새도록 그렇게 장난하지.

## 첫날밤 점치기

첫날밤에 상 위에 복개를 덮어놓고 하는 게 있어. 그것도 애들 첫돌에 하는 거나 비슷해. 복개를 열어보고. 돈, 쌀, 실 뭐 이런 거를 넣어두고. 쌀을 열어보면 부자로 광이 가득하고, 돈을 열어보면 부자가 되고, 실을 열어 보면 이제 명이 길고. 빈칸도 해놓고, 그걸 열면 허탕이라 그런다. 이것도 하나의 놀이야.

## 문안인사

여기는 신부가 그 이튿날 바로 부엌에 나가서 밥을 해요. 그 문안인사를 해야 하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침에 가서 인사를 하고, 치마저고리 다 입고. 인사하고 밥을 지어서 시부모님께 올리지. 3일을 그렇게 하

고. 3일 만에 또 친정을 가는 거지. 3일 근친이지.

### 사당차례

원래는 첫날 저녁을 먹으면, 사당차례라 해서. 그거를. 지금은 결혼식에서 폐백을 드리잖아. 그게 사당차례야.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자가 그 폐백 음식을 해오잖아. 폐백음식을 지금 처럼 갖다 먹는 게 아니고, 신랑집의 조상한테 가서 바치는 거예요. 조상한테 먼저 드리고, 지금도 어떤 집안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조상제사를 먼저 지내고 폐백을 써요.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폐백 음식이 오면, 조상한테 잔을 부어놓고 절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왔습니다하고 축을 고하고, 그렇게 폐백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 온 친척, 친구, 이웃 사람들 다 나누어서 술 한 잔씩 먹고, 이제 갈 거 아니예요. 가면은 잠자리 드는 거지. 그럼 벌써 11시 12시 돼 가는 거지요. 그렇게 잠자리 들면 잠을 못 자게 밖에서 문구멍을 뚫고 난리지요.

### 과방과 상배

옛날에는 과방을 보는 사람이 꼭 둘이나 셋이서 봤지요. 음식을 그 과방이 다 접수를 해 놓아요. 목기 접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고기는 고기대로, 예를 들어 사람이 넷이 왔다면, 네 사람이 상을 받는다면 고기가 돼지고기가 넉 저름 밖에 안 놓여져. 한 사람이 한 저름 더 먹으면 한 사람이 굶어요. 그러면 북어고기도 네 개. 적이니 모든 음식을 그렇게 과방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에 상드는 사람이 있어. 이를 상배라 해. 과방에서 상을 차려 놓으면 상배가 그 상을 들고 나가. 그러면 그 뒤에 술 붓는 사람이 잔 하고, 그때는 막걸리지. 그 주전자에다 술을 가지고 가서, 손님들이 오면 그렇게 대접을 했지. 술 붓는 사람은 용어가 따로 없고, 상배만 그렇게 해 가지고, 아예 상을 들고 나가면 술 따르는 사람이 주전자를 들고 따라온다. 그래 상을 놓으면 오는 손님에게 술을 따르는 거지.

## 과방단자

그게 단자라고 그랬잖아. 그 신랑한테 많이 했지. 신랑한테 장난을 하면, 그 단자 들인다고 하면. 그 단자도 순서를 따지려면 상에다 바쳐서 연필하고 공책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문장이지. 쉽게 말해서 한문을 써서 단자를 들여보내. 그러면 술을 돼지 한마리에다 닭 두 마리에다가 떡 한 말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한문으로다가 써서 들여보내지. 그럼 그걸 보고 풀이를 해서 내 보내야 돼. 신랑이. 그럼 그걸 못 내보내면, 아 저 무식하네 라고 그러고. 이제 좀 손가락질을 받는 거지. 그게 신랑한테 단자라는 거는 그랬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없는데. 하여간 그 처녀를 이웃사람 누가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면 그런 장난이 다 들어가. 그래 가지고 그걸 못하면 저 병신한테 시집을 갔다고 막 그러지. 그러면 신랑이 얼굴 빨개 지고 그러지 답을 못 하나까. 아 똑똑한 총각 두고 고개 너머에 병신한테 시집갔다고 막 그러지. 그래서 단자가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상각으로 가는 사람을 좀 똑똑한 사람으로 공부한 사람을 보내지. 그런 것도 다 알만한 사람으로 같이 상각으로 가는 거야. 그래 가서 그걸 들어오면 신랑이 잘 모르겠으면 상각한테 삼촌이나 그런 사람이니까. 물어보지. 그러면 그게 이러저러 하다고 해서 써서 내 보내는 거지. 그러면 바깥에서 또 써서 들여보내. 또 답장하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서로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면 안 되잖아. 야, 이제 그만하고. 술 한 잔 안주하고 먹자 그러면 끝이 나는데. 신랑 측에서 그 답장을 못했다고 그러면. 그날 창피를 많이 당하는 거지. 내용은 먹는 거, 촌수 따지는 거, 몇 촌에서 몇 촌은 무슨 관계냐 고모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이런 거. 그런 걸 한문으로 써서 뭐 꿀꿀이 하면 돼지잖아. 푸르텍이 하면 닭이고. 막걸리는 울렁쫄랑이고. 그래 그런 걸로 글로 써서 들여보내면, 그러면 모르면 답변을 못 하잖아. 그러면 꿀꿀이 하면 돼지, 푸르텍이 하면 닭, 울렁쫄렁 하면 막걸리 그렇게 써서 보내면 답변을 해야 한다.



## 혼로

정자리에서는 지형의 특성상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렸을 때 서로 자라는 모습을 보고 혼인을 해서 부부가 되기도 하였다. 석장골에 살고 있는 이옥녀(84) 씨는 범골에서 태어난 때 봉채로 시집을 갔다. 옛날에는 대부분 그렇게 혼인을 했고, 멀리 나가지 않았다. 앞뒤집에 살다가 결혼을 한 경우도 있다. 이옥녀 씨는 그렇게 가까워도 중매장이가 중매를 놓아서 혼인이 이뤄졌다.

혼인을 할 때는 범골에서 매봉채까지 가마를 타고 갔다. 매일 보던 총각과 결혼을 해서 첫날밤도 그랬다고 한다. 모심으러 갈 때 같이 가서 심고 했다.

## 혼인날잡기

옛날 셋째 아이가 색시를 데리고 집에 왔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은 못 가르치겠어 피를 냈다.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왔다. 두 달 있다가 와서 결혼식 날을 저희들끼리 받아서 왔다. 그래서 어디서 봤냐고 물었다. 둘이서 일요일이고 해서 그날을 정했다고 했다. 그래 잘했다고 하고, 너들이 좋다고 하면 하자고 했다. 그리고 시간이 있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 아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왕이면 좋은 날이 있으면 그날로 택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다. 그래 대답을 하기에 아는 분한테 가서 그날을 보여 주었다. 그래 “야들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며칠날 날을 받아왔는데, 그냥 해도 괜찮을 까요?”했다. 그래 이 양반이 책을 내 놓고 남녀 생년월일을 해서 보더니, “그날 적어 온 날 결혼을 하면 남자가 살다가 안 좋은데”했다. 그러니 처녀가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라고 물었다. “그래 남자가 안 좋다는 것은 살다가 오래 살지도 못하고 헤어진다든가, 죽는다든가 그렇지 뭐.”라 했다. “그럼 안 되지요.” 그랬다. 그러니 “이 날짜에 하면 길하네. 좋아. 그럼 이날 할 거야, 저날 할 거야?” 했다. 그래서 좋다는 날로 택했다.



## 환갑

환갑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해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 환갑잔치에 큰 상을 받는다. 옛날에 여기 그런 사람이 있었다. 자기 부모가 환갑 전에 죽으면, 큰 상을 못 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진가, 여기 김성갑 씨라고 그 양반이 돌아가서 가지고 환갑이 되니까, 죽은 부모를 환갑을 차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게 효자이다. 그게 힘들다.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 환갑을 차렸다. 돼지 한 마리 사다가 동네 적기를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때 애기로는 큰 상을 환갑 때 못 받으면 저승에 가서도 상을 못 받는다고 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부모네가 돌아가셔도 큰 상을 차려서 드리는 것이다. 참 효자인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다. 김성갑이란 그 분도 다 돌아가셨다.

옛날에는 환갑까지 살기가 힘들었다. 마흔 다섯이면 중 늙은이었다. 마흔 다섯이면 담뱃대가 요만해(20cm정도) 곰방대. 그 다음에 환갑 정도 되면 길어 약 60cm정도 되지, 그래서 담뱃대만 봐도 저건 중 늙이네, 요건 환갑 늙은이고 하는 걸 알았다.



환갑상

옛날에는 환갑이 되면 미리 돼지 새끼를 사서 길렀다. 옛날에는 부모 환갑이든 초상이든 소상 대상이든 돈을 근근이 모아서 시장에 가서 돼지 새끼 한 마리 사다가 기른다. 그걸 키워서 때가 되면 잡아서 길러서 환갑 되면 환갑 때 그걸 잡고, 소상 대상 되면 그걸 잡아서 했다.

그러면 나물만 먹다가 도토리만 먹다가 돼지고기 몇 저름 먹으면 설사가 나서 그만 다 내렸다. 안 먹다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그렇게 설사를 한 것이다. 그게 전설 같지만 사실이다. 옛날에는 다 그랬다. 그게 비게 몇 저름 먹으면 대번 설사를 했다. 그러니까 속이 기름 끼가 없으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것도 마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환갑을 차린다. 그러면 그 전날 돼지를 잡잖아요. 잡으면서 그 전에 다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두부도 하고 떡도 하고 국수도 하고. 계속 방아를 찧고, 그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방아를 며칠을 찧어야 된다. 그게 떡방아 국수방아 찧으려면 멍쌀을 가마판을 찧니 두 가마를 찧니 떡을 두 가마니를 하니 그러면 그게 적은 양이 아니다. 발 방아로 그걸 찧으려 해보면 지금은 하지도 못한다. 동네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며칠을 모여서 그렇게 하고, 부치기 부치고, 두부를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전날 돼지를 잡는다. 돼지를 잡아서 돼지를 삶는다. 다리 및 고기를 그래 팔 쟁기를 떼어서 삶아 죽 달아맨다.

그러면 거기 남는 것이 족발하고 대가리하고 내장이다. 그러면 큰 가마에다가 그걸 삶아 낸다. 그걸 썰어서 그러니까 그게 국물이지 뭐. 돼지국물이다. 돼지국물해서 서너 저름 돼지고기를 올려서 모든 밥에 올린다. 그러면 시래기 국에 돼지 한 저름도 있고 두 저름도 있고 올려서 준다. 그러면 그것도 한 그릇 더 먹으려고 하면 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날은 그렇게 일을 한다.

그리고 이튿날은 상을 받는데, 상을 받으면 고기를 한 저름씩 준다. 그래 그거 한 저름 먹었다고 탈이 나서 난리였다. 그게 일 년에 몇 번 먹지도 못한다. 웬만한 사람은 돼지를 사다 길러서 막중일이고 좋은 경사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돼지를 사다가 기르는데, 어디 쓸 것인지를 두고 사다 길렀다. 환갑에 쓸 돼지, 소상 때 쓸 돼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 오면 거기 써야지 여는 데 쓰지 못한다. 산골에서는 그냥 내가 팔아먹어야지 하고 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산에 치성을 드리려고 마리를, 치성 드리는 것을 마리라 그런다. 그래 마리로 끌려고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 없었다. 돈이 안 맞으면 안 주겠다고 그런다. 그러면 치성을 끌려고 돼지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면, 그게 다른 데다 주면 옛날에는 그게 안 좋았다. 치성으로 쓴다고 그러면 쥐야 한다.

치성은 산치성인데, 여기는 2월과 8월이다. 아랫말에서 산치성을 지내는데, 옛날에는 대단했다. 산에다가 제주를 가져다 꼭 봉하고, 생기보고 깨끗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마누라가 애를 가져도 안 돼, 산모가 있으면, 그래서 산에 가서 제주 해 넣고, 그 다음 새벽에 4시쯤 가서 제물장만을 했다. 아주 어두울 때이다. 가서 산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산신각 앞에 다 가져다 놓고, 새옹메 지어서 가져다 놓고, 제주 걸러서 부어놓고, 이제 제사 지내고, 그리고 기별을 한다. 이제 여기서 산치성 다 지냈으니까 전부 다들 와도 괜찮다고 기별한다. 그러면 돼지 국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수십 명이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고기를 더 먹으려고 한다. 그때 고기를 줄 때 그릇에 고기 조금 넣고 밥 넣고 시래기 넣어서 국물 이렇게 준다. 고기 더 먹으려고 갈잎 같은 데 이렇게 더 달라고 하기도 했다. 참 이게 옛날 얘기다. 셋말 산치성은 아랫말 지당골에서 아랫말과 같이 지냈다.

거기서는 아랫말과 셋말하고 같이 했는데, 이제는 아랫말만 한다. 거기서는 매년 돼지를 사다가 2월과 8월에 꼭 한다. 첫 정일(丁日)이다. 지금은 늦게 가서 치성 드리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아주 새벽에 했다. 고기는 호수대로 나눈다. 그리고 그 치성고기가 맛있다. 이상하게 맛있다.

## 혼인기념일

여기는 회혼례를 지낸 분이 없다. 혼인기념일은 50년이고 60년이고 다 이름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하는 걸 못 봤다.

## 객사면하기

옛날에는 윗방에서 죽어도 객사라 했는데, 지금은 다 병원에서 죽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런데 그 얘기는 맞는 얘기다. 왜냐면 우리가 해 온 것이 유교법이거든요. 유교라면 공자인데, 지금 향교에서 매년 공자제사 지낸다. 그 유교법을 엄하게 지키는 집은 아직도 그렇게 지킨다. 우리도 아직까지 복장을 다 갖춘다. 그런데 어떤 이는 죽은 사람이 뭘 아느냐면서 대충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따져서 하는 집은 따져서 해야 한다.

## 운명

운명하면 우선 손발을 묶는다. 묶어서 칠성판에 일단 올려놓는다. 방이 따뜻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부패될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밑에 나무토막 세 개 놓고 송판 놓고 그 위에 올려놓는다.

## 입관

입관하기 전에는 하얀 천 같은 것으로 덮어 놨다가 이제 열면 얼굴이 보이고,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고 한다.

## 장일

그 다음에 만상주가 3일장 5일장 7일장을 할 건지 받아야 된다. 날을 받는다. 지금은 무조건 3일장인데,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이 3일장이다. 왜냐면 음식을 못 사니까 만들 수도 없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3일장을 치른다. 어지간한 분들은 7일장이나 9일장을 지냈다. 보통 7일장을 많

이 했는데, 술도 해야지, 뭐 음식을 전부 다 만들어야 된다. 빨리 해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뭐 부모가 병으로 누우면 그런 걸 서서히 준비를 해놓았다가 돌아가시면 바로 한다.



상여꾸미기 2016.12(사진 심영춘)

### 성복제와 팔죽

그 다음에 딱 운명을 하면 초혼을 부른다. 초혼을 부르기 전에는 그저 아무 말도 없고 슬픔만 가지고 있다. 그래 초혼을 딱 부르면 여자들은 머리를 푼다고 그런다. 옛날에는 다 머리가 길어서 맺던 거 다 늘어뜨리고 그러면 곡도 하고 다 한다. 그 전에는 아무 것도 못한다. 초혼 부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못한다. 며느리 많은 집에는 어려서 볼 때 무서웠다. 머리 풀어서 왔다 갔다 하면 귀신같았다. 아주 무서웠다. 옛날에는 하얀 옷이나 있나, 전부 베옷을 입었다.

초혼 부르고 3일 되면 북향 사배를 한다. 정화수 떠놓고, 그러면 복신들이 다 모여서 물 한동이 떠놓고 손 다 씻고 세수하고 자기 옷 입을 것 다 가져다 놓고 북쪽으로 놓고 절을 한다. 그렇게 북향 사배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다. 옷은 밑에서부터 올려 입는다. 벗을 땀 내려 벗는다.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

그 전에는 옛날에는 팔죽을 쑤어서 왔다. 팔죽을 쑤어오면 시체 앞에다 놓고 곡하고 그 다음에 그 팔죽으로 온 사람들 다 먹는다. 같은 동네 사람이 한 동이씩 팔죽을 쑤어 온다. 팔이 몇동이 들어오면 며칠씩 먹는다. 그걸 다 먹어야 된다고 해서 며칠을 먹는다. 밥도 안 해주고 팔죽만 먹는다.

그렇게 하고 옷 갈아입으면, 그걸 성복제사라 한다. 성복제사에는 팔떡을 해 놓는다. 성복제사 지내면 그 팔떡을 다 나눠 먹는다.

그리고 가령 7일을 장삿날을 받았으면 아침 점심 저녁 꼭 상식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곡을 한다.

그렇게 하다가 7일이 되면 아침에 발인을 한다. 그래 산으로 가는 거다. 옛날에 있는 집들은 대단했다 그렇게 해서 7일 9일장을 했다.

## 반혼제

옛날에는 여자 상주는 산에 못 갔다. 요 중년에는 여자고 손주고 남자고 다 간다. 또 여자는 집에서 제사 준비를 한다. 발인해서 산에 갔다 오면 제사(반혼제)를 또 지내야 된다. 그러면 산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요여(용여)에 혼백을 모시고 가서 올 때도 들어서 꼭 가던 길로 해서 온다. 그렇게 반혼을 할 때 그 뒤에 남자 상주들이 곡을 하면서 오면서 혼이 개울을 못 건너온다고 해서. 그러면 아버지면 아버지, 할머니면 할머니 부르면서 개울을 건너가니까. 꼭 건너서야 한다고 고하고 개울을 건넌다. 이제 집으로 거의 반 정도 오면 알고서 집에 있던 여자들은 다 마중을 나온다. 마중을 나와서 남자 상주들과 서로 맞절을 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느라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마중을 한다. 그러면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옷을 벗어놓고, 굴건제복 이런 상복을 다 벗어놓는다. 이제 산에 갔다 산 쓰고 상여 메고 이런 분들이 온다. 그러면 남자 상주들이 나가서 다들 고생 했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옛날에도 보면 세수하고 머리감고 그런다. 그 전에는 세수도 못한다.



발인제(사진 심영춘)



노제(사진 심영춘)



## 초혼

초혼을 부를 때는 돌아  
가시면 놀러 부른다. 초  
혼을 부르시는 분이 마을  
에 따로 있었다. 옛날에  
는 그 초혼 부르기가 힘  
들었다. 돌아가시면 용  
마루 올라가서 가로 타고  
앉아서 초혼을 부르다가  
막히면 부르는 사람이 죽



출상(사진 심영춘)

는다고 했다. 말이 막히면 죽는다. 그 다음에는 올라가기 힘들니까 사다  
리를 놓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불렀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사다리  
도 없이 마당에 서서 지붕 가장 가까운데 서서 하얀 옷, 속에 넝구 그런  
것 하나 가지고 가서, 그냥 초혼 부르고 옷을 지붕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데 요즘에는 초혼도 안 부른다. 그래도 병원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다 그  
렇게 하는데, 병원에 가면 병원 꼭대기 있는데, 거기서 내가 초혼을 부른  
다. 뭐든 자기 나름이다. 짚신도 사가지고 가서 부른다.

## 사жат밥

초혼 부를 때 사жат밥을 차라는데, 짚신 세 켤레, 조이로 만들어서 신발  
세 켤레, 밥도 세 숟갈 씩 세 군데, 나물도 세 군데, 소금 조금 넣고 부른  
다. 그런데 그거 귀신이 먹던 거여서, 내가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 49재

우리 어머니 다니시던 절이 원주 소림사이다. 그래 거기를 갔다. 스님  
한테 여기 아무개 노인이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 절에 다녔  
다고 해서 왔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주지가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가 여기 다녔다고 하니까. 인제도 절이 많은데, 49재를 여기서 지내려고 한다고 하니, 주지도 아주 좋다고 했다. 49재를 그 절에서 지내는데, 그때는 남들이 다 지내니까 그냥 지내는 것이었다. 그래 스님에게 여쭙었다. 49재라는 것이 유교에서는 없는데 절에서는 왜 49재가 꼭 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게 유교에서도 그걸 안 해서 그렇지, 49재가 아니라 49일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다. 유교에서는 5일장을 지내든 9일장을 지내든 그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산에 갔다 오면 그게 안 맞는다고 했다.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갔다 오면 그것이 삼오제이다. 삼오제, 칠일제 그렇게 하는데, 그 제사를 칠일 만에 한 번 씩 제사를 지내서 49일 되는 날 죽은 사람 혼이 공판을 받는 날이라 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같다. 선심 쓰는 것이다. 내가 천당에 가게 해 달라고 선심 쓰는 것인데, 정성을 들이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내가 산에 가서 산신제를 지내면 그 산신령에게 내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산신령에게 와이로 쓰는 것이다. 이거 좀 받아 잡수시고 날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산신령이 백 명이면 백 명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래 보니까 어느 사람이 적극적으로



상여운구행렬(사진 심영춘)

로 잘 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을 받아 주는 것이다. 그래 그 사람이 한 새 옹메 밥을 먹었으니 그 사람에게 덕을 주는 것이다. 다 받아 주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 그래서 그 제사를 칠일 씩 해서 일곱 번을 지내서 칠칠이 사십구해서 49재이다. 49일 되는 날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왕 무슨 왕 해가지고, 이제 뭐 목욕재계하고 좋게 봐달라고 축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선심 쓰는 것이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는 게 빠르다. 그래 그 스님한테 그런 소리도 들었다.

## 부고

옛날 소상 대상에는 그 부고장을 많이 보냈고, 우체국으로 해서 부고장을 보냈다. 걸어 다닐 때니까 다 며칠 만에 못 들어갔다. 지금 청첩장하고 같은 구조이다. 그렇게 부고장을 보내면 우체국으로 해서 전달이 됐는데, 그 전에는 사람이 직접 갔다. 가령 양평이라 해도 걸어갔다. 편지도 다 걸어다녔다. 그래 부고를 보내면 친척들은 바로 돌아서 열 일 제쳐놓고 왔다.

어떤 집이는 그 부고장 가져 온 사람한테 팔 세 알을 준다. 팔은 부정을 씹는 것이다. 그래 날 팔을 세 개를 꼬아주고, 그냥은 안 온다고 해서다. 부고장 들고 온 사람이 바빠서 가려고 그러면 물이라도 한 그릇 쥐서 보냈다. 나도 옛날 부고장 들고 전달하러 많이 다녀 보았다. 그러면 시장할 텐데 밥 빨리 할 테니 잡숫고, 우리 준비할 테니 같이 가자고 막 그렇게 했다.

## 염과 노갯돈

염할 적에 옛날에는 염 다스린다고 했다. 그러면 버드나무를 손가락처럼 꺾어서, 쌀을 물에 넣어 불구고, 염하기 전에 염할 분이, 덮었던 것을 베끼고, “이제 염합니다.”라고 고한다. 쌀을 입에 넣으면서 “백 석이요, 천 석이요, 만 석이요.”라고 외친다. 그리고 입을 다물리고, 하얀 숨 같은 것으로, 옛날에는 목화거든, 그런 것을 입에다 넣고 막는다. 그렇게 막으면 끝이다.

그리고 베로 다가 장포로 머리에서 밑에서 해서 발끝까지 간다. 그렇게 하고 그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얼굴을 볼 수 없다. 그 다음에는 21매듭으로 한 번 묶고, 일곱으로 한다. 그게 위에서부터 내려 묶다가 밑에서 위로 묶고, 아니 위에서 계속 내려 묶나. 그러면 21매듭이 고깔이 21개이다. 그러면 저승 들어가는 문이 21개이다. 21개 거기다가 돈을 넣는 사람도 있다. 노잣돈이다. 대문 21개 들어가면서 그것으로 선심을 쓰고 들어가라는 뜻이다. 노잣돈은 쇠돈은 안 넣고 진짜 종이돈으로 한다.

### 귀신보기

귀신 본다고 했다. 5촌 하나 봤는데, 그런데 그게 할 게 못 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지방 위에 다가 바가지를 얹어 놓는다. 그리고 관을 문지방 바로 넘어가다가 재를 채로 쳐, 재를 쳐서 거기다 놓는다. 그리고 문지방 올라서면서 관을 딱 놓으면 그 바가지가 바지직 다 깨진다. 그러면 그냥 관을 들고 나간다. 그게 나가면 발자국이 남는다. 이제 사람이 되면 아기 발자국이 남고, 틀림없이 그렇게 남는다. 새가 되면 새 발자국이 남는다. 뱀이 되면 주욱 금이 그어진다. 그런데 5촌을 했는데, 6.25 나서 얼마 안 되어서였다. 그때 돌아가셨는데, 하도 착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는지 한 번 보자고 해서 했다. 그래 사람 발자국이 선명하게 났더라고, 그러니 사람으로 환생된 것이다. 그러니 착하게 잘 산 것이다. 그런데 사람으로 도로 태어난다는 게 참으로 힘든 얘기다. 돌고 도는데 말이다. 그러니까 공덕이 있어야만 그렇게 된다는 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없다.

### 퇴룡, 토통

3일 만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3일장을 지내는 데 당일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7일이나 9일장을 지내면 3일 만에 퇴룡을 한다. 그런데 웬만한 분은 사자를 부르면 바로 퇴룡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루라도 내 부모를 집에다 더 모시겠다고 하는 집은 그냥 방에 두기도 하는데, 그게 마음

이다. 방에 있으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빨리 내기도 한다. 옛날 방이 불을 때면 따뜻하니까, 빨리 바깥에 나가야 된다.

손 없는 쪽으로 그렇게 내다 해놓고, 이영을 해 덮고 집처럼 그렇게 한다. 그래 놓고는 계속 드나들면서 시간 마다 곡을 한다. 아침 점심 저녁상식을 가져다 드리고 곡을 한다. 그렇게 발인할 때까지 퇴롱을 한다.

대문 밖이 저승이라고 그렇게 상여에 실리면 떠난다.

## 문상

문상은 돌아가시고 첫날은 안 한다. 문상은 성복을 해야 할 수 있다. 성복제사를 지내고 문상을 하는 게지 그 이전에는 원래 문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바로 손님이 오면 엮하기 전에도 사진 놓고 한다. 성복을 하든 안 하든 가서 절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래도 아니다.

## 반상예의

옛날에는 상놈이 양반행세 하는 것은 그 행동을 보면 안다고 했다. 그러면 저녁에 제사를 지내고 양반행세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상놈이 양반행세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제사음식을 시켜서 그 집으로 보낸다. 양반이면 지금 어느 양반 댁에서 오늘 저녁 기고가 있는데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고하면 아 그래, 그러면 나와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단정을 하고 받으면 양반인데, 아 그래 가져왔으니 밤에 잘 먹겠다고 넘죽 받아먹으면 그게 상놈이다. 그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예의를 지키는 게 다르다.

옛날에는 혼인을 보낼 때도 따져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끼리 만나니 이 혼이 많은 것이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 며느리 삼개 딸을 달라고 그러면 다 물어 봤다. 알게 모르게 그 집이가 양반으로 어땠다느니 알아보았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향교출입을 아무나 못했다. 그 출입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그래 그런 걸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 곳집

회채간이라고도 하는데 상여를 보관하는 곳이다. 예전에는 상이 나면 곳집의 상여를 가져다 썼는데 지금은 잘 쓰지 않는다. 쓰고 도로 가져다 놓기 귀찮아서 쓰지 않고, 인제에서 운영하는 장의사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해 준다.

## 회다지

회다지는 어딜 가나 똑 같다. 그런데 요즘은 그리 오래 안 하려고 그런다. 옛날에는 회도 잘 닫고 소리도 잘 했다. 3쇄도 요즘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5쇄 이상 하려면 3쇄를 닫고 그 위에 분상을 하는 것이다. 분상을 하면 분상이 이렇게 잘 줄어들지도 않는다. 지금은 굴삭기가 푹푹 다지면 끝이다.

회다지를 할 때는 사위가 돈도 많이 건다. 그거 지금도 하면서 친척들, 사위들 그러면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은 낸다. 횃대에다 새끼줄을 매서 그 사이에다 끼운다. 돌 때마다 계속해서 끼운다. 그러면 거기서 굴삭기 기사 등 몇몇 사람은 돈을 얼마씩 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네 자금으로 쓴다. 나중에 그 돈으로 동네서 회식을 한 번 하고 그런다.

## 시묘살이

여기는 시묘살이를 묘막에서 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살지는 않고 매일 아침 산소로 가는 사람은 있었다. 어머니 산소인데 참 그 사람 대단했다.

## 산소

산 쓰는 거라든가, 집터 이런 걸 좀 알아야겠는데, 어른이 돌아가셨다. 그래 지관을 모시고, 첫째를 데리고 가서 산 자리를 보러갔다. 여기 저기 네 군데 다니면서 봤다. 그렇게 다니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 군데를 잡았는데, 여기는 죽은 사람이 오는 것도 맞고 죽은 날짜도 생기가 맞고 이 산 자리 써서 누가 결혼을 해 가지고 자손을 봤을 때는 출세도 하고 그렇게

---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귀담아 들었다. 그랬더니, “아버지 산 자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라고 했다. “그럼, 집터도 봐야 하고, 산 자리도 죽어서 막 갖다 쓰면 안 된다. 이걸 꼭 분명히 생각해라. 내가 알기에 어떤 사람이 삼년 만에 묘를 쓰고 잘 사던 사람이 거지가 되고 못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이걸 내가 보았다.”라 했다.

### 기제사

제사가 일 년에 8번이 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래서 제사를 합동으로 지내자는 얘기가 나온다. 휴일에 제사가 오면 괜찮은데 평일에 제사일자가 닥치면 곤란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하고 아버지 어머니 따로 하고 하다 보면 너무 많다. 제사라는 게 조상 찾아뵈는 것도 있지만 오랜만에 형제들도 모이고 음식도 갖가지 해서 서로 나눠 먹고 하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되겠냐. 또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 운전도 할 수 없다. 또 지금은 과일이고 과자고 차려 놓으면 아이들이 먹지도 않는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과자 얻어 먹으려고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곤 했다. 또 그렇게 늦게 끝나도 동네 어른들 모셔서 같이 음식 나눠 먹곤 했다.

### 석장골

여기 석장골이 있잖아요. 거기 사람이 몇 사람 왔다고 그런다. 석장을 한 것은 모른다. 그런 얘기만 있다.

### 짐승공동묘지

여기 짐승공동묘지가 있다. 동네에서 키우던 소가 죽으면 그곳에 가서 묻었다. 지금은 개인 산으로 되어 있다.

## 공동묘지

범골 건너 산에 마을공동묘지가 있다. 그곳이 정자리 공동묘지이다. 6.25나고 그 길목에 추석 며칠 전이면 사람이 나래비로 서서 별초를 했다. 지금은 그 자손들이 안 온다. 지금은 거기 올라가 보면 수십 년 동안 자손이 안 오니, 묘 꼭대기에 나무가 그득하다. 몇 사람만 아직도 와서 금초를 한다. 나무가 짝 차서 산이 됐다.

이걸 보면 정부에서 납골당을 할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산 없는 사람은 갖다 쓰고, 분상을 높게 못하게 하면 된다. 분상을 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산이 되고 만다. 그러면 나무가 나고 산이 돼서 납골당 보다 더 좋다. 사람은 죽어서 땅 속으로 가는데, 납골당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안 없어진다. 납골당은 돌맹이로 하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공동묘지를 동네별로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상을 크게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공동묘지 가보면 소나무가 아름답기로 있듯이 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오래 돼서 자손이 가지 않으면 모두 나무가 우거 찬 산으로 변하고 만다.

## 중상일

사람이 애고 어른이고 할아버지고 죽으면, 이 집에서 나갈 때는 바가지를 엮어놓고 다 깨고 나간다. 그냥 나가게 되면 사람이 발로 밟아 문지방 밑에서 깨고, 문지방에서 깨는 것은 관을 탁 놓으니 깨진다. 그런데 그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 바가지를 꼭 그렇게 깬다. 여기는 꼭 그렇게 했다.

## 애충

애충은 많았다. 아이들이 죽으면 산에 가서 아이들을 묻고 여우가 파먹는다고 솔가지를 찍어서 덮고 돌을 눌러놓았다. 옛날 6.25 때는 여우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참 여우가 많았다. 그게 공동묘지고 어디고 굴을 파서 시체를 먹었다.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다. 어



렸을 때 보면, 애들이 죽으면 깊게 파지는 않지만 어지간히 파고 묻고, 그 위에 솔가지 등 여우가 판다고 잔뜩 올려놓고 그랬다. 그 등걸이 그런 거 잔뜩 올려놓고 돌도 올려놓고 그랬다. 그런데 요즘은 여우도 없고, 아기도 없다. 병원이 좋아서 아이가 죽지도 않는다. 그러니 애충도 없어진 것이다.

## 금기

여기는 누가 돌아가시면 고양이를 탄 집으로 데려다 가둔다. 고양이가 용마루를 넘는다든지, 시체를 넘으면 안 좋다.

## 무연고제

여기는 없다.

## 남면 무연고자제

남면은 무연고자제가 있어 매년 제사를 한다. 옛그제에도 가서 제사를 지냈다. 무후제가 33세 분이다. 이 분네들은 전부 6.25이전 분이예요. 이 양반들이 죽으면서 면사무소에 재산을 다 주었다. 그래서 일 년에 한 번 씩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낼 때는 각 리에 알린다.

## 생신제

여기는 한 십 년까지는 생신제를 지내는데, 10년이 넘으면 생신제를 안 지낸다. 할아버지 계실 때는 다 지냈다.

## 명절제

명절제는 지금도 다 지낸다. 한식 때는 안 지낸다. 설과 추석에만 지낸다.

---

제9장  
민속놀이





# 제9장

## 민속놀이

### 농악놀이

정월대보름이 되면 마을청년들이 농악을 울리면서 집집이 걸립을 했다. 동네 집마다 마당에 가서 일 년 열두 달 잘 되라고 빌어준다. 그러면 그 집에서 쌀 같은 것을 내어 준다. 그것을 모아서 동네 기금으로 썼다.

정자리 농악놀이는 약 50년 전까지는 했는데, 어떻게 없어졌다.



정자리 농악놀이(사진 심영춘)



정자리 농악대(사진 심영춘)

### 반천렵놀이

동네별로 따로 천렵을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다만 옛날에는 반장이 나면 각 반장이 수고했다고 해서 대접을 한다고 해서 연말에 반천렵이라고 해서 천렵을 했다. 물가에 나가지는 않고 집에서 한다. 반돈으로 반장

보느라고 수고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날은 반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하루 놀았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 대동회

대동회라는 마을 총회가 열린다. 매년 12월 20일에 하는데, 정자리 마을사람 전체가 모인다. 장소는 마을회관이다. 이날은 이장도 뽑는다. 그리고 정자리 동네에 있었던 일 년 동안의 일을 모두 결산한다. 특별히 먹



소풍놀이(사진 심영춘)

고 마시고 노는 것은 아니다. 아침 10시 경에 모여 점심 전에 회의를 끝내고, 점심을 함께 하고, 좀 놀다가 각자 집으로 간다.

## 고추작목반놀이

고추작목반에서 봄 약 5월경에 야외 천렵을 한 번씩 한다. 흔히 소치리에서 정자리로 올라오다 보면 강가 쪽에 쉼터가 하나 있다. 날씨가 좋으면 그곳에서 작목반 천렵을 한다. 작은 공원의 쉼터가 아니면 아예 계곡에서 놀기 좋은 곳을 골라 음식을 먹으면서 논다. 정자리는 계곡이 많아서 놀만한 곳이 많다. 매봉재 숲가마골 입구의 계곡에 물이 깨끗해서 주로 그곳을 장소로 택한다. 비용은 작목반에서 거두고, 그날은 작목반이 아니라도 동네사람들 오시라고 해서 모시고 함께 한다.

음식은 어떤 때는 돼지를 한 마리 잡고, 떡도 하고, 술도 받아서 그렇게 한바탕 논다. 작목반놀이는 동네 천렵처럼 하는 마을놀이이다. 이때는 외부의 기관에 있는 분들도 초청을 한다.

정자리 마을 천렵으로는 작목반놀이가 가장 큰 행사이다.

정자리에서 풋고추작목반을 하는 농가는 약 20여 가구된다. 이것도 점점 줄고 있다. 타산이 맞지 않아 농사를 줄이는 농가가 많다. 올해(2016)는 역사상 처음으로 고추 시세가 좋아 소득을 많이 올렸다. 행사에는 옛날에 작목반을 같이 하다가 지금 하지 않는 사람도 참가한다.

작목반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한다. 작목반에 참가한 사람들끼리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최한다. 회의 내용은 농사정보나 사업구상 등에 대한 각종 안전을 서로 토의하고, 친목도 다진다.

### 진사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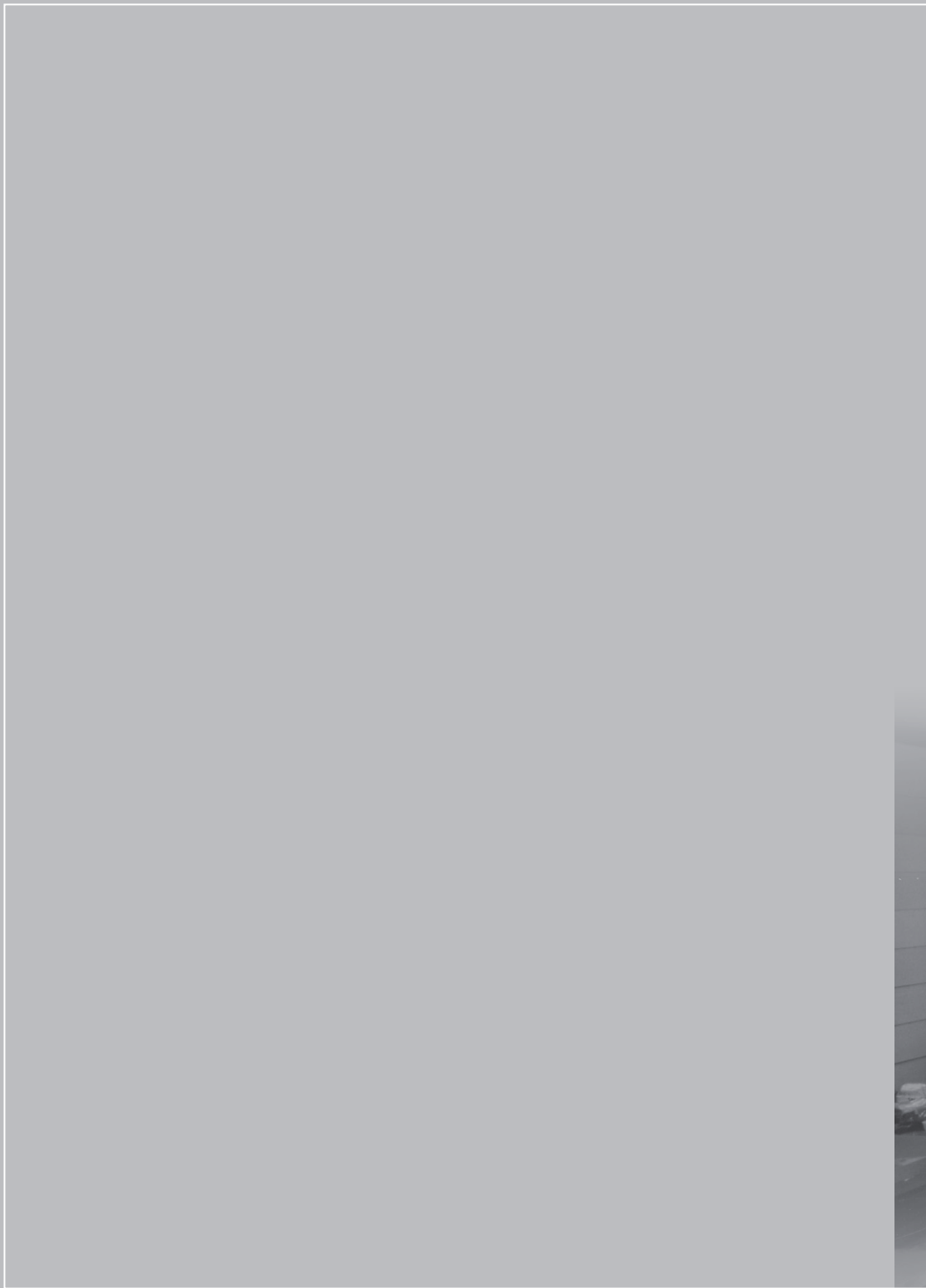
장사를 지내고나서 사위가 이렇게 봐서 돈푼도 좀 있어 보이면 진사놀이를 했다. 사위를 관 묶었던 줄로 한다. 그 줄을 끊어서 건(모자)처럼 만들어서 그곳에다 술가지도 꽂고 여러 가지를 꽂아서 씌운다. 그리고 허리에 줄을 매서 세 군데서 잡아당긴다. 그렇게 힘을 주면 꼼짝도 못한다. 숯검정을 손으로 비벼서 얼굴에 검정 칠을 한다. 그리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별 소리를 다 한다. 딸을 훔쳐 갔으니 도둑놈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고 하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주막집에 가서 먹을 테니, 한 50만원 되어야 먹을 수 있으니 내놓으라고 한다. 그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술집으로 끌고 간다.

여기도 이렇게 끌고 오다가 줄을 쳐놓고 금줄을 만들었다. 이걸 금무소라 했는데, 이 금무소를 통과하면, 죄인이 여기 뭐라고 써 놓는다. 금줄에 이리로 가면 술 몇 동이, 담배 몇 보루, 돼지 다리 하나, 소 다리 하나, 닭 몇 마리 이렇게 써놓는다. 이 금무소를 지나가면 이걸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거기다 사인하라는 게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물어물 끝난다. 이걸 어기면 다 받아야 된다고 했다. 그 전에는 그런 장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장난 안 한다.

일종의 놀이이다.

### 춘향이놀이

두 손을 잡고 빌면서 하기는 했다.





---

제10장  
민간요법





## 제 10 장

### 민간요법

#### 귀신가두기

나무를 요만하게 잘라서 거기다가 보도로 구멍을 파고 복술이가 대꾸를 불러다 귀신대라고 해서 대를 흔들면서 멩긴다. 그리고 요만큼 한 종이를 동굴동굴 말아가지고 그 구멍에 가둔다. 그리고 흙떡을 해가지고 덮고, 거기다가 왼새끼 꼬아서 꼭 묶어 가지고 가져다 내버린다. 그렇게 하고는 귀신을 잡았다고 한다. 대잡이는 대를 대단히 흔들고 돌아다닌다. 지금은 복술이 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살아있으면 다들 100세 이상 돼서 사망했다. 복술이는 한밤중에 가서 불러도 언제든 온다.(이상복(남, 82) 매봉재, 2016.7.21.)

#### 소가 아플 때

예전에는 집집마다 소를 키웠다. 많이 키우는 집은 열 마리 이상 키우기도 했다. 소가 아프면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 먹였다. 침을 놓기도 했다.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가 소에게 침을 잘 놓는 분이 있었다. 지금은 소가 아프면 전화만 하면 인제에서 의사가 달려온다.

#### 아이들 감기

신남에 의사가 있어서 아이들을 업고 가서 진찰하고 약을 타왔다. 정자리에서 신남까지 가려면 큰 고개를 두 개나 넘어야 했다. 그렇게 가면 애

---

들 고치는 의원이 있었다. 거기 가서 침놓고 약 타 먹이고 뭐 하면 나왔다. 옛날에는 아이들 실패를 많이 했다.

### 홍역

아이들이 홍역이 걸리면, 가재를 잡아다가 막 찢어서 먹인다. 그러면 땀이 나면서 낫는다. 그러니 날 가재를 찢어서 물을 짜서 먹인다. 그러면 홍역이 사라진다.

또 꿀을 꿀여서 먹이면 나왔다. 여기는 시골이라 꿀을 많이 했다.

### 홍역

홍역을 앓으면 약을 좀 하고, 그렇게 있다가 보면 죽는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산다. 옛날에는 홍역 하다가 많이 죽었다. 약이야 한약 좀 쓰고 그랬지, 병원에 가지도 않았다. 홍역은 내 부치면 낫는다. 열꽃이 나면 내 부치는 것이다.

### 배 아플 때

꿀을 꿀여서 먹이면 다 나왔다. 배가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면 꿀을 꿀여서 먹이면 그냥 멎었다.

### 마마

여기는 그런 것은 없었다. 홍역은 있어도 손님은 없었다.

### 체했을 때

침뿌리를 목으로 넣으면 내려간다. 산에 가서 침뿌리를 캐어 와서 쓴다. 침뿌리를 목으로 넣으면 그냥 쓱 내려간다.

### 뱀에 물렸을 때

많이 물리면 춘천이나 홍천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했다. 조금 물리면 집에서 침을 놓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친정어머니가 길을 가는 데 까치독사가 와서 팔을 깨물었다. 그래서 죽을 뻔 했다. 그런데 집에서 침만 맞고 치료를 했다. 할아버지가 침을 놓고 부양을 부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왔다.

우리 집 아저씨도 독사에게 깨물렸다. 원래 독사는 잘 깨물지 않는데 어떻게 깨물렸다. 밭에 감자 캐다가 독사가 있어 잡으려다가 물렸다. 그렇게 독사가 손가락을 깨물자, 낮으로 손가락을 툇 잘라내서 살았다. 그렇게 자르고는 손가락을 잡고 눌러 병원으로 고개를 넘어 가서 치료를 했다. 그렇게 바로 툇 잘라내서 그런지 더 이상 탈은 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잘라서 손가락이 세나서 더 죽을 뻔 했다. 옛날엔 그렇게 살았다.

### 눈다래끼

눈다래끼가 나면 약국에 가서 약을 썼다. 옛날에는 꿀을 발랐다. 여기는 꿀이 약이다.

### 배탈

썩을 살살 비벼서 코에 넣었다. 단오 때 베어 말려 두었던 약썩을 손에 올리고 살살 비벼서 양쪽 코에 끼워두면 배탈이 멈춘다.

또 칩뿌리를 파다가 삶아서 먹으면 배 아픈 것이 가라앉는다.

### 식중독

식중독은 병원으로 갔다.

(이상 제보자: 이옥녀(여, 84), 박정숙(여, 65) 2016.10.9.)

## 복통

참 그런 얘기는 애들한테는 배 아프다고 하면 훌렁 벗고 내 손은 약손이다. 해 노니까 올려 밀고 내려 밀고 동글동글하게 밀어주고 그랬지 뭐.

또 약도 먹었을 것 아니에요?

옛날에 약이 있쑤. 약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격으로 할머니들 뭐, 어머니가 아프다면 늘 해 놓고 배에 손 이렇게 내손이 약 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그러니 문질러 주고 그랬지 뭐.

## 체했을 때

근데 옛날이 좀 미련한 거는 체 한 것 같다면 소금을 줬거든 그게 안 되는 건데 근데 어른들이 어떻게 그런 걸 줬는지, 소금물을 했는지.

## 쥐통병(맹장)

그런 거는 잘 알지도 못 했어. 사실은 맹장 같은 건. 그래서 맹장이 걸려서 금방 죽으면 죄를 받아가지고 급살 맞아 죽었다고 그리잖아. 옛날에 그랬어. 그 옛날엔 그러니까 그런 병을 급살 맞아 죽었다고 뭐 그런 거지 뭐.

## 눈 다래끼

눈 다래끼는 옛날에 참 많이 났어요. 옛날에 저게 많이 났는데 약도 없고 눈 다래끼가 나면은 짜면 찌그러 졌어. 그래 그걸 못 짜게만 했지. 짜면 눈이 찌그러지니까 짜면 안 된다. 그냥 아파도 참아라. 참아라. 손대지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

눈썹도 뽑았지. 옆에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뽑고 근데 그거 뽑으면 아프잖아요. 그럼 그거 손 못 대게 했어요. 손을 대면은 인제 그게 저 눈이. 그 다래끼 난데는 하여튼 그 요렇게 고름이 생기잖아 그럼 그걸 짜며는 그게 그 상처가 나. 그렇지 뭐.

눈 다래끼가 났을 때 혹시 뭐 이렇게 물 떠 놓고 그런 거 뭐 없어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없고 하여튼 손만은 못 대게 했어.

### 헌디(부스럼)

헌디 난 건 약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헌디 저 목. 옛날에는 거 뭐라나면. 풀독이 올랐다 그랬지. 막 이려고 다니다가 뭐 어디 다치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찬 물에 계속 씻어야 낫더라고. 찬물에 다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그제 나아.

기계충이 옛날에는 머리에 그 이제 이 허영게 돼서 막 그렇게 된 애들이 많았잖아 근데 그게 그 그렇게 약이 없고, (싸리나무 알쥬. 싸리나무 태워 가지고 진 나오며는 그걸로 바르고) 예 그 걸로도 그렇게 하고. 그게 잘 안 낫는 게. 조 있쥬. 옛날 조. 조 재를. 조 껍데기. 그 껍데기를 단지에다가 넣어 단지에다가 밑에 다가 내리지 않게 불을 질러 꼭 싸매고 그러면 진이 나오는 거요. 지금도요 이 안 낫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상이 더 없어요.

그럼 단지에다가 어떻게 넣어요?

단지를 입을 맞추는 거지

아~ 양쪽으로?

응 밑에도 단지를 하나 놓고

아 위에다가 조 껍데기를 넣고 밑에 다가 불을 때서?

조 껍데기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러면 그게 진이 쪼끔 많지가 않아 조금 나오잖아요. 밑에 다가 요런 앙상한 철사를 대고 진이 조금 묻어 그걸 바르면요. 약은 그 이상이 더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오호 그럼요. 그런 일이 있었지.

싸리도 그렇게 태워요?

싸리나무 불 붙여서 가지고 한번 진이 나오면 진이 막 내 뚫지 그럼 그 걸 가지고 어렸을 때 기계충 바른 기억이 있지.

그것도 조금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걸 빨리 태워가지고. 그 싸리나무를 태우면 하얀 게 바글바글



끓지. 낮으로 자른 곳에.

근데 옛날에는 적쇠가 없어 가지고 명절 때, 구정 때 떡을 하며는 그 싸리나무를 베어다가 쪽 갈아가지고 그 싸리나무 위에다가 떡을 구워 먹었어요. 그니까 싸리나무, 자작나무 이게 사람한테는 좋은 거요.

그다음에 지금 생각을 하며는 우리 조금 해서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자작나무 순 있잖아요. 그걸 가서 낮을 베어와 그럼 그걸 이만한 묶어와 그걸 한 세 묶음 묶어와 짝 묶어와 가지고 밥술을 그걸로 까시는 거야. 그 자작나무 순으로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옛날의 참 그 지혜가 지금 여기 자작나무 원대리. 그 사람 많이 오잖아. 그 공기 마시려고 아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거는 야 지혜가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아 대단했네요. 조 꺾테기도 그렇고?

그럼요. 지금 그런 게 몰라요.

## 화상

화상에는 그 뒤에는 그랬는데 처음에. 나도 그전에 데었어요. 여기에 아주 어렵פות하지 한 3살이나 4살 되었을 거야. 그때 진흙을 그렇게 발라 주더라고. 진흙, 진흙물을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서 6.25나고서는 그렇게 되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찐지라고 그러잖아. 김치를. 그 잎사귀 데인데 그것도 붙이고. 여기서는 약은 그런 거지 뭐. 찐지면 배추 잎사귀. 근데 요즘은 소수도 소독 된다고 그렇게 하드구만.

선인장 같은 건 안 붙였어요?

그때 이런 곳에 선인장이 있나 없지. 선인장이 없어.

## 부기

예, 그다음에 부었을 때는 요? 얼굴 붓고 이런 거 많이 붓고 이런 거?

그건 잘 모르겠는데 노인네들이 부으면 호박 삶아 가지고 아 글썽 그런 거지 뭐. 호박을 삶아서 즙처럼 해서 쪽 짜서 먹는데. 그게 낮는지 안 낮는지는 잘 모르겠어.

## 감기

그 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는 배에 다가 꿀을 넣어 가지고 화롯불에 묻어 가지고 그거 얼마 있으면 물렁물렁해 지면 막 꺼내서 물을 꼭 짜가지고 먹더라고 감기 걸렸을 때. 그런데 그게 요즘 약이 얼마나 될지.

## 사마귀

그 다음에 뭐드라 사마귀 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마귀 났을 때 그거 티눈이라고 하는데 그걸. 티눈.

티눈하고 다르지 않아요? 티눈하고?

응 그거 뭐 이렇게 푹 불거진 거 그것을 티눈 난 것을 뭐. 이렇게 여자들 머리카락 하나로 꼭 동여매면 잘라진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여자들 머리카락을요?

머리카락을 여기 사마귀가 푹 불거졌잖아 거기다가 머리카락 하나로 꼭 동여매면 잘라진다는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서 그전에 어른들이 내가 널 끌고 갈 테니 머리카락 하나로 너 안 끌러올 자신이 있냐는 거야. 그럼 내기를 하는 거야.

그까짓 머리카락 하나에 끌려 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이제 머리카락 긴 걸 뽑아서 젓꼭지에 있잖아요. 여기다 매고 땡기면 안 끌러가 질 못 해. 아파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진짜 그런 걸 그거 참 찼한 얘기잖아. 그 게요. 얼마나 아픈지 꼭 매가지고 끌리면 끌러가. 하나에 젓꼭지를 매가지고 끌면 끌러가는 거야.

사마귀가 나이가 들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 그게 자꾸 커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동기면 끊어진데 거기가.

## 생손

생손 여기 그냥 굵는 거. 그 거는 뭐 큰 저게 없고 감자. 옛날에는 감자에다가 뭐 소금 있잖아요. 그걸 척척 찍어 익혀가지고 그래 이거 생손을

않으면 손이 퉁퉁 부어 그래 그걸 형겅으로 낫는지 안 낫는지 동여매 주는 거야. 생감자가 아니지 삶아서. 그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해 줬고 그렇지 뭐.

## 무좀

무좀은 약이 없는 거 같은데. 약이 없어요.

요즘은 식초에다가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식초에다 담그고 해보고 약을 먹고 하는데 그 옛날에도 무좀에는 약이 크게 없었어요. 목초액 요즘에 나왔어요. 목초액을 담그면 낫는다. 그건 요즘에 그렇게 나온 거지. 그건 옛날에 나온 게 아니야.

제가(필자) 해보니까요. 빨간색 정로환을 싸게 파는 희석식 사과식초에 풀어서 하루 한 번씩 30분 정도 발을 담가서 4,5일 하면 그 무좀이 뿌리까지 다 없어져요. 한 번 푼물을 버리지 않고 끝날 때까지 계속 써요. 냄새가 좀 지독합니다.

## 뱀에 물렸을 때

뱀에 물렸을 때에는 아주 즉효약이 있지. 우리 지금 가가 몇 살이나? 우리 둘째 삼성 다니는 애가 가가 4살적엔가 뱀에 물렸으니까. 가가 40이 넘었으니까 한 40년 전 얘기지. 병원엘 가는데 그때 뱀에 물리면 약도 없었어요. 그 높은 놈이나 대개 돼가지고 뱀에 물렸다면 그 약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차지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운 좋게 이제 그런 약이 있으니까 주사를 놓니 어찌니 하는데 밖에 나오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래

“왜 그러냐.”

고 그래서 아니 우리 애가 뱀에 물렸는데 이 뱀에 물렸으면 침 밖에 없어요. 침을 계속 놔. 아 진물 빠지라고. 그걸 먹고 집에 가요. 병원에 있어 봐야 낫지도 않아요.

그래 가면서 민들레 있잖아요. 진짜 그 이상 더 없어요. 민들레 꽃 가루

가 약인데, 민들레 꽃 가루 받아 놓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나 그 때나 그러면 그 민들레를 그냥 대 여섯 뿌리를 캐 가지고 뿌리째 잎사귀를 척척 찌어서 그걸 가지고.

이 병원에서 뱀에 물렸으니까 침으로 이걸 놓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는 칼로 이만큼씩 채더라고. 세 군데를 쪽 쪽 그냥 이거 아몰어 붙지 말라고. 우리 애 지금도 보면 자국이 있어요. 발 요기에.

그래서 놀러 업고서는 와가지고. 그니까 이눔이요. 업고 오면서도 여기 인제 이걸 묶었잖아. 이게 풀어지면 아버지 아버지 이거 풀어져요. 나 죽어죽어 이래. 조금만 놔미

“야 그게 그렇다고 죽니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오면서 달밤에. 개울 옆에 천지야. 민들레가 옛날에는 천지야. 하여튼 그래 그걸 몇 뿌리 캐가선 애를 업고 집에 와서. 지금 이 안방이야. 결혼 때 해온 요를 깔고 거기다가 눕혀 놔지.

그리고선 말 그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척척 찌은 거야. 절구에 다. 그래서 뭐 있어. 넓적한 뭐 형질 이런 거를 눌러 해가지고 여기다 이걸 척 붙여서 감아서 놔거든요.

아침에 거길 가보니까 하도 고단해 죽겠는데 가보니까 요가 다 젖었어요. 물처럼 다 젖었는데.

조금 있다 아가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는 거야. 물이 다 빠져 나온 거지. 독물이 밤에 그걸 붙이니까.

그래서 그 이상 뱀에 물린 데는 민들레 뿌리째 척척 캐가지고. 그걸 근데 침을 맞아야지. 구멍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붙이면 이들도 안가요. 그냥 돌아다니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봐서 내가 그걸 알아 최고예요. 아주 특효약이야.

## 벌에 쏘였을 때

벌에 쏘일 때는 약이 없던데. 옛날에 말벌에 쏘이니까. 이(齒) 있잖아 이 칫솔질을 많이 안 하잖아요. 이똥을 긁어 거길 바르더라고.

이 똥을 요. 이빨에 끼어 있는?  
응 그걸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발라. 된장 같은 건 안 바르고.  
효험이 있어요?  
효험이 있기에 그러지. 그 사람 침도 독하잖아요. 이게 독해요.  
그 다음에 그 렌즈(콘택트렌즈) 빠진 것도 침을 발라가지고 이걸 끼우  
면 더 뭐 돼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게 침이 소독도 되고 그런 모양이야.

### 벌레에 물렸을 때

벌레, 썩기 따끔하지 뭐. 그런데 그런 거는 크게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옛날에 풀 할 적에 썩기한테 쏘이지. 또 풀도 썩기풀이 있어요. 썩기만 그런 게 아니라. 풀인데 쏘는 풀이 있어.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게 약도 없고. 뭐 썩기풀한테 쏘였네. 벌거면 그걸로 쓱 닦고. 그렇게 하고. 소독한다고 소금물해서 그렇게 쓱쓱 문대고. 그렇지 않으면 소금으로 문대고 쏘인데 그냥 그거야. 옛날에는 그런 거야. 그니까 그게 지금 보면 그게 소독이야. 소독 소금물이 소독이야.

### 마마, 손님, 홍역

마마, 천연두, 홍역 그렇잖아요. 그거는 방에서 밖에 못 나오게만 했지 약이 없었지.

그 다음에 열 내리라고 가재를 잡아다가 가재 물을 해 먹이더라고. 그냥 생 가재를 찌어서 물을 짜가지고. 그게 열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는 그건 몰라. 하여튼 그런 걸 그렇게 해 먹이고. 바깥에 나오면 눈이 뭐 어떻게 된다고 해서 바깥에도 못 내다보게 하고. 방에다 놓고서 그저 그렇게 해 주고.

음식하고 이러면 아무나 못 했잖아요?

음식은 뭐 옛날에야 뭐 먹을게 있썩. 먹는 대로 늘 그렇게 갖다 주고. 물 지금으로 말하면 화로에다가 물을 올려다 놓고 따뜻한 거 먹으라고 그런 거야. 옛날에는.

근데 마마 걸리면 잘 안다면서요?

그럼. 어디 뭐 누가 오지도 않고 저 집에 애들은 홍역 걸렸다. 마마 걸렸다. 인제 그러잖아 그럼 그게 번진다고 해서 그거 오고 가지도 못 하게 했어.

### 학질

학질은 별별 떨잖아. 고개 6.25 막 나고 학질이 많았어. 많았는데. 오전에 떨면서 걸리고 오후에 괜찮고. 그랬거든. 그게 증상이 근데 학질이 약이 없어요. 그 당시에 앓다가 낮게끔. 그 이튿날 오늘 내가 학질이 걸렸어 그럼 앓으면 아이고 내가 아침서부터 12시까지 혼 나는 거야. 오후만 되면 낮고 그게 그렇게 약이 없었어요. 그게 그때 학질에 갱기라고 그랬나. 뭐 그런 약이 있었는데 무슨 약. 그 약을 지금 잘 모르겠네. 무슨 갱기라고 그랬는데 약국에서 파는 약인데. 쓰고 그랬는데.

### 두통

머리 아픈데 약이 어디 있썬. 아프다고 그러면 머리 잔뜩 동여매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드러눕고서 냉수 떠 놓고 빌고 그랬는데. 그게 뭐 형식적인 거지 냐나. 그럼 없어.

### 설사

이 설사라는 게. 먹고 체하면 설사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설사가 옛날에는. 상한 거 잘 못 먹으면 죽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 쉰 음식 먹고 그 뭐라고 그래요. 식중독 그게 비슷하게 걸렸거든.

그 약 좋은 거는 산딸기 있잖아 산딸기 뿌리. 이거는 지금도 산에 다니는 사람 알면 절대 괜찮아요. 산에가 밥을 먹고도 식중독에 걸려서 금방 설사하고 금방 쪽 뺏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이게요. 그러면 산에 가면 산딸기 있잖아. 그 뿌리를 캐서 씻어서 생 걸 산에서 금방 안 되니까. 생 걸 그냥 착착착 찌서 주물러. 물에다 조금 주물렀다가 먹이면 한 시간이면 멎어. 그런 거는 내가 금방 고쳐보고 그랬어요.

미나리는 그런 거 없고. 그전에 산딸기 말고, 그때 그거는 지금 보면 보양식이잖아요. 부추를 썰어서 쌀을 넣어서 흰죽에다가 끓여가지고 먹었거든. 그런데 그건 보양식이야. 설사약이 아니고 원기회복 하라고.

## 딸국질

깜짝 놀라게 하던지. 등을 딱 치면서.

물을 한 그릇에 넣고 세군데 돌아가게 하면서 마시게 하고, 물을 한 그릇을 놓고 이쪽저쪽 돌아가면서 세 군데서 마시게 했지.

딸국질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며칠 동안. 그러면 초가집이 있어. 초가집 속에 썩은 것 오래 된 것. 그것을 삶아서 먹이면 딸국질이 떨어져. 그 물을, 그러는데.

## 급체

급체해서 내가 죽었거든. 그래서 신남을 갔는데. 돼지고기 망가진 거에다가 콜라를 준거야 나를. 그때는 내가 펄펄 할 때야. 제무시를 타고 집에 들어 왔는데 죽겠는 거야. 아주. 가슴이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쓰러진 거야. 화장실에서 기어 나오다가 저기에서. 그래 동네사람이 죽었다고 다 온 거지. 그러니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야단이 났잖아.

여기 장일순이라고 그 양반이 대장도 하고, 그런 빌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아이고, 와보니 사람이 죽었잖아. “어이구, 큰일 났군.”

그러더니. 이 양반이.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썩은 새 있잖아요. 지붕이 옛날에는 다 달집이니까. 그걸 한 움큼 떼다가 빨리 삶으라고. 그래서 삶으니까. 그 물을 떠 넣어서. 조금씩은 내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체 했을 때도 그렇게 하구요?

그게 나는 딸국질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체해서 까무라 쳤는데도. 그렇게 떠먹이니까. 내가 살아났어요. 그 때 나 장가가서 그랬는데. 난 완전히 꼭 체해서 그랬는데. 그때 그런 걸 못 만났으면 그걸로 놀러 죽었지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런 일은 있어.

그런데 딸국질에는 그런 걸 봤는데. 내가 그렇게 먹고 살아 났으니까. 그게 아주 신비한 거지 뭐. 지금은 저런 데서도 금방 해 먹이려고 해도 짚이 있나 못 구하지 뭐.

### 삼잡기

그건 삼이라고 하지 삼. 삼 썼다고 하지. 눈에. 그러면 저런데다가 그림을 그려 놓고 바늘을 꼽았지. 그림에 다가. 눈을 그려 놓고 바늘을 꼽았지. 몰라 그건 진짜 그래서 낫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이 있었지. 종이에다가 그려서도 붙이고 벽에다가 그려서 놓고 그랬지.

### 제웅치기

그런거는 안 했어요. 사람 모양으로 하고 그런 거는 여기서는 없어요.

### 달맞이

보름 때는 그냥 자기 나이대로 끈을 묶는 거야. 자기 나이대로 저릅대나 수숫대를 나이만큼 묶어서. 불 붙여 놓고서 달맞이 절하고. 그랬어요.

### 똥똥

우리 죽었는데. 그 고모의 딸이 거기 빠졌었거든. 그러면 그게 뭐 좋지 않대. 죽는다고 그러던데 죽지는 않고 오래 있다가 죽더라고. 그런데 그 약이 뭐 없더라고. 똥똥에 빠진 거는 없더라고. 시루떡 해서 빌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건 그렇게 신경 안 쓰던데. 똥똥에 빠졌으니 씻는 거는 몇 번 씻어 줘. 잘 씻어줘야 해. 그러니 그냥 비는 거지 뭐.

### 응혈(凝血), 위장약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약이라는 게 없잖아요. 끌려가서 곤장을 맞으면

오지도 못 했잖아. 걸어서. 그때 곤장을 맞은 사람들의 약은 잣나무 송기를 해 먹었대요. 잣나무가 한 5월에 송기라는 게 나무가 크면서, 송기를 해 먹었다는 거야. 소나무 송기가 아니고 잣나무 송기를 해 먹었다는 거야.

이 다친 데도 해 먹었다는 거야. 속껍데기. 달콤하고 맛있잖아. 위에는 그게 그만이야. 그게 그러면 시기가 5일만 넘어도 안 돼요. 5월 10일경에서 15일 20일까지 가는데, 철수가 늦고 이른 데에 따라서 빠르고 늦어요. 그럼 내가 해 먹고 싶으면 벗겨보세요. 그러면은 껍데기 벗기고 속에 하얀 게 꽤 두꺼워요. 아주 그건 목 같은 게. 그럼 껍데기를 싹 벗기고 낫으로 싹 내리면 목 같은 게 짜악. 그럼 그걸 먹는 거야.

그럼 위에는 그게 굳으면 잣나무 송진이야. 그게 송진이지. 그걸 요즘 몇 해 안해 먹었지만. 그전에는 그걸 계속 먹었지. 위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

그거는 우리 나이가 60살 정도 되면 먹을 수 있으면 몇 번 먹으면 좋아요. 근데 그 시기가 넘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4월 5월 그게 굳으면 나무가 되는 거야 나무. 그걸 먹을 수가 없어. 그 시기가 되면 3~4일 며칠 동안에 그걸 먹어야지 먹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바로 와야지. 며칠 있다가 오면 먹을 수가 없어 벗겨 놓을 수도 없어. 나무 이만 한 거 하나면 몇 사발 나와요. 그것도 처음에 오는 사람은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와요. 어느 정도 먹고. 그 이튿날 먹어야지. 그 약이 좋아요.

## 상문살

상문살은 안 좋지요. 아 상문살 걸리면 옛날에는 복술 밖에 없었잖아. 그 옛날에도 무당은 있었는데, 이게 뭐 떡 해 놓고 돈 달라고 해서 무당을 데려다가 쓸 수는 없고. 복술이라고 하잖아 복술. 복술은 복 치면서 이렇게. 여 정자리도 복술이 있었는데, 대신 보낸다고 닭을 사오라고 그래요. 닭을. 닭을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걸 경을 읽고 계속 그래 가지고 대신 보내는 거야. 상문살 대신 닭을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 닭이 죽

는 게 있어요. 산 닭을 묶어서, 나가서 삼거리면 삼거리. 거길 나가 닭을 붙잡아 놓고 칼을 던지고 그러는데 닭이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 상문살은. 대신. 상문살이 걸리면 심하잖아요.

### 삼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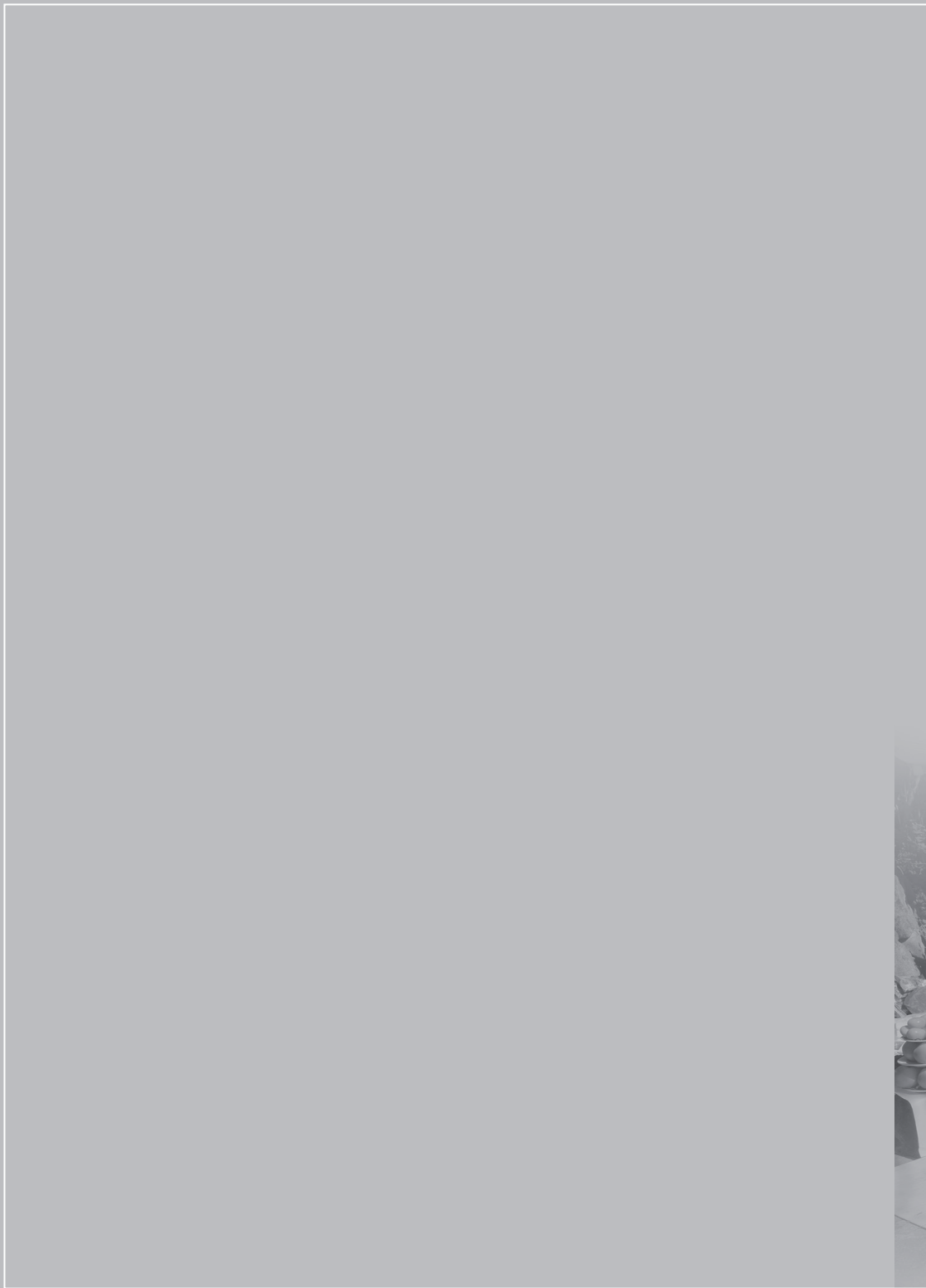
지금도 그렇죠. 삼살 방향이 있잖아. 지금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집터니 삼살방향이 이런 걸 몰라요. 지금 화장하는 판인데, 지금 삼살방향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대통령이 죽으면 어느 나라도 화장하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의 모택동인가. 그 사람이 화장을 해 가지고 바다에다가 널리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명당인거예요. 그 넓은데다가 뿌리고.

나는 지리는 잘 모르는데. 지리를 공부한 분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신경을 좀 썼는데 물 명당이 있어요. 그러면 천하명당이 지금은 전라도 합치는데 저 뭐지 그 노래도 있잖아. 하동의 그 무슨 강이야. 섬진강. 천하명당이 우리나라 섬진강. 그러면은 내가 죽었잖아. 그럼 한 곳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꼭대기 백리길이란 백리 길은 다 골고루 뿌려야 돼. 그래서 천하명당이 섬진강이야. 두꺼비 길이니까. 복 들어오죠.

그다음에 여기를 살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삼살로 가면 안 되고 못 되고 그런 걸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가려. 안 가리는데, 삼살방은 죽어서도 못 가는 데가 삼살방이야. 죽어서도 삼살방으로 가면 안 돼요.

그전에는 삼살 그런 거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복술이나 이런 분들이 점을 해가지고 동토가 났네. 삼살방으로 갔네. 그러면은 칼을 가지고 가서 자기 나이대로 발자국을 걸어가지고 굿고 칼을 내 던지는 것도 있고. 삼살 방향 쪽으로, 동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예방이지 뭐. 그렇게 예방하는 것도 있고. 무서운 거는 동토 났다고 그러잖아. 여기도 우리 집뜨락에 삼살방쪽에 뭘 다시 만들고 썩어 간다는데. 동토야. 그리고 도로 뜯어내서 다 원위치 해 놓으면 그 또 괜찮은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참.



---

제11장  
민속신앙





## 민속신앙

### 기령골지당

정자리 2반이다. 기령골로 곧장 올라가면 조립식으로 지은 꽤나 큰 집과 대단위 비닐하우스를 볼 수 있다. 바로 그 비닐하우스 좌측으로 들어가면 약간 비탈진 밭이 있다. 2016년 7월에는 감자를 심어 놓았다. 이 밭 좌



기령골 지당

측의 가장 자리로 걸어가면 산 아래에 이르게 되는데, 약 30여m 밭 가장 자리로 들어가면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계곡이 있다. 계곡에는 물길이 적으나마 그치지 않고 흐르고 있으며, 위에는 숲이 우거져 있다. 바로 그 계곡 옆에 보면 평평하게 닦아놓은 곳에서 지당을 만날 수 있다.

지당 왼쪽에 계곡물이 흐르고 계곡에는 큰 바위가 둥그렇게 놓여 있다. 지당은 통나무를 베어서 귀틀집으로 만들고 그 위에 슬레이트를 올려 지붕을 하였다. 당집의 크기는 사방 1m정도이며, 귀틀은 3면이고 앞은 트였다. 바닥은 보도블럭을 깔아놓았다. 지당 안에는 한지는 없고 실타래가 걸려 있었다. 바닥에는 양초와 우유병이 놓여 있었다.



이곳 신령은 산신과 서낭신이다. 그래서 메는 두 개를 놓는다. 돼지는 통상 1마리를 쓰는데, 어떨 때는 돼지머리만 쓰기도 한다. 술은 막걸리를 놓고, 떡은 시루떡만 찌서 올린다. 제사는 매년 3월 3일과 4월 8일에 지낸다. 지내는 시간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이다. 마을에 있는 4가구에서 공동으로 제사를 지낸다. 비용은 네 가구가 각출을 한다.

2016년 9월 9일에는 떡을 해오는 사람이 아침 6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해서 일찍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일찍 제사를 지내는 것은 농사일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날은 농사일 때문에 바쁜 탓에 돼지를 마리로는 하지 못하고, 돼지머리를 사서 올렸다. 돼지머리와 과일 떡 등을 올리고 호수별로 안녕과 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을 하였다.

마을에 화전정리를 하기 전, 가구 수가 많을 때는 마을제사가 열릴 때가 되면 집집마다 음식을 해 가지고 제당으로 올라와서 차렸다. 어떤 집은 막걸리를 하고, 어떤 집은 시루떡을 하고, 어떤 집은 절편을 하는 식으로 각자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제당에 모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날은 마을사람 모두가 먹고 마시며 노는 잔치를 이뤘다. (제보자: 심



기령골 지당2

덕용(남, 62) 신남리. 2016.7.21. 10.9. 기령골 토박이로 아이들 공부 때문에 신남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농사를 기령골에서 지으면서 사실상 기령골에서 생활을 하다시피 한다. 현재 마을제사 주관을 한다.)

2016년 10월 9일(음력 9월 9일) 이날은 기령골을 비롯해서 정자리에서 서낭제가 열리는 날이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자리로 갈 준비를 하였다. 날씨가 쌀쌀한 탓에 마을제사가 늦게 열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여기 그날의 상황을 대강 적어서 사실을 알린다.

나는 춘천에서 출발하기 전에 먼저 기령골 제사를 주관하는 심덕용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다. 기령골 마을제사를 몇 시에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혹시나 내가 가기 전에 지낸다면 마을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사진으로라도 찍어 남겨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아 무작정 정자리로 향했다. 정자리에 도착해 보니 아직 셋골의 거릿말 서낭당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기령골로 향했다. 기령골에 당도해 보니 벌써 농부들은 농사일에 열중이었다. 넓은 농토 이곳저곳에서 각자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서낭당으로 가려다가 심덕용 씨의 농장으로 올라갔다. 차는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아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마을제사에 대해 물으니 벌써 지냈다고 했다 농사일 때문에 일찍 지냈다고 했다. 너무나 바빠 농사일에 열중하고 있어서 꼬치꼬치 제사에 대해서 묻기가 곤란했다. 그래서 심덕용 씨를 찾았더니 위쪽을 가리키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얼른 발길을 옮겨 갔더니 날씨 탓인지 검고 두꺼운 점퍼를 입고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온 인기척을 들었는지 돌아보고 또 왔냐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제사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떡을 가져오는 사람이 6시 30분에 도착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 제사를 지냈다고 했다. 무척 안타까웠다. 꼭 기령골 제사를 보고 싶었는데 농촌이쉬움 때문이었다. 이쉬움 때문에 옷을 얇게 입었던 탓도 있지만 더욱 추위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나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고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심덕용 씨의 집이 있는 신남으로 찾아가겠다는 말을 하고 셋골로 내려왔다. 빼걱대는 자동차의 소음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 셋말서낭당

정자리는 4개 반인데 반마다 서낭당이 있다. 3반은 정자리의 중심 마을이라 할 수 있는데, 마을 중간 길 옆에 서낭당이 위치하고 있다. 길가에는 태극기와 무당의 신기(神旗)가 세워져 있고, 그 아래에 ‘정자리 서낭당’이



정자리 서낭당 안내판

라 쓴 나뭇조각으로 된 서낭당 팻말이 세워져 있다. 팻말은 다 뜯겨져 나가 초라하지만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다. 팻말 옆을 보면 울창하게 나무숲이 있다. 이 팻말이 있는 곳은 서낭제를 지낼 때 수문장이 머무는 곳이라 한다. 수문은 서낭당을 지키는 신이 머무는 곳이다. 서낭당으로 들어오는 입구로 수문장을 위해서 제물을 따로 놓아둔다. 이곳은 옛날 서낭당이 있던 곳이다. 도로가 나면서 지금 있는 곳으로 서낭을 옮겼다.

팻말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내려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나무에 걸쳐 놓은 몇 개의 연등(燃燈)이다. 그리고 개울가에 있는 두 개의 초를 밝히는 집기류이다. 그 집기류 위에는 작은 돌부처와 소주와 막걸리와 향로가 놓여 있다. 이곳에는 커다란 돌배나무가 놓여 있어서 매년 돌배를 몇 킬로그램씩 수확을 하고 있다. 나무 아래는 이곳 서낭당에서 사용하는 식수가 앞산 금산골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물이 쿵쿵 흐르고 있다. 바로 이곳은 용신이 있는 용신당이다. 그래서 서낭제를 지낼 때는 각종 제물을 올려 용신을 위한다.

그리고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누군가 기거하고 있는 조립식 판넬로 만든 작은 집이 나온다. 그 집 앞에는 ‘정자리서낭당’이라고 한글로 간판을 달았다. 그러나 이 조립식 집은 일명 범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곳의 산신각이라 했다. 산신각은 작지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세 개



서낭제 장면(2016.9.9)



셋말서낭제(2016.9.9)

의 탕화가 있어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집 옆에는 시멘트와 물돌을 사용해서 만든 돌탑이 있는데, 수 돌탑이다. 돌탑이 사실상 서낭당이라고 하였다. 서낭신이 여신이라서 돌탑을 수돌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돌탑 앞 아래쪽에는 미단이로 만든 작은 창문을 만들어 놓았다. 창문 안에는 커다란 초가 두 자루 불이 켜 있는 상태로 타고 있었다. 돌탑의 크기는 높이가 약 5m이고, 너비가 약 4m 정도 되어 보였다. 돌탑 옆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고, 나무에는 오색 천이 매어져 있는데 그 천은 굵을 할 때 부정을 가르는 것이다. 아울러 연등이 열 개 이상 매달려 있었다. 돌탑과 나무 앞에는 시멘트로 된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 제단 위에는 술병과 음료수 병이 몇 개 놓여있고, 신령의 상을 한 인형이 네 개가 있으며, 조화 다발이 네 개 놓여 있었다.

산신당과 돌탑 사이에는 반쯤 고목이 된 커다란 가래나무가 서 있다.

돌탑 맞은 편 개울 쪽으로는 버드나무가 있고 그곳에는 네 개의 연등이 걸려 있으며, 나무 앞에는 둥그런 판이 있고 판 위에는 막걸리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이곳에는 둥그렇게 깎은 대리석이 놓여 있는데, 서낭제를 지낼 때 객귀밥을 주는 곳이다. 객귀는 제사를 지낼 때 서낭신의 영역이 신성구역이라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귀것들을 위한 음식을 놓아먹게 해 주는 곳이다.



제사는 9월 9일 중구날에 지낸다. 시간은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이다. 그전에는 3월 3일에도 지내고 음력으로 2월에 좋은 날을 받아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다가 요즘에 들어서서는 9월 9일만 제사를 지낸다.

예전에는 산지당이라 했는데, 요즘 들어서 서낭당이라 일컫는다. 신은 여자라고 한다. 할머니라고 한다.

예전에는 제보자의 남편이 반장을 보면서 약 20년간 제사를 주관해 왔다. 이때는 3월 3일에 하고 9월 9일에 하고 두 번을 했다. 그런데 제보자가 정자리로 시집오기 전에 제보자의 집 자리서 살다가 갔다는 춘천에 사는 무당이 있다. 어느 날부터 이 무당의 꿈에 자꾸 이 서낭당이 나타나서 이곳에 와서 치성을 드리면서부터 마을제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중구날 제사를 올릴 때 같이 지내면서 성의껏 제비를 모아 드린다. 그 무당은 제사음식을 한 것은 모두 이 마을에 두고 간다. 그러면 제보자가 음식을 모두 나눠준다. 무당은 나이가 환갑정도이다. 마을제사를 지내는 날이 아니더라도 무당은 자주 와서 치성을 드리고 간다.

제물은 마리(돼지 1마리)를 쓰는데, 삼지창에 꽂아 놓는다. 제사를 지내고는 마리를 나누어서 먹는다. 떡은 시루떡도 하고 가래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 제상을 차리고는 마을사람들의 이름을 들추면서 안녕과 다복을 빈다. 소지를 올리고, 축문은 따로 읊지 않는다.

마을제사를 지내고 나면 마을에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간다. 악성이라는 것



수구신제



용신상

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이 잘 넘어간다. 아주 깨끗하다.

신수는 돌배나무인데 그 나무는 6.25전쟁 이전부터 있는 것으로 지금은 오래돼서 나무속이 비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아들이 지금 34살인데, 도



객귀상

로를 닦기 전에는 길 바로 옆에 있어 높이가 같았다. 세 살 먹던 해이다. 신정으로 하면 4살이고 구정으로 하면 세 살이었을 때다. 음력으로 따지면 8월인지 9월인지 그 달 수는 정확하지 않다. 그때 동갑짜리 둘 하고 한 살 덜 먹은 애하고 아무 이유 없이 서낭당을 모두 부숴다. 그 당시 서낭당은 나무토막을 잘라서 만들어 놓은 서낭당이였다. 그런데 제보자는 남의 일을 가고 남편은 논두렁을 깎으러 갔다. 그래 여기 집짓기 전인데 마루가 있었어요. 그래 일 갔다가 오니까, 영감이 화가 이만큼 났어요. 그래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아들이 서낭당을 다 부숴다는 겁니다. 그때 저 건너 아들만 칠 형제를 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건너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보자가 얼른 가서 아이들 셋이서 서낭당을 다 부셔서 그 안에 초니 뭐 옷이니 실타래 등을 독방 아래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소리 말게 그래 6.25직전에 지었는데 그 산신 할머니가 서낭당이 다 허물어지니까 애들을 불러들여서 허물고 다시 지어달라고 한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깥사람보고 잔을 가져다 부어놓고 내일 집을 잘 지어드린다고 하라더라고요. 그래 와서 우리 영감에게 그 얘기를 했지요. 그래 점방이 있었는데 포하고 술하고 사서 거기에 부어놓고 또 아이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내일 잘 지어드린다고 그러고 나서는 그 이튿날 부숴던 아이들 세 명의 아빠들이 가서 다시 지어드렸지요. 그랬는데 아무 탈 없이 아이들도 잘 크고요. 우리 아들도 하루에 금메달을



마리 세우기



성황대제 위패

두 개씩 타고요. 그래 서낭당을 부수고도 아이가 아무 문제없이 잘 컸어요. 그래서 서낭당 꼭대기에 함석을 이어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웃 할아버지가 담배 사러 내려오는데 하도 후당당대서 술주정뱅이가 주정을 하는 줄 알고 저리로 돌아서 이 집으로 오니까 글썽 아이 셋이서 이리로 내려오더라요. 근데 우리 아들 하는 말이, 학천이 아들이 아이고 야 도끼를 안 가져왔다. 우리 아빠는 도끼를 놓았던 자리에 놓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되게 혼나. 그러면서 도끼를 가지러 간다면서 도끼를 가져다가 아버지 났던 자리에 그대로 가져다 놓았더라요. 그래서 너 왜 그걸 부숴냐고 하니까. 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왜 부숴는지. 그래서 아이들 아버지 셋이서 서낭당을 잘 지어드렸어요. 그 후 메를 지어놓고 계속 우리가 하다가 그분이 꿈에 현몽을 하고 나서서는 그분이 말아서 합니다. 그분은 박 씨라고 한다. 그래 그분한테 얘기 했더니 다시 지어달라고 한 것이 맞다 하더라고요. 일이 되려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지요.

돌탑은 춘천의 박 씨는 무당이 쌓은 것이다. 신령이 여산신이라서 수탑을 쌓았다. 원래는 길가에서 보이게 세웠는데, 마을에서 누가 뭐라고 해서 길에서 내려 탑을 세웠다.(제보자: 이금화(여, 72) 정자리 2016.7.21.)



10월 2일 춘천 소양로 봉의산 아래에 있는 소천암을 찾았다. 가을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날이었다. 소천암은 번개시장골목 길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택 1층을 신당으로 꾸며놓았다. 문이 열려 있어서 헛기침을 하며 들어서니 단아한 모습의 노인이 나를 맞았다. 나는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내밀면서 내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정자리 서낭당 때문에 인터뷰를 하러 왔다고 방문 목적을 알렸다. 인터뷰는 바로 진행 되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정자리 서낭당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태생이 정자리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다. 물론 고향에서 계속 산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였기에 정자리에서 태어났고, 크면서 갑둔초등학교, 사창초등학교 등을 거치면서 많은 이사를 했다. 그리고 시집을 가서 경남 밀양에 가서 살다가 무당을 하게 되었다.

무당으로 나서게 된 것은 7남매였는데 동생 세 명이 비명에 가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어머니가 큰집에 갔을 때 보니 무당이 타는 작두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형제자매들 중에 누군가 무당이 되어 계승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동생들이 단명을 했다고 판단 하였다. 그래서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 부산에서 무당이 되고 안동에 와서 안동민속 굿에 가담하여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춘천으로 와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춘천에서는 소양제 등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소양제 굿당에서는 작두 타는 무당으로 유명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정자리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정자리서낭당이 있는 위쪽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서낭당의 신이 개울가 아래로 내려와서 서낭당을 짓고 굿을 하며 자신을 모셔달라고 하였다. 이때는 이미 동네 아이들이 무단히 서낭당을 부순 사건이 있을 때였다. 아이들이 서낭당을 부순 것은 이미 서낭신이 알고 아이들을 시켜서 부수게 만든 것이라 했다.

그렇게 정자리와 다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에 매년 단오와 중앙절이 되면 정자리에 가서 서낭제를 지내고 마을 경로잔치를 열게 되었다.

마을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서낭제를 지내면서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마을 노인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하고 인순선 인제군수로부터도 감사패를 받았다.

단옷날 경로잔치를 할 때는 군수 내외가 모두 와서 함께 한다. 재작년에는 무려 60여 분이 와서 잔치를 빛내주었다. 그때는 그 다음 다음 날이 투표일이라 정자리 경로잔치가 디데이행사였다. 그래서 선거운동원들 먼저 대접하고 나중에 노인들 식사대접을 하였다. 그 때문에 남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정자리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2016년에는 마을사람들의 양해를 구하고 서낭굿을 하게 되었다. 서낭굿은 박정숙(여, 65) 무당의 주관으로 행해진다.

2016년 10월 9일(음력 9월 9일) 아침 7시 30분에 춘천 집에서 출발해서 정자리로 향했다. 이날은 정자리에서 서낭제가 열리는 날이다.

나는 먼저 기령골에 갔다가 제사가 6시 30분에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탈한 마음에 셋말로 내려왔다. 행여나 이곳도 안심했다가 놓칠 수 있다는 기우 때문이었다. 그러나 셋말에 내려왔더니 아무도 없었다. 춘천의 날씨만 믿고 옷을 얇게 입고 간 것이 내내 후회 되었다. 얇은 여름 점퍼이지만 목까지 꼭 옷깃을 여미고 가까운 마을을 둘러보았다. 이미 여러 번 왔다가서 익숙한 마을이지만 아침 일찍 보는 마을의 풍경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서낭당 아래에 있는 쉼터가 눈에 들어왔다. 울긋불긋 주변에 심은 나무들이 벌써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살살이 살폈다.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등나무며 나무 의자가 얼른 눈에 들어왔다. 주변에는 산수유, 산사춘, 마가목 등의 나무 열매가 가을을 맞아 붉게 물들어 있었다. 족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터는 누가 가꾸었는지 풀 한 포기 없이 깨끗했다. 공터 아래 물 건너 다리 쪽에는 고추를 따서 상자에 담아 경운기에 싣고 오는 노인이 있었다. 나는 다가가 인사를 하고 오늘 서낭제를 보러왔다고 하였다. 노인은 고추를 따서 가락동시장에 보내기 위해

서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을 했던 모양이다. 몇 가지 마을에 대해서 물었으나 잘 알지 못 한다고 하였다.

시간이 왜 이리 더디 가는지 나는 처음 느낀 듯했다. 아침 10시에 서낭제를 지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1시간 남짓 기다린 시간은 참 오래 걸렸다. 그렇게 마을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대로 구경을 하며 보내다 보니, 가락동시장으로 가는 농산물 운반 트럭이 서낭당 앞에 와서 섰다. 웬지 먼저 몇 번 보았다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뜨문뜨문 마을사람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 차에 싣고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을 보며,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했으나 판로 때문에 애를 먹던 생각이 났다. 참 좋은 시스템이란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덧 시간은 10시로 접어들었다. 나는 혹시나 잘못 날짜를 알지 않았나 해서 박정숙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다. 약 15분 후면 도착한다고 했다. 이윽고 서낭당에 도착한 그들 일행은 차에 싣고 온 온갖 제물을 내렸다. 참 많기도 작은 차에 싣고 왔다. 3명이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제물을 차리기 시작했다. 제물은 산신당, 서낭당, 용왕당, 수문장, 객귀까지 모두 5곳에 차렸다. 물론 주요 제단은 서낭당이라 돌탑 앞 야외에 마련된 큰 제단에 풍성하게 제물을 차렸다.

‘정자리서낭당’이라고 쓴 조립식 건물은 사실 산신당이라고 했다. 탕화가 세 개 걸려 있는데 모두 모양이 달랐다. 왼쪽에는 대감 모양이고, 가운데는 호랑이와 시녀를 데리고 있는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 모양이고, 오른쪽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와 부채를 들고 갓을 쓴 역시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탕화 아래에는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옆에 끼고 산삼을 들고 담뱃대를 앞에 놓고 있는 상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두 명의 시녀가 있고, 오른쪽에는 크기가 작은 호랑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이 산삼을 들고 있는 모습의 인형이 놓였다. 그 주변에는 다양한 지화(紙花)가 꽃혀 있었다.

제단에는 갖가지 제물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고, 옆에는 갖가지 굿 도

구가 있었다. 옷, 칼, 창 등이 주변에 있었다.

산신당 안에는 전기를 가설해 놓아서 냉장고며 밥솥이며 모두 전기로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전기장판을 깔아서 바닥을 금방 따뜻하게 데웠다.

산신당 옆 서낭당에는 정말 푸짐하게 제물이 차려졌다. 돌탑과 느티나무 신수가 있는 앞에는 커다란 시멘트로 만든 제단이 있다. 느티나무에는 오색천이 감겨져 있었다. 오색천은 예전에 걸쳐놓은 것도 있고 새로 걸쳐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초를 놓을 수 있는 장롱구조물이 양쪽으로 있고, 초장(醋藏) 옆에는 돼지를 올리는 나무로 된 큰 제단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다. 세 여인은 정말 손이 빠르게 움직였고, 두 시간여가 지나자 제물이 다 차려졌다. 제물은 산신당, 서낭당, 용신당, 수구당, 객귀 등으로 차린 제물이 모두 달랐다. 내용물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다. 특히 수구당에는 제물을 차리면서 막걸리를 따랐는데, 그때 무당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역시 막걸리를 마시니 좋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어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굿을 시작하였다.

굿은 부정을 가시는 부정굿을 먼저 하였다. 그리고 본 굿인 서낭굿을 하고 산신굿을 하였다. 서낭굿 중에는 굿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수를 내리기도 하였다. 서낭굿과 산신굿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서낭굿을 할 때는 삼지창으로 돼지를 마리째로 찢어 세우기도 하였다. 마을 사람 오홍인 씨도 함께 참여해서 돼지를 세우기도 하였다. 굿을 하는 중 마을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개울 건너편을 지나가면서 구경을 하기도 하였다.

산신굿을 하는 동안에는 돼지를 손질하여 옮기기 좋도록 여러 개의 비닐에 담았다. 그리고 갈비 부분을 화로에 숯불을 피워 구워 함께 먹기도 하였다. 굿이 끝나면 이곳에 차렸던 제물은 모두 동네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고 하였다.

마을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았는데, 노인들 몇 명만 참여를 해서 동네가 함께 하는 마을제가 퇴색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어찌 되었던 정자리 마을굿은 마을의 서낭제와 굿이 함께하는 전통을 잇는 좋은 민속제이라고 할 수 있다.

정자리 마을 당산굿을 하면 서낭 할머니가 실려서 마을의 대소사를 비롯해서 참가한 사람들에게 점괘를 준다.(2016.10.5.)

정자리 셋골서낭당에서 예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마을사람들이 집집이 음식을 가지고 왔다. 떡을 가져오는 사람, 막걸리를 가져오는 사람 등 9월 9일이면 이곳 제당에 먹을 것이 잔뜩 쌓였고 동네 아주 큰 잔치가 열



강 건너에서 본 장면

렸다. 동네사람 모두가 와서 서낭제를 지내고 하루 종일 음식을 먹으면서 놀았다. 동네의 큰 축제였다.

그러던 것이 이곳에 사람들이 하나 둘 돈을 벌어서 버딩(도회지)으로 나가면서 지금은 서낭제가 박정숙 무당의 주관으로 열리게 되었다. 제보자의 조카딸로 이곳에 와서 정성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크게 지냈던 서낭제가 이제는 각 반별로 나뉘지고 지금은 여기 반에 해당하는 사람만 몇 사람 온다고 했다. 여기 반 사람은 몇 안 돼서 참가자도 적다고 했다. 특히 요즘은 고추 따느라고 바빠서 마을 서낭제에 참가하는 사람이 적다.

옛날부터 이곳에는 지당님과 서낭님이 두 분 있었다. 지당은 산신님을 뜻한다. 그래서 지금도 산신당과 서낭당이 따로 모셔지고 있다.(제보자: 이옥녀(여, 84)2016.10.5.)

여기 서낭당은 옛날에 마을 축제의 장이었어요. 일 년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추수를 해 가지고 떡을 하든 밥을 하든 술을 하든 여기 서낭에

가져다 고했다. 누가 해 왔다고 한 사람 고했으면 또 한 사람 뭘 해왔다고 고했고 하였다. 그렇게 고했고는 그 음식을 내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먹으면서 하루 종일 놀았다. 그러다 보니 별 사람이 다 있었다. 술을 먹으니까 싸움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각 반으로 서낭제를 나누자고 해서 나누어 졌다.

그리고 여기는 한 십 년 전쯤에 간소화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군인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한 40년 전쯤에는 여기 와서 구일놀이를 했다.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제일 먼저 음식을 해 와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떡을 해오고 찰떡,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술도 한 동이 해오고 해서 그렇게 여기 서낭당에서 하루 종일 먹고 놀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나가니까 이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 이분 네가 아버지가 박영선인데, 원래 여기 살다가 선생님이라서 흥천으로 갔다. 그래 이 양반(박정숙)도 내가 여기서 난 걸 안다. 저기 저 집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 네가 여기 와서 고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일놀이 이런 것 계속하니까. 9일 때 우리 마을에



셋말 산신당 내부



와서 정성을 들여 달라. 그래 이분 네가 와서 한 지가 몇 년 잘 된다. 그래 뭐 돼지도 갖다놓고 과일도 갖다놓고. 그러니 사실 이게 우리 반 대표로 다 하는 것이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은 “저거 뭐 무당이 와서 그래.”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우리 전체 반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저 분이 고마운 게 뭐냐면 동네 경로잔치를 해준다. 경로잔치는 5월 단옷날 한다. 그날은 몇 백만 원어치의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한다. 음식 뿐 아니라, 수건까지 해 와서 저 경로당에서 경로잔치를 해주니 참 고맙다.

그러니 원래는 우리 반의 반원들이 다 모여서 같이 여기 와서 놓고 점심도 잡숯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또 이런데 잘 안 온다. 그래서 오는 분은 이렇게 몇 분이 오고 그런다.

이게 원래 <구월구일놀이>이다. 마을에서 역사가 깊다.

옛날에는 서낭당 옆 언덕에서 산삼을 캐다. 그런데 그걸 캔 사람은 마을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이었다. 그래 그 사람이 나중에 술과 음식을 해 와서 같이 먹고 그랬다. 그때는 마을제사를 지낼 때 몇 십 명이 아니라, 몇 백 명이 모였다. 그래 외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뭘 봤는데, 이걸 누가 본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없다고 그랬다.

“그럼 내가 이 재물을 손을 대도 괜찮겠느냐.”

고 물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그래 아무 일 없다.”

라고 했더니, 큰 산삼을 여기서 하나 캐어요. 그러니까 그 산삼이라는 것도 팔자가 있어야 보이지 아무나 안 보인다. 보이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래 옛날에는 산삼을 캐면, 큰 것 캐면 팔아가지고 돼지 같은 걸 잡아서 산에 정성을 드리고, 동네 분들 잡수라고 그렇게 하곤 하였다. 따로 뭐 하는 것은 없다.(제보자: 오흥인(남, 78) 2016.10.5.)



● 정자리(삿말)지역 마을제(祭)

인제군 남면 정자리(삿말)

조사기일 : 1996.8.24.

고증자 : 정자리 오흥인, 박현균

| 항 목 |            | 내 용              |                                                                                                                                    |
|-----|------------|------------------|------------------------------------------------------------------------------------------------------------------------------------|
| 1   | 제 당 이 름    | 산지당              |                                                                                                                                    |
| 2   | 제 당 위 치    | 마을 북관            |                                                                                                                                    |
| 3   | 제 당 형태     | 당 집 외 형          | 스레이트 지붕, 나무벽                                                                                                                       |
|     |            | 당 집 내 부          | 예단걸이, 소지걸이                                                                                                                         |
|     |            | 주위의 나무명          |                                                                                                                                    |
|     |            | 돌무더기제당           | 없음                                                                                                                                 |
|     |            | 기 타 형 태          |                                                                                                                                    |
| 4   | 제 신        | 믿는신(명)           | 산신                                                                                                                                 |
|     |            | 효험.전 설           |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또한 재난을 막음. 이 마을에서는 음력2월과 8월에 택일을 하여 제를 지내는데 제를 지낸후 곧바로 산제당에 짐승이 나타나면 택일을 잘못하여 제를 지냈다고 다시 날을 받아 제를 지냈다는 옛 이야기가 있다. |
| 5   | 제 관        | 제 주 명 칭          | 도가 (제주)                                                                                                                            |
|     |            | 제주선출방법           |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는사람 1인 선출                                                                                                             |
|     |            | 참 석 자            | 마을주민이 참석                                                                                                                           |
| 6   | 제의 절차      | 제 레 전            | 도가집 송침(청소등을한다).                                                                                                                    |
|     |            | 제 레 절 차          | 도가(제주), 일반주민                                                                                                                       |
|     |            | 제 레 후            | 음복과 음식을 나누어 먹음                                                                                                                     |
| 7   | 제례기일및 시간   | 음력2월과8월          |                                                                                                                                    |
| 8   | 제 수 물 (음식) | 돼지를잡고,떡,메,주,과,포. |                                                                                                                                    |
| 9   | 제례경비내용     | 마을기금으로 거출.       |                                                                                                                                    |
| 10  | 기타내용       |                  |                                                                                                                                    |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7.

### 숫가마골지당[웃말지당]

숫가마골지당은 정자리 1반 지당이다. 매봉재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데, 농토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산으로 약 10~15분정도 걸어가면 지당을 만날 수 있다. 당집은 돌로 쌓아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한 형태이다. 당집 안에는 실을 걸어 놓았다.

제사일자는 매년 2월과 8월 첫 정일이다. 예전에는 좋은 날짜를 따로 정해서 지냈으나 이제는 날을 보는 사람도 없고 해서 첫 정일(丁日)로 하기로 했다. 시간은 보통 아침 8시경이 된다.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언제 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조금씩 다르다. 2월에는 날씨가 추워서 조금 늦게 하고, 8월에는 다들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일찍 제사를 지낸다.

제물은 보통 마리를 쓴다. 2월의 경우는 봄이고 아직 농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일손이 바쁘지 않은 관계로 돼지를 통째로 잡아 사용하고, 8월의 경우는 농사철이라 일손이 바쁜 관계로 돼지머리를 사서 쓴다. 메는 3새 옹메로 하는데, 이는 신이 3명이기 때문이다. 서낭이 암수로 두 분이고, 산신령이 한 분 해서 모두 세 분이다. 그리고 포와 막걸리 등을 제수로 올린다. 막걸리의 경우 예전에는 지당에서 땅을 파고 담가서 항아리에 넣어 묻었다가 익으면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다가 쓴다. 금줄은 예전에는 썼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숫가마골 지당 1(사진 심영춘)



숫가마골 지당 2(사진 심영춘)

도가는 생기를 봐서 정하고, 제관도 생기를 봐서 정한다. 축문은 도가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써서 사용한다. 제사를 지낼 때는 모두 올라가지 않고 도가와 제관 3~4명 정도 올라가서 제사를 지낸다. 요즘은 대개 도가를 돌아가면서 한다.

●정자리(웃말)지역 마을제(祭)

인제군 남면 정자리(웃말)

조사기일 : 1996.8.24.

고증자 : 오흥인, 박현균

| 항 목 |            | 내 용                    |                                   |
|-----|------------|------------------------|-----------------------------------|
| 1   | 제 당 이 름    | 산지당                    |                                   |
| 2   | 제 당 위 치    | 매봉산 밑                  |                                   |
| 3   | 제 당 형태     | 당 집 외 형                | 스레트, 나무                           |
|     |            | 당 집 내 부                | 예단걸이, 소지걸이                        |
|     |            | 주위의 나무명                | 업나무, 피나무                          |
|     |            | 돌무더기제당                 | 없음                                |
|     |            | 기 타 형 태                |                                   |
| 4   | 제 신        | 믿는신(명)                 | 산신                                |
|     |            | 효 협 · 전 설              |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드리며 또한 마을의 재난을 막는다. |
| 5   | 제 관        | 제 주 명 칭                | 도가(제주)                            |
|     |            | 제주선출방법                 |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는 사람 1인 선출           |
|     |            | 참 석 자                  | 마을사람이 참석                          |
| 6   | 제의 절차      | 제 레 전                  | 도가집은 송침을하고 제당을 깨끗이 청소를 함          |
|     |            | 제 레 절 차                | 도가(제주) 마을사람                       |
|     |            | 제 레 후                  | 음복후 음식을 나누어 먹음                    |
| 7   | 제례기일및 시간   | 음력2월과 8월에하며 날씨는 별도로 택일 |                                   |
| 8   | 제 수 물 (음식) | 돼지고기, 주, 과, 포, 떡, 메    |                                   |
| 9   | 제례경비내용     | 마을에서 견어서 한다.           |                                   |
| 10  | 기타내용       |                        |                                   |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7.

## 아랫말지당

정자리 4반의 아랫말에 있는 지당이다. 4반은 지당이 산제당과 거리제당 두 군데 있다. 중심 제당은 양지도롱골에 있는 산제당이다. 이 골은 마을의 제당이 있는 관계로 지당골이라고도 부른다. 당집은 나무를 에워서 둘러쳐져있고, 지붕은 슬레이트로 이었다. 당집 안에는 실과 한지가 걸려 있다.

지금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함석으로 사방을 뒤덮었다.

제사는 매년 2월과 8월 첫 정일(丁日)에 지낸다, 예전에는 날을 받



아랫말 지당

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요즘은 첫 정일로 정해 놓았다.

2월에 지내는 제사는 돼지 1마리를 통째로 쓴다. 돼지는 지당 앞까지 몰고 가서 그곳에서 잡아 제물로 올린다. 8월에는 농사철이라 바빠서 돼지머리를 사서 쓴다. 도가는 반장이 맡아서 한다. 제물은 돼지고기, 술, 새옹메를 쓴다. 메는 3냄비이다. 산지당은 산신령이 암수서낭으로 되어 있어 메를 따로 올린다. 포와 막걸리를 쓰는데, 그곳에서 땅을 파고 며칠 전 술향아리를 묻었다. 지금은 술을 사다가 쓴다. 금줄은 옛날에는 쳤는데, 지금은 치지 않는다.

여자들은 제사 지내는 곳에 가지 않고, 남자들만 올라가서 제사를 지낸다.

양지도롱골의 큰 제사가 끝나면 도가를 맡은 반장이 제물을 챙겨서 작은 지당으로 간다. 보통 저녁에 작은 지당은 제사를 지낸다. 작은 지당은 거리제사인데, 정자리 정자각 맞은편 길 아래에 위치해 있다. 원래는 지금 위치가 아니라 현재 도로가 난 곳에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옮겼다. 도로 옆 약 3m아래 커다란 벚나무 밑에 얇은 대리석을 활용해서 만

들었다. 높이 80cm, 너비 60cm정도의 크기이다. 안에는 타다 남은 양초 두 자루가 있다. 제당 앞에는 작은 돌제단을 마련해 두었다. 제물은 돼지 갈비를 놓고 술을 붙고 치성을 올린다.(제보자: 권오영(여, 78) 아랫말, 2016.7.21.)

2016년 12월 4일 이곳 지당을 찾았다. 집으로 들어가는 다리인 금봉교 옆 밭가에서 예초기로 마른 풀을 제거하고 있는 이종진(62세, 2016년) 씨를 만났다. 원래 목적은 집에 옛 정자리 관련 사



아랫말 지당(뒤)과 제사도구보관함(앞)

진들이 있다고 춘천에 살고 있는 동생으로부터 들어서였다. 그러나 그 당시 사진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름에 이곳에 들렀다가 지당이 멀다고 해서 시간이 여의치 않아 돌아간 생각이 났다. 그래서 다시 그 위치를 이종진 씨에게 물었다. 아랫말에서 바라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계곡에 있다는 것이었다.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걸어서 지당을 찾아 올랐다.

양지바른 너른 밭에는 모두 고춧대가 바짝 바른 채로 있었다. 여름 내내 고추농사를 했던 밭이었다. 밭 옆에는 누군가 오래 전에 살았던 옛 집이 거의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집은 퇴색했지만 시멘트로 지은 화장실은 건재했다. 집 앞에는 고목이 다 된 신배나무가 땅에 가득 신배를 떨군 채 한 그루 서 있었다. 고추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여름에 햇빛을 피해 쉬었던 장소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산으로 오르는 내내 힘든 농사일에 간간히 먹었던 컵라면 용기가 있었다. 땀벌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얼마나 힘든 작업을 했는지 눈에 선하였다.

고추밭을 지나자 물을 모아 밭에 대었던 웅덩이가 있었다. 겨울인 지금도 그 웅덩이에는 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가뭄에 타들어가는 고추밭에 물을 대던 곳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날이 차차 저무는 탓에 밭걸음을 재촉하였다. 추운 겨울인데도 바삐 걸다가 보니 땀이 온몸에 배었다.

밭을 지나 조금 더 오르니, 오른쪽에 웬 바위벽이 있었고 그 바위벽 아래에는 작은 돌탑이 쌓여 있었다. 행여 그 돌탑이 산지당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동안 들었던 모습과는 달랐다. 그래도 내려올 때 그 바위벽에 둘러보았다. 누군가 개인적으로 기원을 하면서 쌓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서 두리번거리면서 좀 더 먼 곳으로 눈을 돌렸다. 바로 그때 산지당이 눈에 들어왔다. 저쪽 멀리 왼쪽으로 하얀 함석집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밭길을 바삐 옮겼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두 개의 함석집이 있었다. 두 개 모두 앞문이 닫혀 있었다.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는 좀 달랐다. “산신님 고맙습니다.”고 인사를 드리고 아래에 있는 함석집의 앞문을 열었다. 커다란 돌이 놓여 고정해 놓았으므로 쉽게 돌을 들어 치우고 안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지당이 아니라, 지당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기 및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였다. 그 옆에는 커다란 솔이 두 개가 있고, 안에는 양초며 그릇이며 각종 제기들이 들어 있었다. 얼른 닫은 후 위에 있는 함석집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진짜 제당은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크기는 제물보관함보다 조금 컸다. 사진을 찍고, 산신님께 “산신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들 드린 후 산신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산신당 안에는 예단으로 올린 한지가 두 곳으로 나누어 걸려 있었고, 오른쪽 지당 지붕 밑에는 오색 천이 포개져 놓여 있었다. 두 분의 신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려와서 이종진 씨에게 물어보니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을 그렇게 사이를 띄워 모셨다고 하였다. 사람도 남녀가 있듯이 신도 부부가 있을 것이라 하여 음양의 원리를 적용했다고 하였다.

지당의 높이는 약 1.5m정도고, 너비는 2m남짓이고, 나무로 골격을 하고 함석으로 사면을 씌웠다. 그렇게 산지당을 보고 내려왔다. 산지당에서



내려와 다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일을 하는 곳으로 갔다.

다음은 마을에 내려와서 이중진 씨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이다.

한지를 건 것은 예단으로 했고, 떡은 안 올리고, 메만 새옹메로 지어 올리며, 두 곳 모두 메를 지어 올린다. 계곡물을 이용해서 메를 짓고, 마리를 잡아 손질한다. 마리는 돼지 한 마리를 뜻하는 데, 돼지라 하지 않고 마리라 말한다. 농사철이 아닌 2월에만 올리고 팔월에는 돼지머리만 올린다. 제사는 일 년에 두 번 지내는데, 2월과 8월 첫 정(丁)일이다.



아랫말 서낭당1

비용은 제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둔다. 2월의 경우는 돼지를 한 마리 잡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참가한 사람들이 조금씩 더 거둔다. 8월의 경우는 회비만으로도 충분하다.

도가는 옛날엔 생기를 맞춰서 했다. 그러나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반장이 당연 도가가 된다. 4반 반장이다. 마리는 제사에 쓰고 참가한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갖는다.

여기 산지당은 옛날 셋말사람들도 함께 참가를 했다. 도가 문제 때문에, 아랫말사람들은 가까우니까, 셋말 사람들도 같이 도가를 하자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가 나중에는 갈려서 셋말에서는 아랫말 산지당 제사에 참여 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셋말과 아랫말이 따로 마을제사를 지낸다.

마리는 살아있는 돼지를 가져간다. 제사 전날 저녁에 마리를 사다가 왔다가 트랙터에 싣고 올라간다. 올라가면 산지당 옆 계곡물이 있어 그곳에



서 손질을 한다. 마리를 잡아 부위별로 각을 떠서 모두 제단에 올린다. 내장은 손질하기가 뭐 하니 까 올리는는 않는다. 버리는 것 외에는 모두 올린다.



아랫말 서낭당2

떡은 하지 않고, 메만 두 개를 짓는다. 새옹메

로 두 개를 짓고, 제주를 사다가 같이 올린다. 옛날에는 제주를 땅을 파서 항아리에 담근 후 그 위에 불을 해 놓아 빨리 발효가 되게 하였다. 2월에는 날이 춥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한 다음 제주 봉안하는 단지를 넣고 덮었다. 보통 3,4일 전에 제주를 봉안했다. 그러면 단술처럼 맛이 좋게 술이 익는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다가 쓴다.

현재 아랫말에서만 12집인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참가한다.

마을에서는 산지당은 큰집이고 서낭당은 작은집이라는 개념이다. 산지당은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서낭당은 저녁에 제사를 지낸다. 아침은 시간을 정하기보다도 해가 뜰 때를 기점으로 하고, 저녁도 해가 넘어갈 때를 시간으로 정한다. 아침에 6시경에 올라가서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마리 손질이 다 끝나면 보통 10시나 11시경이 된다.

서낭당은 산지당에서 돼지머리를 쓸 때를 북어를 쓰고, 산지당에서 마리를 쓸 때는 갈비를 따로 떼어서 서낭당에 쓴다. 서낭당에도 떡은 하지 않고, 새옹메만 짓는다. 서낭에도 반장이 가서 산지당에서 지내는 절차를 따라 같이 제를 지낸다.(제보자: 이종진(남, 62) 정자리, 2016.12.4.)

● 정자리(아랫마을)지역 마을제(祭)

인제군 남면 정자리 (아랫마을)

조사기일 : 1996.8.24.

고증자 : 오흥인, 박현균

| 항 목 |            | 내 용             |                             |
|-----|------------|-----------------|-----------------------------|
| 1   | 제 당 이 름    | 산지당             |                             |
| 2   | 제 당 위 치    | 마을 뒷산(도롱골)      |                             |
| 3   | 제 당 형태     | 당 집 외 형         | 스레트 나무                      |
|     |            | 당 집 내 부         | 예단걸이, 소지걸이                  |
|     |            | 주위의나무명          | 잡나무(엄나무,피나무)                |
|     |            | 돌무더기제당          | 예단걸이, 소지걸이                  |
|     |            | 기 타 형 태         |                             |
| 4   | 제 신        | 믿는신(명)          | 산신                          |
|     |            | 효 협. 전 설        | 마을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마을의 재난을 막는다. |
| 5   | 제 관        | 제 주 명 칭         | 도가(제주)                      |
|     |            | 제주선출방법          |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는사람 1인 선출      |
|     |            | 참 석 자           | 마을사람이 참석                    |
| 6   | 제의 절차      | 제 레 전           | 송침,청소                       |
|     |            | 제 레 절 차         | 도가(제주) 일반주민 소지              |
|     |            | 제 레 후           | 음복후 음식을 나누어먹음               |
| 7   | 제례기일및 시간   | 음력2월과8월         |                             |
| 8   | 제 수 물 (음식) | 돼지고기,주,과,포,떡,매. |                             |
| 9   | 제례경비내용     | 마을에서 거출         |                             |
| 10  | 기타내용       |                 |                             |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7.

텃고사

텃고사를 지낼 때 집집이 다 달랐다. 시루떡만 하는 집도 있고, 팥떡만 하는 집도 있고, 백설기만 하는 집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 지낸다. 날을 받아서 좋은 날에 지낸다. 지금은 날을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산지당 지내는 날을 따라서 많이 한다. 그래서 2월 첫 정일(丁日)에 많이 한다. 그게 봄이다. 그날은 떡도 하고 매도 지어서 집안 다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요즘은 안 하기 때문에 비는 것을 잘 모른다. 그저 집안 편안하고 나라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동네 안전하고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빈다. 그렇게 빈다.

어떤 집은 갈봄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한 번만 하기도 한다. 텃고 사는 정월에 많이 한다. 정월달에 하고도 가을 시월 달에 또 한다.

성주도 있는 집은 있고 없는 집은 없었다. 여긴 옛날에는 다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다.(제보자: 권오영(여, 78) 아랫말, 2016.7.21.)

애들 오래 살라고 빌고 그런 건 복술이잖아요. 복술이한테 삼월삼시 구월구일 그때 쌀 한 말을 짚어지고 가는 거야. 여기 저 매 위쪽에 있었고, 원대리에 있었어요. 복술이. 그 당시에 쌀 한말이면 대단한 거예요. 무슨 천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사람 생년월일 몇 시에 태어나고 이런 걸 써서 거는 거지. 이렇게 줄을 쳐서 거기다가 그림 상을 차려 놓고 가서 정안수 떠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지. 그럼 복술이는 계속 비는 거야. 몇 년생은 뭐 오래 살게 해주고 어찌구 하면서 계속 비는 거지. 그렇게 다니면 10년은 꼭 다니더라고 태어나서부터 10년. 열 살까지 정자리에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장독대에 정안수 떠 놓고, 우물가에도 가 떠놓고, 부뚜막 조양신한테도 무릎 꿇고 빌고. 누구 아프면 누구 좀 낫게 해달라고 빌고 집안에 건강하게 해 달라고 많이 빌었어.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도 안 지내는데 ‘지신제’라고 그랬잖아요. 지신제. 일 년에 한 번씩 꼭 가을에 지냈거든 농사를 지어가지고 먼저 수지로 떡을 두 가지를 해. 팔 시루떡, 백 설기를 해. 메. 그다음에 채. 채는 무채 이걸 꼭 해. 그게 ‘텃고사’예요. 터에 떠 놓는 거야.

지금 내가 왜 그걸 안하냐면. 내가 절에 다니다 보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절에 가서 스님이 천수경을 틀어 놓고 있으면, 잠이 들어. 그러면 천수경에 모든 귀신은 천수경 주문에 쓰러져.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틀어 놓으니까 그렇구나. 내 마음이지 뭐.

사과를 판다, 홍시를 판다 하면 돈을 많이는 못 하고 만 원짜리 하나고 먼

저 판 걸 지갑에다 접어접어 꼭 넣었다가 절에 가서 놓지. 매번 다르지만  
“스님 저의 성의인데 이게 언제 봄에 곰치 팔면서 먼저 팔았던 거 만원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휴 대단 하십니다.”

날 보고 그래. 이 백련사도 가면은 그렇게 하고 어떤 때 많이 팔면은 십만 원 놓았다가 등을 달기도 하고. 내가 할 건 그것 밖에 없잖아. 그래서 텃고사를 안 지내.

그리고 부처님한테 놓았던 음식은 내려 쓰잖아. 부처님 앞에 놓았던 건 산신각에 가서 쓰잖아, 산신각에 놓은 건 부처님 앞에 못 올라가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다 신이잖아. 토지지신이잖아. 내가 뭐 이런 거를 똑 같은 방법이야. 방법은 왜 똑 같은 방법이나면 농사를 지은 걸 먼저 수지로 곡식을 뺏아서 떡을 해 놓고 텃고사를 지내는 거. 그걸 내가 그렇게 안 해주면 수지로 팔은 걸 만원 절에 다 바치니까 방식은 똑 같은 거야. 그니까 높이 올라 간 거지 뭐.

그 전에 내가 절에서 백련사에 가서 스님 제가 고사를 지냈는데, 지금 안 지낸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안 지내도 된다고, 하고 싶으면 한 번 집에서 스님이 염불을 한 적이 없잖아 그래요. 날을 받아서 하라고. 집에 대한 고사니까 백설기, 시루떡, 그 다음에 텃고사 처음 지낼 적에 돼지머리를 썼으면 돼지머리를 쓰고, 계란을 썼으면 계란을 써도 된대요. 처음 지낼 때 쓴 대로 그냥 쓰면 된 대요. 그래 나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그러니까. 돼지머리하고 나물하고 떡은 그렇게 두 가지를 하고 과일도 몇 개 놓으면 좋지 뭐. 그래 그 스님하고 어떤 분이 두 분 와가지고 그렇게 염불을 해 주더라고. 그래서 한 번 했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안 하는 거지 뭐.

원래는 텃고사라는 것은 가을에 했지요. 봄가을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가을에 대략 많이 하지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터줏가리도 있었어요. 터줏가리도 하나의 신이에요.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터줏가리 안에는 단지에 쌀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짚으로 고깔을 만들어서 덮었어요. 터줏가리를 만드는 것은 봄이나 가을에 낱을 받아서 했다. 그것도 정성이니까 낱을 받아서 정성을 드리지요.(제보자: 오홍인(남, 78) 2016.12.4.)

## 복술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복술한테 가서 물어본다. 그 전에 야 다 그렇게 했다. 지금은 병원이 생겨서 다들 병원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복술이한테 가서 물어가지고 빌고, 아이 고치고 그랬다. 아이가 아파고, 소가 아파도 복술이한테 갔다. 그렇게 복술이가 해서 고치면 낫는 수도 있었다.(제보자: 이상복(남, 82) 매봉재, 2016.7.21.)

## 복술이, 귀신잡이

옛날에 참 회한하게 그 점을 해 가지고. 이집에 검은 게 들어 왔니, 허연 게 들어 왔니. 그런 거 점도 해 가지고 그러고. 옛날에는 그랬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회한하게 그 점ियो. 옛날에는 잘 맞았어요. 그 복술이는 무당하고 또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긴 병이 걸렸잖아. 동토가 나서 일 년도 앓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복술이 와서 하는 일은 귀신 잡이라고. 그래 귀신 잡이 그럼 그 집에 와 가지고 돈을 꽤 많이 줘야 하잖아. 3일 동안, 5일 동안 경을 읽으면서 하는 거니까. 돈을 꽤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도 없는 사람은 못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무당이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다리 갈라 준다고 하고, 베를 이렇게 놓고 찢어 주는 거지. 복술도 그런 걸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집에는 귀신이 너무 많아 가지고 탈이 많다는 거야.

나무를 석자, 요 만큼 잘라. 그래가지고 9구멍을 끝로 파. 동그랴게 한 치 정도 파는 거야. 그걸 귀신 잡이라고 해. 이집에 귀신이 많으니까. 그 귀신을 잡아서 물에다 띄워야지만 이집이 괜찮다는 거지. 뭐 동토도 안

나고 무슨 거도 안 나고. 9개를 뚫어서 몇 개를 해 3개를 한다든지 5개를 한다든지. 마찬가지로야.

그럼 대밭이꾼이 있잖아. 그 대를 받아 이렇게. 그럼 바깥에 나가 하려니 귀신이 실렸다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 방치돌을 방망이 다듬이 돌. 그걸 갖다 놓고 대를 거다 딱딱 대며 막 치고. 그러면 딱딱 소리가 나요. 다듬이돌 밑에 위에다가 나무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은 웃잖아. 웃으면 가면서 슬쩍 대끝고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그 대 받는 사람이 일부러 막 옆에서 웃고 그러면. 이거 너 왜 웃었냐고 하는 식으로. 이걸 대끝거리라고 그래. 대끝거리 이걸 나가면서 툭 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일부러 그러는 거.

옛날에는 대 잘 받는 사람을 명대꾼이라고. 그리고 대 잘 받는 사람은 대만 받더라고. 그럼 이 사람이 갔다 오면, 복술이 막 호령을 하고 막 그러면은 대굴대굴 굴러.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그러다 귀신이 무슨 귀신이 왔으니 붙잡아서 가둬야 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경) 읽는 사람이 엮어. 그러면 문창호지를 기다랗게 요만큼 하게 엮어 20cm 되게 쪽 해나. 그러면 대 끝는 사람이 대꾼이 가서 이 놈을 하나 집어서 툭툭툭 말아 손으로 그걸 말아서 손바닥에 놓고 대를 받으면, 이게 간혹 가서 뛰는 거야. 그러면 요 나무 구멍이 있잖아. 요롱요롱 하다가 거기다가 딱 집어넣는 거지.

진흙을 반대기처럼 해봐. 그 놈을 구멍 위에다 딱 붙여. 그럼 거기다가 귀신을 가두는 거야. 새끼를 윈 새끼를 파서. 세 번을 돌려서 꼭 묶어 놓지. 그럼 9개면 9번. 그렇게 다 귀신을 가둬다가 이 놈을 갔다 물어. 저 멀리다가 그런데 묻는데. 복술이 젊은 사람들이 장난삼아 파서 열어 보지 말라고 그래. 안 좋다고. 옛날에 그렇게 해서 귀신을 잡아서 가둔다고 그렇게 했지.

그런다고 아픈 사람이 없을 수 있다. 북망산천이 없게. 그걸 가지고 귀신 가두기라고 하지. 그러면은 그 집에서 대를 받고 귀신 잡이 한다고 하면. 동네사람이 다 모여 오지 뭐. 그것도 구경이라고. 가득 와서 방은 앉

을 자리도 없어. 밖에 불 해 놓고도 서 있고. 그 전에는 큰 행사였지. 집집이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왔어. 귀신 잡이 하느라 그러니까 와서 그 집에 집도 든든하게 봐 주고. 쉽게 말해서 그런 거지 뭐.

어 그게 처음에 보면 섬뿔섬뿔 해요. 그게 그 대꾼이 바깥에 나와서 강중강중 사방 막 뛰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부르고 그러면 북 치는 사람이 막 호령을 해. 귀신을 잡아 가두지 왜 그러냐고. 막 돌아다니게 한다고.

그 당시도 그걸 대반아 내 뛰는 걸 못 쫓아간대. 얼마나 빠른지. 그럼 바깥에서 혹시 그럴까봐. 동네 사람이 모여서 횃불을 해 가지고 몇 개 준비를 해. 그럼 나온다고 하면 횃불을 해 가지고 쫓아가도 못 잡는데 얼마나 빠른지. 꺾꺾한데도 번개 같이 지나간대. 그래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그렇게 그런대요. 대 받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와가지고서도 방 안에서 대굴대굴 굴리요. 혼자서. 그것도 무서워. 그렇게 하다가 막 귀신을 잡아서 귀신을 가둬야지 왜 그러고 있느냐 어찌냐고 복술이 그렇게 연설을 그래. 그럼 좀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좀 있다가, 이렇게 그 종이를 뿔뿔뿔 몽치면 콩알 만해. 그래 가지고 있으면요. 이상하긴 이상해. 그 종이 가 좀 있다가 툭툭툭 뛰어. 그래 그럼 그걸 구멍에다가 딱 집어넣고서는 진흙으로 딱 붙이고, 진흙에다 형짚을 놓고, 새끼로 세 번을 꼭 쪼여서. 그렇게 9개면 9개 다 그렇게 해서. 아 이제 귀신을 다 잡아 냈으니까 이집은 괜찮다고. 그렇게 복술이들이 다 돈 버는 거야.

나무는 소나무로 했지. 옛날에는 굿을 한다고 하면 몇 개리 사람들이 그 집 굿 구경을 다 갔어요. 그럼 다 모였지. 여기 소치리, 김부리, 갑둔리까지 오는 거야. 여기 고개 넘어 통고리라고 장씨네인데 그 집이 그 부인이 그 목매다는 것도 팔자가 맞아요. 가서 목을 매는데 소나무인데. 이게 요 만하지 뭐. 거기다 목을 매 앉아서 죽었는데, 이게 척 휘었어. 아 그런데 그 친정패가 하도 그래 가지고 굿을 하는데 와서 굿하는 걸 보고 친정패가 시답잖거든. 뭐 이따구 무당을 데리고 왔냐고 못하게 해 가지고 못하고서 다시 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는데 그 뭐 무당도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그래서 보면 신남의 삼 동의 사람들은 다 구경을 오



는 거야. 엄청나지 뭐. 몇 백 명이지 뭐. 그게 그런데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것도 빠른 사람이나 먹지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지 뭐. 떡 한 시루 그걸 어떻게 해 뭐. 그런 것도 옛날에 구경을 했지.

굿도 죽은 사람이 실렸다고 얘기를 하는걸 보면 아주 웃겨요. 목소리도 흥내를 내고 자기 살던 걸 얘기하고 이상하긴 이상해. 굶하는 건 많이 봤지. 그런데 여기 우리 같이 살던 정○○이라고 그 놈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굶을 하는데. 6.25때 학교로 뺏찌가 적십자처럼 된 게 나왔어요. 그걸 뽑고 다니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근데 이놈이 죽었거든. 그런데 무당이 굶을 하다가 이렇게 그 방울을 흔들면서 바깥으로 받아. 받아서 이렇게 한번 움찔하더니 신이 실렸는데. 이게 귀신이 와서 실렸는데. 그게 이상 하더라고. 택○○이라고 그게 실렸는데 이게 실려가지고 들어오면서 내 뺏찌 뺏찌 하는데. 내 뺏찌가 어디 있느냐고. 그걸 어떻게 아냐고. 국민학교 적에 미군 애들이 갖다 준 건데. 적십자인데 뺏찌 요만한 걸 달고 다녔거든. 그런 건 봤거든. 그게 실려서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찾는데 이상 하더라고. 내 그런 건 봤어.

그런데 무당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그 언제 벌써 오래 됐잖아 그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되기가 좀 힘들어. 근데 그걸 그만두고 무당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나라도. 아니 국회의원이 그걸 그만 두고 무당을 해. 그러니 이게 팔자인거야. 그 다음에 공무원 하다가 그만 두고 무당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그래. 그러니까 그 놈의 게 팔자지. 아니 국회의원이 되기가 좀 힘들어. 근데 그걸 싫다고 하고 무당을 하니. 그러니까 그게 피할 수 없으니. 그게 팔자야.

뭐 나도 팔자는, 고기를 지금 엄청 먹잖아요. 근데 난 고기 먹을 팔자가 아니잖아. 나는 난 내가 알아요. 고기 먹을 팔자가 아닌데 고걸 계속 먹으니까 인제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보신탕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학자인데 그 전에 어떻게 날 보고 넌 보신탕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셨거든. 왜 그랬는지 모르지 뭐. (제보자: 오홍인(남, 78) 2016.12.4.)

## 정자리교회

정자리 셋말 거리 중간에 예전에 교회가 있었다. 그 때문에 도로를 돌아다니는 불편함이 있었다. 도로를 막고 있어서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정거를 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었고, 이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고가 났다. 이 교회는 2016년에 이사를 갔고, 현재는 그곳을 헐고 도로를 닦아 다니기 좋아졌다.

## 법상원(法常園)

정자리 매봉재 아래에 있는 절이다. 무심법관(無心法觀)이라는 법명을 쓰는 스님이 5년 전에 세웠다. 절 이름은 법상원이라 하고, 옆에는 고려전통서각문화원(高麗傳通書刻文化院)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한국불모선원(韓國佛母禪院)이라는 간판도 있다. 불모(佛母)는 불타의 어머니 또는 불상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절 안에 들어가면 스님이 새긴 각종 서각품을 볼 수 있는데, 추사 김정희 <세한도>를 비롯해서, 반야심경, 금강경, 신묘장구대다라니경, 십우도, 달마대사, 관세음보살, 서기만당(瑞氣滿堂) 현판 등이 새겨져 있다.



법상원



십우도

## 정자리 제보자

- 권오영(여, 78) 아랫말. 구술. 2016.7.21. 12.14.  
박정숙(여, 65) 춘천시 소양로. 구술, 곳. 2016.10.2. 10.9.  
심덕용(남, 62) 기령골. 구술. 2016.7.21. 8.3. 12.14.  
심영춘(남, 50) 매봉재. 사진제공. 2016.12.17. 12.18.  
오규택(남, 51) 셋말. 구술. 2016.7.21.  
오흥인(남, 78) 셋말. 구술. 2016.8.4. 9.1. 9.7. 12.4. 12.14.  
이금화(여, 72) 정자리. 구술, 사진제공. 2016.7.21. 10.9. 12.14.  
이상복(남, 82) 웃말. 구술. 2016.7.22.  
이선녀(여, 72) 셋말. 구술. 2016.12.14.  
이옥녀(여, 84) 석장골. 구술. 2016.10.9.  
이종섭(남, 48) 춘천시. 열녀비문 사진제공. 2016.9.2.  
이종진(남, 63) 아랫말. 구술. 2016.9.1. 12.4.  
장근성(남, 63) 셋말. 구술, 사진제공. 2016.7.21.  
장영춘(남, 62) 통골. 2016.8.4.

제12장  
내가 아는 정자리





제 12 장

## 내가 아는 정자리



이 공간은 정자리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면 됩니다.  
할 말이 참 많을 것입니다. 기념하고 싶은 이야기, 추억의 사진, 마을의 사건 이야기, 우리 집안 이야기, 가축 이야기, 가훈 등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후손들에게 남겨 주세요.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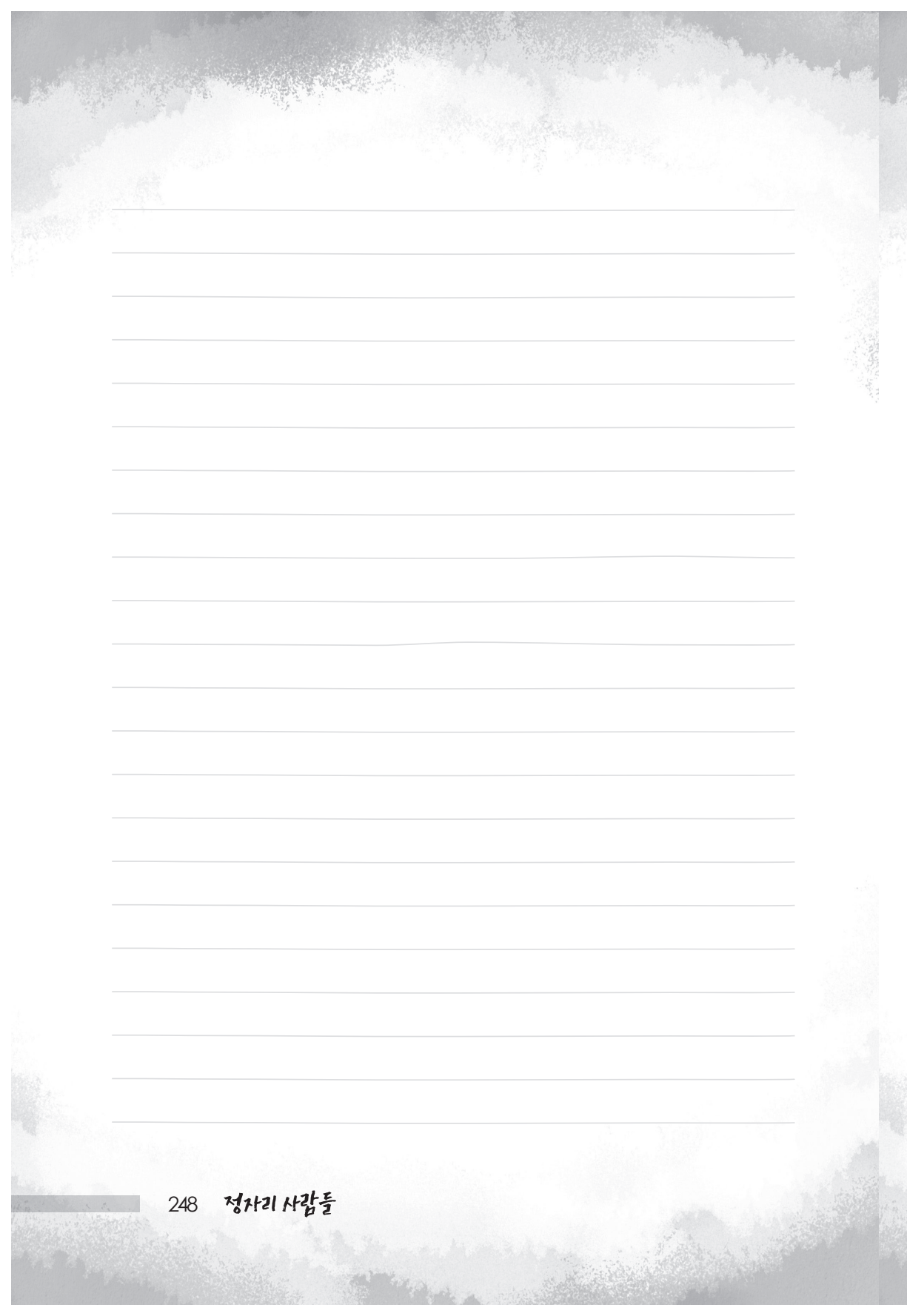






Lined writing area consisting of 20 horizontal lines.





A page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suitable for writing. The background features a decorative border with a cloudy sky at the top and a forest of trees at the bottom.





## 저자소개

문래산인 文來山人 **이학주** 李學周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에서 출생했다. 현재 춘천시 후평동에서 살고 있다.

대학은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다녔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예술적 특성연구>(2000.2)를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광주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고,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글쓰기와 말하기를 강의하고 있다. KBS춘천라디오에서 2010년 4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강원로드>를 방송하고 있다.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이다.

저서는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문학세계』(2002), 『아들 낳은 이야기』(2004), 『강원인의 일생의례』(2005),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2009), 『북산면 사람들』(2010), 『사랑과 낭만의 도시 춘천』(2011), 『수동골 사람들』(2011), 『철원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북』(2012), 『고전문학의 서사세계』(2012), 『한반도 배꼽이야기』(2013), 『홍천군 노천리 좌운리의 지명유래 스토리텔링』(2014), 『설화와 문화원형』(2014), 『38선의 기억』(2014), 『스토리텔링과 마을관광 박물관』(2015), 『내설악 그 명승에 빠지다』(2015) 등 수십 권이 있다.

논문은 「신승검 관련 콘텐츠가 가지는 관광문화축제의 속성 및 계승」(2015), 「인제군 金富大王 관련 지명유래의 현황과 의미」(2015),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2015), 「흔레놀이 신라다루기의 전승의의와 관광자원화 방안」(2015), 「횡성 태기왕 자원을 활용한 명품 관광지 만들기」(2015), 「강릉시 소들의 마을기원양상과 그 의미」(2015), 「홍천 무궁화 지명 개칭에 따른 관광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2015), 「연암의 스토리텔링과 양양군 관광스토리텔링 향방: 범고창신 글쓰기의 활용을 중심으로」(2015), 「『오토기보코(伽婢子)』 〈노래로 맺은 인연(歌を媒として契る)〉에 나타난 생사관과 글쓰기: 글쓰기의 치유력(治癒力)을 중심으로」(2016), 「〈崔致遠〉을 통해 본 傳奇小説의 글쓰기론: 전기소설적인 판타지를 통한 주제부각 측면에서」(2016), 「동아시아 전기소설을 통해 본 글쓰기치유로서의 자산계승」(2016), 「류인석 전신영정의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농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2016), 「류인석 의군도총재의 의병이미지 선양을 위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글쓰기 방식 新마인드맵의 원리를 활용한 선양 및 관광자원 발굴」(2016), 「解冤과 祈願의 상관관계를 통한 관광자원 원형 발굴 연구: 삼척 신남리 〈애바위〉전설의 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2016) 등 수십 편이 있다.

